

예술의 초대

The Monthly Magazine of the Busan Cultural Center

30
예술의초대 창간 30주년

COVER STORY

유니버설발레단 '돈키호테'

ART COLUMN

지구는 MZ세대를 중심으로 돌고 있다?

골목에서 만나다. 생활 속 문화공간
문화공간 '무사이'

May 2022
Vol.365

5

UNIVERSAL BALLET



Don Quixote



60년의 전통과
진한 개성이 조합된 사운드
부산시립교향악단

부산시립교향악단 창단 60주년
기념연주회 <회갑>
2022.11.02. (수)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2022년 교향악단 창단 60주년, 합창단 창단 50주년
**부산시립예술단이 희망과 감동의 무대로
예술의 숨결을 전합니다**

부산과 함께한 50년
우리의 하모니가
부산을 넘어 세계로
부산시립합창단

부산시립합창단 50주년
기념연주회 <4인 4색 합창축제>
2022.10.28. (금)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부산시립합창단 제 186회 정기연주회

부울경 메가시티 성공기원 연주회

창단 50주년 기념
SINCE 1972

Carl Orff

Carmina Burana

지휘	이기선
연출	김지용
안무	박근래
출연	부산시립합창단 울산시립합창단 창원시립합창단 부산시립교향악단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부산청년무용가더파크댄스

칼 오르프

카르미나 부라나

2022. 6. 23(목) ~ 6. 24(금) 19: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주최 부산문화회관

주관 부산시립예술단

티켓 R석 30,000원 S석 20,000원 A석 10,000원

예매 www.bscc.or.kr

문의 607-6000(ARS 1번)

BusanSymphonyOrchestra 52nd

제83회

을숙도 명품콘서트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2022.6.10 FRI PM 7:30

을숙도문화회관 대공연장



예술감독 | 지휘
오충근
Choong-Keun Oh



협연 | 클라리넷
백동훈
Dong-Hoon Paik

본 윌리엄스 Ralph Vaughan Williams
푸른 옷소매 주제에 의한 환상곡
Fantasia on Greensleeves

핀치 Gerald Finzi
클라리넷 협주곡 c단조 작품31 *부산초연(2022)
Clarinet Concerto in c minor, Op.31

프랑크 César Franck
교향곡 d단조 작품48
Symphony in d minor, FWV48



해설 | 음악평론가
조희창



연주 | BSO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주최 | 을숙도문화회관 주관 |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특별후원 | BNL 부산은행)

예매 | 을숙도문화회관 YES24.COM 관람료 | 1층2만원, 2층1만원(예매20%할인)

공연문의 | 051.220.5811 관람연령 | 초등학교 이상

국악관현악의 미래를 찾다 SEASON 2

국악관현악

국악관현악의
미래를 찾다

SEASON 2

연주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지휘 김종욱 가야금 김혜진 바이올린 조혜은
순국의 혼 (김백찬) 강태홍류 가야금산조 협주곡 '시간의 흐름' (이정호) 바이올린 협주곡 '이별가' (김성규) 공간이동 (황호준) 국악관현악 '바다' (이정호)

2022. 5. 26 THU 19: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BMTMO SEASON 2022

주최 부산문화회관 티켓 R석(1층) 10,000원 · S석(2층) 5,000원 예매 www.bscc.or.kr 문의 607-6000(ARS 1번)

바다
결함에
오래였으나
바다를
제대로
본적이 없다

2022.5.20.FRI ————— 5.21.SAT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금 20:00 토 16:00 / 20:00

CONTENTS

05

월간문화예술정보지



부산문화회관의 정보를 담은
QR코드입니다.

예술의 초대 May 2022 Vol.365

2022년 5월호 통권 365호

발행처 (재)부산문화회관
48534 부산광역시 남구 유엔평화로76번길 1
Tel. 051 607 6000

발행인 이정필
편집인 최용부
편집위원 동길산(위원장), 권은영, 이상현, 정두환, 정봉석, 채영희, 홍동식
홍보팀장 서정환
편집장 정복엽
발행일 2022년 4월 25일
디자인·제작 호민디앤피

08 Column
지구는 MZ세대를 중심으로 돌고 있다?

10 Cover Story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유니버설발레단 '돈키호테'

14 거꾸로 보는 미술사 ⑩
화려한 꽃무늬로 치장된 여성

18 세계오페라축제 ④
G. 푸치니의 삶과 푸치니 페스티벌

22 골목에서 만나다.생활 속 문화공간
상가 지하에 깃든 문화천국 '무사이'

26 Preview

36 Review

42 Program Guide

58 New Book

59 BSCC News

SUN	MON	TUE	WED
<p>1</p> <p>◆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비발디의 사계' 11:00, 14:00</p> <p>사 전석 2만원(3세 이상 입장) (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p>2</p>	<p>3</p> <p>◆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제47회 청소년 협연의 밤 '2022 꿈과 감성이 있는 젊은 음악회' 19:30</p> <p>중 전석 2천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p>4</p> <p>◆ 부산시립합창단 제185회 어린이 뮤지컬 '옛날 옛날' 대 2만원-1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p>부산 독일 가곡 연구회 정기연주회 19:30</p> <p>중 독일가곡연구회(010-5641-4935)</p> <p>◆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2022 꿈과 감성이 있는 젊은 음악회' 19:30</p> <p>사 전석 2만원(3세 이상 입장) (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p>8</p>	<p>9</p>	<p>10</p> <p>제11회 부산사람 이태석 기념음악회 '새 시대의 기상' 19:30</p> <p>대 초대(홈페이지 응모 후 추첨) (사)부산사람이태석기념사업회(637-0125)</p> <p>제53회 부산피아노연주가클럽 정기연주회 19:30</p> <p>중 초대/부산피아노연주가클럽(010-8488-6649)</p> <p>윤혜빈 귀국 피아노 독주회 19:30</p> <p>캠 초대/윤혜빈(010-5641-4935)</p>	<p>11</p> <p>◆ 부산시립교향악단 가곡 '심포니아夜' 19:30</p> <p>대 전석 1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p>제53회 부산피아노연주가클럽 정기연주회 19:30</p> <p>중 초대/부산피아노연주가클럽(010-8488-6649)</p>
<p>15</p> <p>히사이시 조 영화음악 콘서트 2022 17:00</p> <p>대 12만원-9만원-6만원-4만원 위클래스(070-4190-1289)</p> <p>제18회 부산국제무용제 AK21국제안무가육성경연 결선 19:00</p> <p>중 (사)부산국제무용제조직위원회(868-7881)</p>	<p>16</p>	<p>17</p> <p>양옥진 첼로 독주회 19:30</p> <p>캠 전석 2만원/IPB(070-8018-8303)</p>	<p>18</p>
<p>22</p> <p>경남 오케스트라 클럽 '피아노 듀오 콘서트' 16:00</p> <p>캠 경남 오케스트라 클럽(010-2598-5004)</p>	<p>23</p>	<p>24</p> <p>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특별연주회 '2022 솔로리스트들의 축제' 19:30</p> <p>대 전석 2천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p>부산예술고등학교 제34회 국악 정기연주회 19:30</p> <p>중 부산예술고등학교(514-1232)</p>	<p>25</p> <p>김미성 피아노 리사이틀 19:30</p> <p>중 전석 2만원/아트뱅크(010-5641-4935)</p>
<p>29</p> <p>UKO 오케스트라 제52회 사랑나눔음악회 19:30</p> <p>대 UKO(988-3087)</p> <p>경희댄스시어터 '박재현의 안무노트' 17:00</p> <p>중 전석 2만원/경희댄스시어터(010-4165-7136)</p> <p>클레다 현악4중주단 제10회 정기연주회 17:00</p> <p>캠 클레다 현악4중주단(010-4568-3370)</p>	<p>30</p>	<p>31</p> <p>2022 부산음악콩쿠르 10:00</p> <p>대 중 캠 부산MBC(760-1121)</p>	<p>1</p> <p>코로나19 종식 기념 공연이 취소, 휴무 공연관람 전 반드시 공연관람 전 반드시 문의하시거나 홈페이지(www.bsh.or.kr) 확인하시기 바랍니다.</p> <p>입문</p>

Busan Cultural Center & Busan Citizen's Hall Schedule of Performances

WED	THU	FRI	SAT
<p>5회 정기연주회 '베토벤의 11번 협주곡' 11:00(단체관람), 19:30 부산문화회관(607-6000)</p> <p>정기연주회 19:30 부산문화회관(607-6000)</p> <p>공용연 '비발디의 사계' 11:00 입장료 7-6000</p>	<p>5</p> <p>◆ 부산시립합창단 제185회 정기연주회 어린이 뮤지컬 '옛날 옛적에' 10:30 대 2만원·1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p>소프라노 정혜민 귀국 독창회 19:30 중 전석 2만원/정혜민(010-5297-2528)</p> <p>◆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비발디의 사계' 11:00, 14:00 사 전석 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p>6</p> <p>◆ (재)부산문화회관 월드 콩쿠르 우승자 시리즈 II '드미트리 마슬레예프 피아노 리사이틀' 19:30 대 5만원·4만원·3만원 (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p>강우용 귀국 피아노 독주회 19:30 중 전석 2만원/강우용(010-3594-2826)</p> <p>◆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비발디의 사계' 10:40 사 전석 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p>7</p> <p>제10회 베이스 손목 독창회 16:00 참 초대/손목(010-9550-4649)</p>
<p>1</p> <p>합창음악회 부산문화회관(607-6000)</p> <p>합창연주회 19:30 합창연(010-8488-6649)</p>	<p>12</p> <p>◆ 부산시립교향악단 기획음악회 '부산시향의 미완성음악회Ⅳ' 19:30 대 전석 5천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p>2022 부산음악대축제 I '신인음악회' 19:30 중 초대/(사)한국음악협회 부산시지회(634-1295)</p>	<p>13</p> <p>◆ 부산시립교향악단 제587회 정기연주회 '오로라' 19:30 대 2만원·1만5천원·1만원·5천원 (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p>2022 부산음악대축제 II '양상블의 밤' 19:30 중 초대/(사)한국음악협회 부산시지회(634-1295)</p> <p>파르렛 BCMS 정기연주회 19:30 참 파르렛 BCMS(010-6295-8552)</p>	<p>14</p> <p>아르텔필하모닉오케스트라와 함께하는 '사랑의 송가' 19:00 대 10만원·7만원·5만원·3만원 아르텔필하모닉오케스트라(010-6209-9990)</p> <p>(재)부산문화회관 특별강좌 '이건희 컬렉션: 수집과 기증 그리고 미술관의 역할' 14:00 참 전석 1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p>8</p>	<p>19</p> <p>◆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_극단 돌파구 'XXL 레오타드 안나수이 손거울' 14:00 대 3만원·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p>20</p> <p>◆ 부산시립무용단 제85회 정기공연 '바다 곁에 오래였으나 바다를 제대로 본적이 없다' 20:00 대 3만원·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p>◆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_극단 돌파구 'XXL 레오타드 안나수이 손거울' 14:00, 19:30 중 3만원·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p>2022 부산청소년음악제 19:30 참 (사)한국음악협회 부산시지회(634-1295)</p>	<p>21</p> <p>◆ 부산시립무용단 제85회 정기공연 '바다 곁에 오래였으나 바다를 제대로 본적이 없다' 16:00, 20:00 대 3만원·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p>A-ri 양상블 '책 읽어주는 음악회-데미안' 18:00 참 A-ri 양상블(727-4819)</p>
<p>15</p> <p>19:30 한국어(442-1941)</p>	<p>26</p> <p>◆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제215회 정기연주회 '국악관현악 시즌 II' 19:30 대 1만원·5천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p>◆ 부산시립교향악단 기획음악회 '우리아이음악회' 19:30 중 전석 1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p>정은혜 피아노 독주회 19:30 참 초대/MMK 예술기획 010-9411-3033</p>	<p>27</p> <p>◆ 이태리음악연구회 제54회 정기연주회 '프란체스코 파올로 토스티' 19:30 중 전석 2만원/이태리음악연구회(010-8701-8862)</p> <p>테너 이태홀 귀국 독창회 19:30 참 무료/예술기획 아트커넥션스(010-9810-2278)</p>	<p>28</p> <p>장정림 플루트 독주회 18:00 참 초대/장정림(010-2459-4147)</p>
<p>16</p> <p>19:30 www.bscc.or.kr)를 합니다.</p>	<p>부산문화회관 시민재극단</p> <p>부산시립극단 특별공연 가족뮤지컬 '미운오리새끼' 5월 13일(금)-6월 4일(토) 토요일·공휴일 오전 11:00, 오후 2:00(평일 단체공연, 일요일 공연없음) 입장료: 전석 1만원(전연령 관람가) ■ 문의: (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p>부산문화회관 전시부</p> <p>2022 풀리처상 사진전 부산전시 1월 21일(금)-5월 15일(일) 입장료: 일반 1만5천원, 청소년 1만2천원, 어린이 9천원 관람시간: 오전 10:00~오후 7:00 (입장마감 오후 6:00) ※ 매주 월요일 휴관 ■ 문의: (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p>2022 풀리처상 사진전 부산전시</p>  <p>SHOOTING THE PULITZER</p>

• (재)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에서 예매하십시오.
• 위 공연 전시일정은 주최 측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공연정보는 www.bscc.or.kr 에 접속하세요.
• 초대(무료)공연은 반드시 주최 측에 문의 바랍니다

SUN	MON	TUE	WED
<p>1</p> <p>콩순이 뮤지컬 시즌2 '우리들 음악회' 11:00, 14:00 대 5만원·4만원/동그라미그리기(1577-4868)</p>	<p>2</p>	<p>3</p>	<p>4</p>
<p>8</p>	<p>9</p>	<p>10</p>	<p>11</p>
<p>15</p>	<p>16</p>	<p>17</p> <p>KNN방송교향악단 제4회 정기연주회 '서희태 상임지휘자 취임음악회' 19:30 대 10만원·7만원·5만원·2만원 KNN방송교향악단(850-9568)</p>	<p>18</p>
<p>22</p>	<p>23</p>	<p>24</p>	<p>25</p> <p>부산시민회관 2022 문화예술행사 배시시 명품극장 '스냅' 아 무료(지정좌석제, 5만원) 대 5만원(재)부산문화회관(603-2183-1290)</p>
<p>29</p>	<p>30</p>	<p>31</p> <p>한·오수교 130주년 기념 2022 빈 심포니 내한공연 19:00 대 R석 25만원·S석 18만원·A석 12만원·B석 5만원 (주)더블유씨엔코리아(02-2183-1290)</p>	<p>6월 1일</p> <p>코로나19 전염병 공연이 취소, 휴무 공연관람 전 반드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wwww.bsh.or.kr) 확인하시기 바랍니다.</p>

Busan Cultural Center & Busan Citizen's Hall Schedule of Performances

ED	THU	FRI	SAT
4	5	6	7
	<p>BYU 영 앰버서더스 2022년 한국 투어 16:00</p> <p>대 2만원·1만원 BYU 영 앰버서더스 한국 투어 홍보팀 (02-2038-2548)</p>	<p>극단 이야기 제42회 정기공연 '슬픔이 찬란한 이유' 19:30</p> <p>소 전석 3만원/극단 이야기(010-4221-5033)</p> <p>(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2022 시민뜨락축제_퓨전국악밴드 비월, Project A' 12:20</p> <p>야 무료/(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p>극단 이야기 제42회 정기공연 '슬픔이 찬란한 이유' 16:00</p> <p>소 전석 3만원/극단 이야기(010-4221-5033)</p>
1	12	13	14
		<p>◇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_유니버설발레단 '돈키호테' 19:30</p> <p>대 8만원·6만원·4만원 (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p>(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2022 시민뜨락축제_이끌림 앙상블, 어쿠스틱 나무의자' 12:20</p> <p>야 무료/(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p>◇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_유니버설발레단 '돈키호테' 15:00</p> <p>대 8만원·6만원·4만원 (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p>프로이데 뮤직스토리 콘서트_읽어주는 음악회 '앨리스의 유럽여행' 15:00</p> <p>소 프로이데(010-2850-6424)</p>
8	19	20	21
<p>제36회 부산청소년예술제 '청소년무용예술제' 19:30</p> <p>대 (사)부산무용협회(632-5116, 010-2482-3041)</p>		<p>◇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2022 디즈니 인 콘서트: Beyond The Magic' 17:00</p> <p>대 10만원·8만원·6만원·4만원 (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p>프로이데 뮤직스토리 콘서트 '읽어주는 음악회'앨리스의 유럽 여행' 15:00</p> <p>소 프로이데(010-2850-6424)</p>	
15	26	27	28
<p>화가 있는 날 19:00</p> <p>(세 이상 입장) 07-6000)</p>			<p>제9회 부산 청소년 열린 축제 13:00</p> <p>소 부산광역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010-3898-5981)</p>
<p>작가로 예정되었던 공연은 연기되고 있습니다. 반드시 공연 주최 측에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www.bscc.or.kr)를 참조합니다.</p>	<p>하공처럼 넉넉하게 바람처럼 자유롭게 5월 5일(목)-5월 15일(일) 제1전시실 반야사 646-6237</p> <p>제36회 부산청소년예술제 학생사진공모전 5월 18일(수)-5월 21일(토) 제1전시실 한국사진작가협회 부산광역시지회 631-4111</p>	<p>최은송 컬렉션전 5월 28일(토)-6월 1일(수) 제1전시실 최은송 010-6808-5938</p>	

부산시민회관 전시실

- (재)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에서 예약하십시오.
- 위 공연 전시일정은 주최 측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공연정보는 www.bscc.or.kr 에 접속하세요.
- 초대(무료)공연은 반드시 주최 측에 문의 바랍니다



지구는 MZ세대를 중심으로 돌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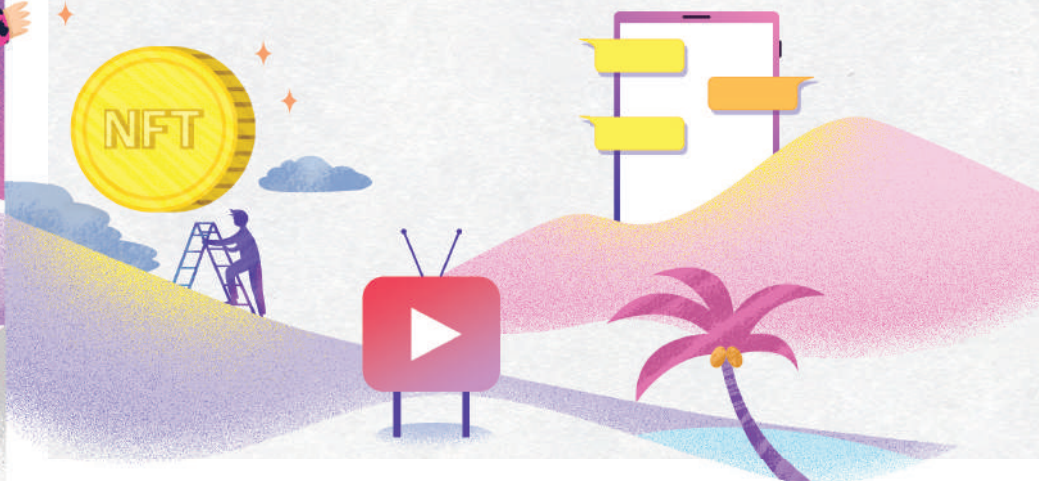
홍동식
부경대학교 시각디자인학과 교수



코로나 팬데믹 덕분(?)인지 부산의 미술 시장은 활황이라고 한다.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 부산국제아트페어를 방문해 보니 전시된 그림들의 태그에는 빨간딱지가 유난히도 많이 붙어 있었다. 빨간딱지는 팔린 그림을 의미한다. 화랑 관계자들과 작가들은 대부분 MZ세대이며 소비자 와 생산자의 역할을 함께 하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MZ세대는 구체적으로 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한 ‘밀레니얼 세대’와 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초반 출생한 ‘Z세대’를 아우르는 말이다. 이 세대는 20여 년간 긴 세월 속의 연령대를 포괄하고 있다. 그리고 2022년 현재, 그들은 10대 후반에서 30대의 청년층으로 휴대폰, 인터넷 등 디지털 환경에 모두가 친숙하다. 이들은 변화에 유연하고 새롭고 이색적인 것을 추구하며, 자신이 좋아하는 것에 쓰는 돈이나 시간을 아끼지 않는 특징이 있다. 투자가치가 있는 그림 또한 쉽게 플렉스 한다. 그리고 그들은 면대 면보다는 인터넷 속에서나 가상현실에서의 의사소통에 더 능숙하며 텍스트를 활용한 정보 전달을 선호한다. 3년간 진행되고 있는 코로나 팬데믹의 환경 변화로 랜선 문화를 부추기는 테크놀로지가 더욱 가속화되며 이 세대들은 멀고도 가까운 그대들이 된다.

이들은 플랫폼에서의 ‘재미’와 ‘간편함’을 추구하는 세대로 금융산업의 판 또한 뒤흔들고 있다. MZ들은 아직 자산과 소득이 적지만 과감한 레버리지(대출)로 소비와 투자에 적극적이다. ‘영끌(영혼을 끌어모은) 대출’로 주식과 암호화폐 상승장을 주도하기도 한다. MZ세대가 주로 이용하는 카카오뱅크, 토스,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와 같은 금융 플랫폼업체 3~4개가 데카콘기업(기업가치 100억 달러 이상 비상장사)으로 성장했다. 2021년 6월 말에는 카카오페이와 네이버페이(네이버파이낸셜)의 가치도 10조원을 넘어섰다는 평가다. 이번 부산아트페어 행



사 중, 유난히 눈에 띄는 것은 NFT를 활용한 그림 판매였다. NFT는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저장되는 데이터 단위를 나타내며 오픈씨(OpenSea)라는 NFT 마켓 플레이스(가상 화랑)에서 그림을 사고 팔며 화폐의 단위는 가상화폐이다. 이 상황은 MZ세대가 아닌 저자로서도 귀신 씌나락 까먹는 소리로 들린다.

인류는 오랜 기간 과학과 예술의 꾸준한 변화와 함께 진화해 왔다. A.D 2022년은 기원후, 즉 그리스도 예수의 탄생을 기준으로 2021년이 지난 시간이며 세상의 모든 나라가 A.D를 사용하고 있다. 기원후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15세기 이탈리아에서 일어난 르네상스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시대는 과학자이면서 미술가인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과학자인 갈릴레오 갈릴레이 등 신의 실수(?)로 너무 많은 천재의 DNA들이 동시대 피렌체라는 작은 도시에 뿌려졌다. 덕분에 미술, 음악, 문학, 과학, 정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헤아릴 수 없는 인간을 위한 업적들이 쏟아졌다. 르네상스 이전에는 오랜 시간 종교전쟁인 십자군 전쟁이 400여 년간 지속되며 인간의 삶이 최고조로 황폐화되는, 인류의 가장 긴 암흑시대를 지칭하는 중세시대가 있었다. 신의 존엄성은 떨어지며 신에 대한 인간의 믿음은 불신으로 가득 차 새로운 전환점이 필요한 시기였다. 이에 르네상스는 기원전(B.C) 그리스와 로마시대 황금기의 부활이며 즉, 인간의 모습을 신의 모습으로 묘사하며 인간의 존엄성과 위상이 다시금 최고조로 높아지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그 이후, 또 다른 인류를 위한 큰 변화는 20세기 초의 급진적인 예술과 과학의 발전이 있었던 아방가르드 시대라고 할 수 있다. 아방가르드는 20세기 초 프랑스와 독일, 스위스, 이탈리아, 미국 등에서 일어난 예술운동으로, 기존의 예술에 대한 인식과 가치를 부정하고 새로운 예술의 개념을 추구하였다. 아방가르드는 전위예술이라고 하며 전위(前衛)라는 용어는 프랑스어 ‘아방가르드(avant-garde)’를 번역한 것이다. 그리고 군사용어로, 전쟁에서 본대에 앞서 선두로 나가는 움직임과 위치를 파악하는 척후병을 뜻하기도 한다. 예술에서 아방가르드라는 용어는 앞으로 전개될 새로운 예술

을 탐색하고 이제까지의 예술 개념을 일변시킬 수 있는 혁명적인 예술 경향 또는 그 운동을 뜻한다. 조금이라도 지루하거나 심심한 것을 보면 참지 못하고 늘 새롭고 자극적인 것을 지향하는 인류는 총체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아방가르드를 탄생시켰다.

기원후(A.D)의 시대는 예술이 종교적인 후원과 그에 예속되어 있었으며 이에 종교적 관점에서 예술이 성립되는 기준에 따라 발전하였다. 20세기 초에는 종교 시대가 막을 내리면서 예술은 부르주아의 전유물이 되었고 장식적이고 충실한 현상의 재현과 묘사적인 테크닉에 따라 예술의 가치를 평가했다. 하지만 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사진이 등장하고, 녹음이라는 획기적인 기술이 당시 예술가에게는 충격적인 변화로 받아들여지며 예술에 대한 인식에도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아카데미한 예술에 저항하는 새로운 경향의 예술이 등장하기 시작했고 종교나 부르주아의 후원을 거부하거나 부정하는 예술가 개인의 개성이 독특하게 표현된 예술품들이 새롭게 인지되기 시작했다. 기존의 예술적 기준을 부정하고 속박으로부터 벗어나는 예술적 경향을 띄게 되었다. 르네상스와 아방가르드는 인류의 평범한 시간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는 가장 큰 이벤트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 기원후 2022년, 코로나 팬데믹이 한참인 요즘은 어떻게 묘사될 수 있을까?. 그것은 아마도 MZ 제네레이션의 중심이 된 세상이 아닐까? 현 인류의 중심은 MZ세대라 할 수 있으며 르네상스와 아방가르드와는 다른 인류의 역설적 행동의 결과로 받아들여지는데, 다음 세대는 어떤 이름과 상징성을 내포하고 있을지 심히 궁금하다. TV의 본방송보다도 유튜브를 시청하고, 친하지 않았던 친구와 가상현실 속에서는 쉽게 롤 게임을 하고,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을 끼고 메타버스를 드나들며 타인과 소통하는 젊은 층을 이해하려 하지만 끈대의 한계인지 공허함과 더불어 큰 벽을 마주하는 이 기분은 뭘까? 오늘도 소파에 앉아 TV 리모컨으로 본방송 뉴스 채널을 옮겨 다니고 있는 세대들은 아마 같은 기분일 거라고 단정 지어 본다. 지구는 오늘도 MZ 세대를 중심으로 돌고 있는 것이 틀림없다.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UNIVERSAL BALLET

돈키호테

Don Quixote

스페인의 정열이 살아있는 유쾌 통쾌한 희극발레 '돈키호테'가 부산을 찾는다. 특히 발레 '돈키호테'는 발레 입문자부터 매니아까지 두루 만족시킬 수 있는 취향 저격 발레로,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다.

스페인의 정열이 살아있는 희극발레

발레 '돈키호테'는 스페인을 대표하는 극작가 세르반테스의 소설 '돈키호테 데 라만차'를 바탕으로 사랑과 우정, 모험과 판타지까지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담은, 고전발레 가운데서도 가장 유쾌한 발레로 꼽힌다. 원작인 소설은 1605년 에스파냐에서 유행하던 기사이야기를 패러디한 작품으로, 스페인의 영웅한 기사 돈키호테와 그의 시종 산초판자의 여행담을 담고 있다. 반면 발레 '돈키호테'는 원작과 달리 가난하지만, 재치 있는 젊은 이발사 바질과 매력 넘치는 선술집 주인의 딸 키트리 유쾌한 사랑 이야기가 중심이며, 원작의 주인공인 돈키호테와 산초는 이들의 사랑을 이뤄주는 조력자 역할을 한다.

발레 '돈키호테'는 19세기 발레 음악의 거장 루드비히 밍쿠스(Ludwig Minkus)의 음악과 고전발레의 아버지로 불리는 마리우스 피티파(Marius Petipa)의 안무가 더해진 작품으로, 지난 1896년 초연무대



에서 큰 성공을 거두었다, 우리나라에는 1997년 유니버설발레단이 프티파 안무에 뿌리를 둔 알렉산드르 고르스키의 개정 안무 버전으로 처음 선보여 호평받았으며, 그 해 무용평론가들이 뽑은 1997년 최고의 무용작품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이후 유니버설발레단의 '돈키호테'는 국내뿐 아니라 영국, 독일 등 유럽 순회공연을 통해 현지에서도 많은 박수를 받았다.

관객을 사로잡는 화려한 테크닉의 향연

발레 '돈키호테'는 지중해의 낭만과 스페인의 정취가 녹아든 무대와 의상, 유머 넘치는 캐릭터들이 벌이는 좌충우돌 해프닝, 그리고 그 안에서 펼쳐지는 스페인풍의 화려하고 테크닉 넘치는 춤들이 시종일관 관객들을 사로잡는다. 특히 주역 무용수들의 앙상블부터 군무까지 고전발레의 모든 기교를 응축한 정교하고도 화려한 춤들의 향연에 남성미 넘치는 투우사의 춤과 플라멩코, 세기디야, 판당고, 집시무용 등 이국적인 스페인 민속춤을 한 무대에서 만날 수 있다.

'돈키호테'를 대표하는 최고의 춤은 3막 그랑파드되(Grand

Pas De Deux)이다. 주인공 키트리와 바질이 결혼식 장면에서 선보이는 이 춤은 남녀 무용수 모두에게 고난도의 기교를 요하며, 32번의 회전(Fouette)과 끊임없이 이어지는 점프 동작이 특히 인상적이다. 또한 돈키호테가 꿈속의 여인 돌시네아를 만나는 환상적인 장면에서는 사랑의 큐피드와 숲의 여왕이 아름답고 우아한 클래식 발레의 진면목을 보여준다. 이밖에도 정열적인 투우사의 춤과 이국적 매력이 넘치는 판당고와 집시춤은 유니버설발레단의 '돈키호테'가 자랑하는 최고의 명장면이다.

한국을 세계 발레의 메카로 이끌다

1984년 창단한 한국 최초의 민간 직업발레단인 유니버설발레단은 그동안 세계 정상의 발레단으로, 한국을 세계 발레의 메카로 만들기 위해 꾸준한 노력을 펼쳐왔다. 유니버설발레단은 화려하고 웅장한 고전발레 레퍼토리뿐 아니라 한스 반 마넨, 지리 킬리안, 윌리엄 포사이드, 하인츠 슈피얼리, 오하드 나하린, 나초 두아토,



유니버설발레단

돈키호테 Don Quixote

5월 13일 (금) 오후 7:30 / 14일 (토) 오후 3:0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V 80,000원 R 60,000원 S 40,000원

(48개월 이상 관람,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ARS 1번)

66

매력 넘치는 키트리와
재치있는 이발사 바질의
좌충우돌 유쾌한 사랑이야기

시종일관 관객을 압도하는
화려한 테크닉의 향연에
쏟아지는 찬사와 환호

99

크리스토퍼 윌슨 등 모던발레 안무가들과의 교류로 레퍼토리를 넓히고 있다. 유럽의 안무가 존 크랑코의 드라마 발레 '오네긴'에 이어 최근 케네스 맥 일란의 '로미오와 줄리엣'을 한국발레단으로서는 최초로 무대에 올려 주목 받았다. 특히 한국 고유의 전통을 바탕으로 한 창작발레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면서 1986년 한국 창작발레 최초의 작품인 '심청'에 이어 '춘향', '발레뮤지컬 심청'을 제작하여 세계무대에 선보이고 있다.

지난 1998년 한국발레단으로서는 최초로 해외투어를 시작한 유니버설발레단은 2001년부터는 월드투어를 진행하면서 지금까지 9개국 11개 도시에 공연을 가진 바 있다. 지난 2001년 미국 3대 오페라극장인 뉴욕링컨센터, 워싱턴 케네디센터, LA뮤직센터에서 가진 공연은 뉴욕타임즈와 LA타임즈의 극찬을 이끈 기념비적인 공연으로 호평받은 바 있다. 특히 월드투어의 주요 레퍼토리인 '심청'은 발레의 본고장 모스크바와 파리에 초청되면서 전통 발레 강국에 한국발레 역수출이라는 큰 성과를 내기도 했다.





UNIVERSAL BALLET

도키호테

Don Quixote

2022. **5.13**(금) 19:30, **14**(토) 15:0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주최 | 부산문화회관  국제신문 출연 | 유니버설발레단 티켓 | R석 8만원, S석 6만원, A석 4만원
문의 및 예매 | www.bscc.or.kr / 051-607-6000(ARS 1번) 48개월 이상 입장가능

화려한 꽃무늬로 치장된 여성

허나영 한국연구재단 연구교수

최근 세계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드라마 ‘파친코’에서는 일제강점기 시기 일본으로 건너가게 된 ‘선자’라는 여성이 겪는 사회적 격동을 개인적인 시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 드라마에서는 일본에 거주하는 한국인을 의미하는 ‘자이니치’의 문제를 중요하게 드러내고 있지만, 실상 그 이면에는 사회의 사각지대에서 벌어지는 여러 차별들을 다루고 있다. 그리고 그중에는 여성의 문제도 있다.

같은 일본인 간에도 여성은 남성보다 감내해야 하는 것이 많고, 불안정한 식민지 국가였던 조선의 여성들은 자신의 몸을 지키는 것조차 스스로 해내기 힘들었다. 그래서 선자의 어머니는 자신의 딸에게 “여자는…”으로 시작하는 몸가짐에 대해 말한다. 흰옷을 입으면 안 되고, 혼자 다니지 말며, 학교도 가지 말라고 말이다. 자신보다도 딸을 더 사랑했던 엄마이지만, 당시 사회에서 여성이 ‘안전하게 살려면’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많았다. 이렇게 여성이기에 가져야 하는 몸가짐은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는 ‘안전망’인 동시에, 한 개인에게는 ‘굴레’였다. 이렇듯 ‘여성을 위해서’라는 명목으로 강요된 굴레들은 ‘파친코’ 속 드라마 시대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하며 19세기 세계적으로 변형했던 영국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빅토리아 시대의 여성 이미지

인테리어 잡지에서 섬세하고 화려한 꽃무늬로 대표되는 빅토리아 스타일은, 영국이 세계 각국에 식민지를 만들고 교역을 하면서 부강해졌던 빅토리아 시대에 유행하던 양식이다. 당시 빅토리아 여왕은 인도의 여황제를 겸했고 이러한 영국의 세계적인 영향력은 막강했다. 비록 제국주의 방식으로 쌓은 부였지만, 빅토리아 시대의 영국은 더 없는 경제적인 부흥을 하고 있었고 영국인들은 미래가 더 밝아질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다.

이 시대의 아이콘이었던 빅토리아 여왕은 대영제국을 이끈 지도자이자 9명의 자녀를 둔 어머니이며 남편과의 사별 후 계속 검은 상복을 입은 지고지순한 여성이기도 했다. 이러한 이미지는 공식적인 가족 초상화^[도판 11]나 즉위 60주년을 기념해서 찍은 사진



1 프란츠 윈터할터, <1846년의 빅토리아 여왕의 가족>, 1846년, 캔버스에 유채, 250.5×317.3cm, 영국 로열 컬렉션 소장
 2 W. & D. 도니, <즉위 60주년의 빅토리아 여왕>, 1893년 촬영, 1897년 재사용

[도판 2]에서 잘 드러난다. 단란한 가족 속에서 빅토리아 여왕은 품위를 잃지 않으면서도 남편과 동등한 자리에 앉아있고 아이들을 자애롭게 돌보는 아름다운 모습이다. 그리고 남편의 사망 후 미망인으로서 검은 상복을 입고 있는 여왕의 모습에서는 권위가 느껴진다.

빅토리아 여왕은 영국을 세계적인 강국으로 만들면서도, 당시 전형적인 가정적 여성상을 함께 갖고 있었다. 당시 여왕의 일기가 출판되면서 베스트셀러가 되었는데, 일기 속에서 여왕은 자신이 남성의 일을 해야하는 것을 괴로워했고 자신은 여성으로서 가정에 충실하고 싶다고 적었다. 이러한 내용은 당시 영국인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빅토리아 여왕은 스스로를 당시의 전형적인 여성상으로 그려내었다. 이는 아카데미의 전형적인 미술을 깨고 영국 미술계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킨 라파엘 전파(The Pre-Raphaelite Brotherhood)의 그림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라파엘 전파 그림 속 여성

‘PRB’이라는 독특한 이니셜을 서명과 함께 그림에 넣은 라파엘 전파는 1848년에 단테 가브리엘 로제티(Dante Gabriel Rossetti, 1828-1882)를 포함한 젊은 화가 7명이 함께 결정한 단체이다. 이후 1853년까지 라파엘 전파 주의(The Pre-Raphaelites)로 여러 예술가와 함께 활동했다. 르네상스 대가 중 한 명인 ‘라파엘로’의 이름을 쓴 이들은 라파엘로를 비롯한 르네상스 예술가들의 예술이 아닌, 라파엘로 이전의 미술 즉 중세의 미술을 더 순진하고 진실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실상은 당시 영국 왕립아카데미의 화가들이 주장하는 르네상스식 표현방식에 대한 거부였다. 다시 말해 진짜로 중세로 돌아가는 과거 지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경직된 아카데미와 기성 작가들을 거부하고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내고자 한 것이었다.

- 3 윌리엄 홀먼 헌트, <휴일의 아이들>, 1864년, 캔버스에 유채, 147×214cm
- 4 윌리엄 홀먼 헌트, <깨어나는 양심>, 1853년, 캔버스에 유채, 76×56cm, 영국 테이트 브리튼 소장



이렇듯 전통을 거부했지만 라파엘 전파 작가들은 당대의 성 역할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는 진지한 고민이 없었다. 당시 사회관념처럼, 여성과 남성은 다르다고 여겼고 그래서 이 여성들은 그저 그려지는 대상일 뿐이었다. 이들의 이론적 배경을 마련했던 러스킨(John Ruskin, 1819-1900) 역시 남자는 행동자이며 창조자, 발견자이지만, 여성은 부드럽게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생각은 그림으로도 표현되었다.

윌리엄 홀먼 헌트(William Holman Hunt, 1827-1910)가 그린 여성이 주인공인 두 그림이 있다. 두 그림이 담고 있는 내용은 전혀 다르지만, 결국은 당시 여성이 가져야 할 덕목을 보여준다. <휴일의 아이들> [도판 3]의 경우 당시에 전형적인 여성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 그림은 주문자인 페어베언(Fairbairn) 부인과 아이들을 모델로 한 것이다. 사업을 하는 남성의 가족인 만큼 페어베언 부인은 단정하고 고급스러운 공단 드레스를 입고, 러시아산 차주전자를 쥐고 있다. 그리고 화창한 날 오후 야외에서 시간을 보내기 위해 나온 가족들을 위한 차와 다과를 고급스러운 그릇에 놓았다. 아이들 역시 좋은 옷차림을 하고 천진하게 놀고 있다. 이렇듯 당시 여성은 결혼해서 아이들을 잘 돌보며 안정적인 가정 생활을 유지해야 했다. 이를 위한 정숙함과 성실, 희생은 기본 덕목이었다.

반면 <깨어나는 양심> [도판 4] 속 배경은 여관이다. 그리고 이 장면 속 남녀는 부부가 아니라, 여관에서 밀회를 즐기는 고객과 창녀이다. 겉으로 보면 모두 도덕적으로 가정을 지키고 있는 듯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모순적인 행태로, 당시에는 흔한 모습이었다. 그래서 그림 속 주인공 창녀는 페어베언 부인에 비하여 남루하고 험령한 옷을 입고 있다. 하지만 이 장면에서 여인은 제복과 같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있는 듯하다. 뒤쪽 거울에 비치듯, 여인의 눈 앞에 펼쳐진 밝은 햇살에 의해 일깨워졌을 것이다. 피아노 위의 악보의 노래인 '고요한 밤에는 자주'의 가사처럼, 지난날들의 행복이 떠오른 여인은 순수했던 어린 시절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더는 이렇게 타락한 삶을 살면 안 된다는 승고한 깨달음을 느낀 순간을 헌트는 그림으로 표현하였다. 헌트가 의도적으로 비교하기 위해 두 그림을 그린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다른 상황인 만큼 각 여성이 처해진 위치와 사회에서 바라보는 시선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름답게 꾸며진 여성의 전형적 이미지

라파엘 전파의 그림 속 여인의 모습이나 빅토리아 여왕의 남편을 영원히 사랑한 미망인의 이미지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 하지만 과연 이러한 모습들이 실제 모두가 행복하다는 현실을 반영하는 것인지, 혹은 누군가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당시 여성은 당연히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야 했고, 가정을 이룬 후에는 정숙한 몸과 마음가짐으로 피곤한 남편을 달래고 아이들을 잘 보살펴야 했다. 이를 이루지 못하면 비정상적인 것으로 비판받고, 사회적 지탄을 받아야 했다. 더욱이 영국에서 여성이 참정권을 갖는 것은 빅토리아 여왕 사후인 1918년이 되어서야 가능해졌다. 능동적이면 안 되는 여성들이 직접 힘을 모아 투쟁을 한 끝에 말이다.

그리고 이러한 전형적 여성의 이미지는 우리에게도 있다. 바로 현모양처(賢母良妻)의 전형인 '신사임당'처럼 말이다. 율곡 이이의 어머니이자 뛰어난 화가이자 시인으로 알려진 신사임당은 현재 오만원권 지폐에 새겨진 유일한 여성이기도 하다. 그리고 얼마 전까지도 자신의 능력이 뛰어났음에도 남편을 내조하여 출사를 하게 돕고자 했고 아들이 조선을 대표하는 학자이자 정승이 되는 데에 물심양면으로 헌신한 여성으로 인식되었다. 하지만 최근 연구에서 신사임당이 살았던 시기의 조선은 친정에 머물러 있는 것이 허용이 되었고, 신사임당 역시 부유했던 강릉의 친정에서 아이들을 낳고 키웠다는 것이 알려졌다. 게다가 남편은 자신보다 똑똑한 부인을 못 견뎠고 아들의 존경을 잃은 아버지이기도 했다. 그렇다면 전형적인 현모양처이기보다는 오히려 뛰어난 한 여인이었는지 아니었을까? 하지만 오만원권의 초상^[도판 5]도, 우리에게 익숙한 신사임당 영정^[도판 6]의 이미지도 자의식이 강한 한 여성이기보다는 현모양처의 겸손한 이미지가 더 강하다.

이렇듯 빅토리아 시대의 여성들도, 조선의 여인도 시대와 나라는 달랐지만, 당시의 사회적 잣대로 평가되고 그 이미지가 남아있다. 더욱이 신사임당 영정은 1986년 표준영정으로 지정이 되었고 최근에 와서야 작가인 김은호의 친일 행적으로 새로운 영정을 삼자는 주장이 나오고는 있지만, 최근까지 현모양처가 올바른 여성의 전형이었다는 사실이 오히려 더 많은 생각을 하게 한다. 그리고 어쩌면 지금의 '선자'도 여전히 여성이 가져야 하는 전형적 이미지가 작동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



5 일랑 이종상, <신사임당 영정>, 2008년, 견본채색, 111X86cm, 한국은행 소장

6 이당 김은호, <신사임당 영정>, 1965년, 견본채색, 85X140cm, 강릉 오죽헌 소장

G. 푸치니의 삶과 푸치니 페스티벌

PUCCINI FESTIVAL

글, 사진_이상훈 아트컨시어지 대표

자국에 잘 알려진 오페라 작곡가를 둔다는 것은 부러운 일이다. 그런데 한 명도 아니고 여러 명이다. 이탈리아의 이야기이다. 그도 그럴 것이 오페라가 태어난 곳이자 전 국토에 크고 작은 도시에 수십여 개의 오페라 극장이 있는 나라이니 부러움이 무색하다.

해마다 여름이면, 아드리아 해안의 아름다운 도시 페사로(Pesaro)에서는 로시니 오페라 축제(Rossini Opera Festival), 베르가모(Bergamo)에서는 도니제티 오페라 축제(Donizetti Opera Festival), 시칠리 섬의 카타니아(Catania)에서는 벨리니 오페라 축제(Bellini Opera Festival)가 열린다. 가을이면 파르마(Parma)와 부세토(Busseto)에서는 베르디 오페라 축제(Verdi Opera Festival)가 열리는데, 이탈리아 북 중부의 론콜레(Roncole)라는 시골마을에서 태어난 베르디는 성장기를 이웃마을 베세토에서 보냈다. 이렇듯 언급된 오페라 축제는 대부분 해당 작곡가들이 태어난 도시나 마을 혹은 인접 지역에서 펼쳐진다.

이번 호는 토레 델 라고(Torre del Lago)에서 해마다 여름이면 펼쳐지는 푸치니 축제(Puccini Festival)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려고 한다. 이탈리아어로 ‘라고(Lago)’는 호수를 일컫는데, 마사치우콜리 호수(Lago de Massaciuccoli)와 티레니아 해 사이에 위치한 토레 델 라고는 루카(Lucca) 지역의 비아레조(Viareggio) 근처에 있



1 제57회 푸치니 축제 중 '라보엠' 무대 2 루카에 위치한 푸치니 생가 3 마사치우콜리 호수 전경

는 작은 마을로 푸치니가 말년을 보낸 곳이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도시 피사(Pisa)와 푸치니가 태어난 곳 루카(Lucca)랑도 가깝다. 매 시즌 7~8월 여름이면 최대 4편의 오페라가 작품 당 3~4회 공연되는데 푸치니가 주요 오페라를 작곡했던 빌라 푸치니(Villa Puccini)와 가까운 곳에 위치한, 야외극장인 콰트로밀라 극장(Quattromila)에서 공연된다.

푸치니는 1858년 투스카니 루카에서 5대에 걸친 음악가 집안에서 태어났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후 루카 두오모(Duomo di Lucca)의 오르가니스트로 활동하였고, 사보이(Savoy)의 여왕 마르제리타 장학금의 수혜로 밀라노로 집을 옮길 수 있었다. 경력의 시작을 알린 출판사 줄리오 리코르디(Giulio Riccodi)를 만나기 전까지는 보헤미안처럼 살기도 했었다. 하지만 1891년 푸치니는 그가 좋아하는 사냥과 음악적 영감을 얻기 위한 이상적인 장소로 토레 델 라고로 거처를 옮기었고, 푸치니 작품 중 뛰어난 많은 명작 오페라들이 이곳에서 만들어졌다. 마농 레스크(1893), 라보엠(1896), 토스카(1900), 나비부인(1904), 제비(1917), 일 트레티코(1918)와 같은 오페라들이다. 1921년 호수 인근에 세워진 발전소로 인해 환경이 오염되자 인근

의 비아레조로 이사하였는데 푸치니의 유작인 투란도트는 이때 작곡을 시작했다. 하지만 1924년 푸치니가 브뤼셀에서 목 수술 후 갑작스럽게 사망하여 투란도트는 미완성으로 남게되었다. 사후 푸치니의 유해는 그가 사랑했던 토레 델 라고에 유족들에 의해 안착되는데, 이렇듯 토레 델 라고는 푸치니의 삶과 음악에 중요한 곳이다.

필자는 2011년 처음으로 푸치니 축제를 찾을 수 있었고, 매년 이 축제를 찾고 있다. 보통 축제 티켓을 구매한 후 다음으로 알아볼 일이 바로 숙소를 구하는 일인데, 토레 델 라고는 작은 마을이어서 인근에서 숙소를 구하는 일은 쉽지 않다. 그래서 대부분의 축제 관람객들은 이탈리아 서부 지중해의 아름다운 해변도시 비아레조에서 호텔을 얻는다. 나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실제로 거리도 10km 떨어져 있어서 차로 10~15분이면 닿을 수 있다. 푸치니가 마지막으로 살았던 곳이다 보니 그가 애용했던 카페도 해안가에 자리잡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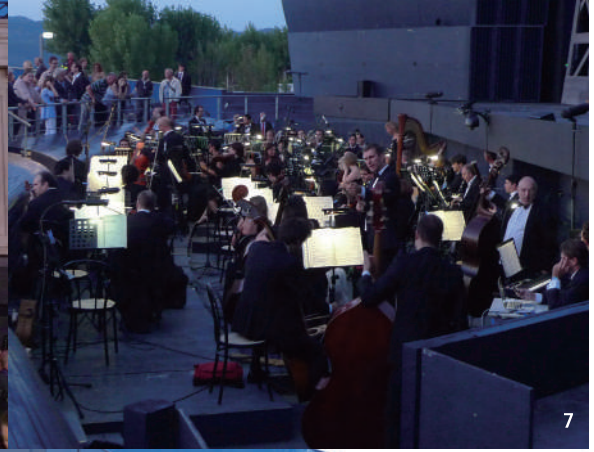
오페라 대본 작가 중 한명인 친구 지오바키노 포르자노(Giovacchino Forzano)의 말에 의하면, 푸치니 축제는 목 수술을 위해 브뤼셀에 있는 병원으로 떠나기 직전의

푸치니가 마사치우콜리 호수에서 사냥을 하던 중 이곳 야외에서 자신의 오페라를 공연하고 싶다는 그의 전언에서 시작되었다. 1930년 8월 푸치니의 제자였던 마스카니와 프로자노는 푸치니 축제의 첫 번째 공연을 제작했는데 포르자노가 감독을 맡고, 마스카니가 직접 지휘한 오페라 라보엠이었다. 당시는 임시극장(Carro di Tespi Lirico)으로 호수 위에 박힌 말뚝 위에 무대를 지었다. 푸치니 축제는 1949년 이전까지는 정치적, 재정적 여건으로 이어오지 못하다가 푸치니 서거 25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다시 열린 오페라 축제에서 '서부의 아가씨'로 다시 재개되었고, 이후 푸치니의 대표적인 오페라들이 매년 이곳 토레 델 라고의 야외무대에 올려진다. 1966년이 되어서야 축제 장소는 호수 항구 북쪽 매립지로 옮겨졌고 비로소 푸치니 축제는 연례 여름행사로 자리매김한다. 1990년 푸치니 축제 재단이 설립된 후, 비아레조의 시 당국은 음악공원(Parco della Musica)을 만들기 위해 25,000 제곱미터의 땅을 구입, 3,200석을 수용할 수 있는 현재의 야외극장(Teatro al Aperto)을 건설했다. 또한 이곳에는 600석 규모의 스튜디오 극장과 리허설 및 워크숍을 할 수 있는 기타시설도 함께 자리하고 있다.

포르자노와 마스카니에 의해 시작된 푸치니 축제가 70주년이 되는 지난 2000년, 제46회 푸치니 축제에서는 나비부인과 토스카를 선보였고, 2004년 시즌에는 플라시도 도밍고가 직접 지휘, 브레시아에서 초연을 했던 나비부인 100주년 기념공연이 이곳에 올려지기도 했다. 2022년 올 해 열리는 제68회 푸치니 축제의 경우는 오페라 나비부인, 투란도트, 토스카 그리고 제비가 무대에 오른다. 축제는 푸치니 축제 재단(La Fondazione Festival Pucciniano)에 의해서 운영되는데 1990년 비아레조 시에서 설립한 비영리 민간법인으로 축제의 조직, 오페라 제작, 청소년 음악홍보의 일을 도맡아 하고 있다.

4 제60회 푸치니 축제 라인업 - '나비부인', '라보엠'의 5 제60회 푸치니 축제 중 오페라 '투란도트' 커튼콜 (2014)





6 제58회 푸치니 축제 '라보엠' 무대 7 오케스트라 피트 8 축제극장으로 향하는 관객들 9 축제극장 Gran Teatro Puccini 10 푸치니 축제 재단

푸치니 축제가 열리는 장소가 야외 무대이다 보니 정규 오페라 극장과 비교해서 무대와 음향의 밀도가 부족한 것은 사실이다. 그래서 여러 해 이 곳 무대에서 만났던 오페라의 완성도는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었다. 그렇다고 베로나(Arena di Verona)나 브레겐츠 오페라 축제(Bregenz Festival) 만큼의 예산 규모가 있는 곳도 아니다. 하지만 아름다운 호수를 배경으로 하는 야외 무대에서 푸치니의 아름다운 오페라와 주옥같은 아리아를 만날 수 있는 것은 이곳 푸치니 축제만의 매력이다.

10



8월 한 여름, 토레 델 라고에서 들었던 투란도트의 '공주는 잠 못 이루고', 라보엠 '그대의 찬 손', 토스카의 '별은 빛나건만'은 여전히 내 기억 속에 남아있다. 시간이 허락한다면 푸치니의 생가가 있는 인접도시 루카도 방문해보자. 아름다운 두오모가 있는 광장과 도시의 골목골목을 누비는 시간은 틀림없이 좋은 추억으로 남을 것이다.



화명동은 참 부럽다. 지역주민들이 힘을 합쳐 공동육아를 한다거나 협동조합을 만든다거나 할 때 잘된 사례를 돌아보면 그곳이 화명동이다. 앞서 소개한 맨발동 무도서관도 화명동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만들고 운영하는 곳이며, 마을학교에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어울려 배움을 이어간다. 그러면서도 배타적이지 않고 누구에게나 열려있으며, 또 그렇게 사람들은 이웃을 만들어간다. 이런 움직임들이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고, 그런 마을이 모여 살기 좋은 세상을 이루는 것이라. 그런 화명동에 또 멋진 공간이 생겼다는 소식을 듣고 부러움에 질투를 담아 찾은 곳 무사이, 그리스어로 '생각을 불러 일으킨다'는 뜻이라고 한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학문과 예술의 여신 뮤즈도 여기서 나온 말이다.

무사이는 영화관이며 또 서점이고, 공연장이기도 하다. 커피와 맥주와 와인을 파는 카페이기도 한데, 전시장이기도 하다. 주민들의 모임방도 있고, 세미나를 열 수도 있다. 뿐만 아니다. 우유팩을 수거하고, 친환경제품을 판매하는 제로웨이스트 상점까지 입점해있다. 이 정도를 수용하려면 멀티플렉스를 표방하는 큰 건물쯤은 있어야 할 듯 한데, 무사이는 화명동 우신아파트 지하상가에서 이 모든걸 해결한다. 넓긴 하다. 총 100평쯤 되는 공간이 딱 쓸만큼만 나뉘어져 있고, 전혀 불편함이 없도록 잘 꾸며져 있다. 지하라고 하면 생각나는 퀴퀴함은 찾아볼 수 없고, 잠깐만 앉았다 고개를 들면 이 곳이 땅밑인지 옥상인지 모를 정도로 쾌적하





다. 바깥에서 바라보이는 모습과는 사뭇 달라서 먼저 놀란다. 놀랄 준비를 충분히 하고 가셔도 좋겠다.

주로 독립영화, 예술영화 등을 상영한다. 시간표에 따라 영화를 볼 수도 있지만, 친구 가족들만 모여서 볼 수 있도록 대관도 가능하다. 서프라이즈한 프로포즈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 평일 3시간 5명 기준 5만원이면 대관이 되고, 15명까지는 모일 수 있으니 가족이나 동호인들이 모여 함께 영상을 보며 이야기를 나누기에 딱 좋다. 12명의 젊은이들이 함께 토론하고 영화도 보면서 결국에는 독립영화 한 편을 만들어내는 청년공간영화제도 진행중이다. 책방에서는 주인공의 추천이 곁들여진 책들이 진열되어 있고, 가능하면 작가를 초대해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우리가 찾아갔을 때는 이내와 규리의 <걷는 섬>이라는 책이 출판되어 특별히 전시되고, 같은 이름의 노래가 흐르고 있었다. 연주회를 열어도 연주자와 관객들이 말을 섞을 수 있도록 판을 깔아준다. 소비되는 문화보다는 생산되는 문화, 수용하는 자아보다는 함께 하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려는 뜻이 보인다.

이 멋진 공간을 운영하는 사람은 누구일까? 그의 심장은 얼마나 멀티플하게 뛰고 있을까? 최용석 대표를 만나본다. “처음 문을 열 때는 제가 틀을 다 짜놓고 소비자들이 그 안에 들어와 이용해주기를 바랐는데,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곧 알게 됐다. 공간을 열어놓고 오시는 분들이 자유롭게 모임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드린다.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준비한 프로그램에 주민들의 기획까지 없어서 다채로운 공간이 된다. 각 분야의 매니저님들과 주민들이 늘 함

께 고민해주시니까, 살아 숨쉬는 무사이가 될 수 있는 것 같다.”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닐 것 같긴 했다. 입구에서 골똘히 모니터를 응시하던 젊은이들이 매니저님들이었구나. 지하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바깥에선 알지 못한다. 그것이 창(窓)의 중요함 일수도 있지만, 은밀함 속의 긴밀한 재미도 있지 않을까 싶다.

2년 넘도록 우리를 괴롭힌 코로나의 기세도 이제 조금씩 꺾여가고 있다. 몇 명까지 모일 수 있다가나 몇 시까지는 헤어지라는 어머니의 걱정같은 거리두기 지침도 이제는 사라졌다. 그러나 코로나는 우리의 가치관을 흔들어 놓았고, 그동안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보는 계기를 만들었다. 사람 많은 곳에 가지마라던 어른들의 잔소리는 예나 지금이나 딱 유효한 건강지침이었으리라. 다시 일상으로 조심스레 돌아가지만 이제 우리는 불특정다수가 조밀하게 모이는 공간이 예전처럼 아무렇지도 않기는 힘들 것 같다. 글로벌도 좋지만 동네에 답이 있다는 주장에도 힘이 실리는 건 코로나가 가져다 준 변화일지도 모른다. 무사이도 그 중심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다.

■ 운영시간 / 오전 10:30~오후 9:00(매주 월요일 휴무)

■ 문의 / 무사이 362-7004, 010-6556-8061

www.instagram.com/mousai.official





부산시립극단 특별공연 가족뮤지컬

미운오리새끼

2022.5.13.금 ~ 6.4.토 / 일요일 공연 없음

평일 단체공연 공휴일·토요일 11:00 14:00

부산문화회관 사랑채극장



예매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 051-607-6000 ARS 1번 티켓 전석 1만원 관람연령 전연령 관람가(미취학 아동 부모 동반)

원작 안데르센 | 각색 신서영 | 작사/연출 김지용 | 작곡 진소영 | 음악감독 김성복 | 반주 이현주·이소진 | 안무/움직임연출 홍충민 | 무대디자인 황지선 | 무대제작 진승휘
조명디자인 조세현 | 음향감독 주호일 | 음향오퍼레이터 이호원 | 의상디자인 김현진 | 분장디자인 이지원 | 영상감독 이현우 | 무대감독 정순지 | 기획/홍보 박지현·권미정·고지연
출연배우 이현주·황창가·이혁우·김은희·염지선·김은옥·서보기·오희경·채민수·이태성·이수연·우성주·박미서·김희수·윤영식·박인화·안예은

주최 (재)부산문화회관 주관 부산시립예술단 제작 부산시립극단



INVITATION TO THE ARTS



가람아트홀	621-6669
가온아트홀	1600-1602
경성대학교 콘서트홀	663-5361
공간소극장	611-8518
국립부산국악원	811-0114
글로벌아트홀	505-5995
금정문화회관	519-5661~2
동래문화회관	550-6611
대동대학교 D'ART홀	510-4838, 010-9429-7014
드림씨어터	1833-3755
무지크바움	070-7692-0747
부산메트로홀	1600-0316
부산광역시 학생교육문화회관	605-5114
부산광역시 학생예술문화회관	366-8114
부산문화회관	607-6000
부산북구문화예술회관	309-4081
부산민주공원	790-7400
부산시민회관	630-5200
부산예술회관	612-1372
성원아트홀	1899-5435
소극장 6번출구	010-5232-1350
소민아트센터	991-2200
소향씨어터 신한카드홀	1644-2963
수아트홀	744-1415
신명천지소극장	515-7314
스페이스 음	557-3369
액터스소극장	611-6616
에저또소극장	852-9161
열린아트홀	527-0123
영도문화예술회관	419-5561
영화의전당	780-6000
용천지랄소극장	625-0767
울속도문화회관	220-5812
일터소극장	635-5370
차성아트홀	728-0993
청춘나비아트홀	070-8241-2560
초콜릿팩토리	621-4005
해운대문화회관	749-7651
효로민락소극장	623-6232
BEXCO 오디토리움	740-7369
BNK부산은행조은극장	1588-2757
BOF아트홀	0507-1330-3001
KBS부산홀	620-7181
SM아트홀	1600-1602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XXL 레오타드 안나수이 손거울

5. 19^(목) ~ 20^(금)

목요일 오후 2:00 금요일 오후 2:00, 7:3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R 30,000원 S 20,000원

※ 중학생 이상 관람.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연출 전인철

작가 박찬규

출연 안병식, 오해영, 윤미경, 김민하,
유동훈, 조어진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ARS 1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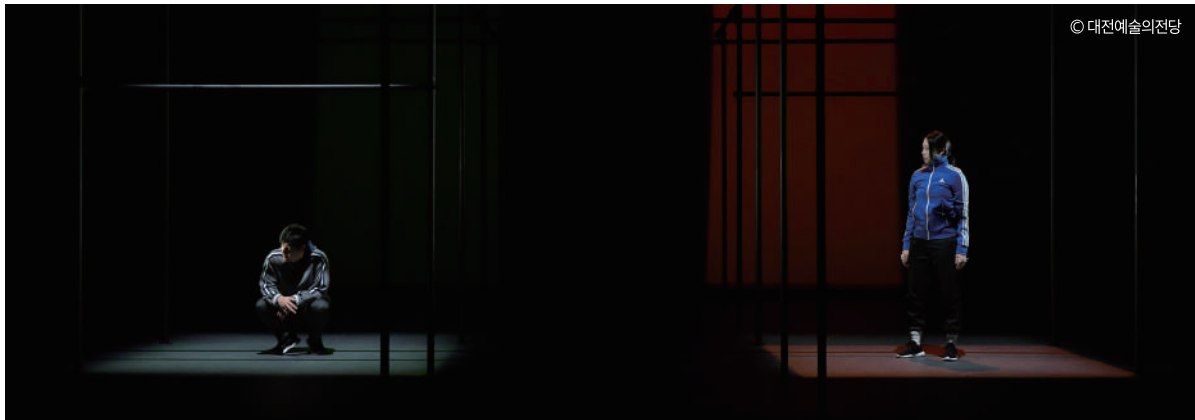
과도한 생존경쟁 끝자락에서 마주하는 우정과 무한경쟁 사회에 던지는 따뜻한 위로가 담긴 연극 'XXL레오타드 안나수이 손거울'이 5월 '청소년의 달'을 맞아 부산을 찾는다.

'XXL레오타드 안나수이 손거울'은 '옆에 서다', '철거방 추적작전', '창신동' 등 발표한 작품마다 호평받은 박찬규 작가가 극본을 쓰고 극단 돌파구의 전인철 대표가 연출을 맡은 작품으로, 서로 다른 환경과 불공정한 경쟁에서도 불평없이 어른들을 따라야하는 청소년들의 현실적 고민을 깊이 있게 다룬 작품이다. 지난 2015년 청소년 연극 전문 축제인 'ASAC B성년 페스티벌'에서 초연된 후 서울과 안산, 대전 등 지역을 오가며 꾸준히 무대에 오르면서 '시대를 들여다보는 또 하나의 창(경향신문)', '고단한 청소년들을 위한 위로 연극(민중의 소리)', '이 시대 청소년들의 현실을 들여다보다(뉴스컬처)' 등 평론가와 관객들로부터 많은 호평을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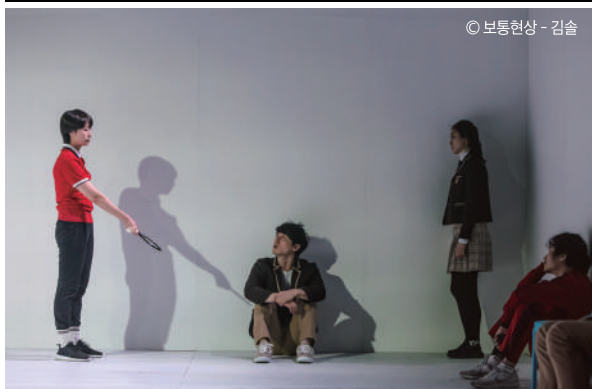
'XXL레오타드 안나수이 손거울'은 여성용 레오타드를 입는 게 좋은 준호와 '왕따' 희주가 체육 수행평가를 함께 준비하며 벌어지는 이야기이다. 여성용 레오타드를 착용하고 또 사진을 찍는 행위를 통해 입시경쟁으로 인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심적 안정을 찾는 준호는 자신이 속해 있는 과외모임 엄마들의 과도한 통제와 친구들의 선입견이 두려워 자신의 취향을 비밀로 한다. 그러던 어느 날 레오타드를 입고 찍은 사진이 얼굴 부분만 모자이크된 채로 학교 홈페이지에 올라오고 준호는 그것을 올린 사람이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하는 희주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체육수행평가에서 짝을 구하지 못했던



© 대전예술의전당



© 대전예술의전당



© 보통현상 - 김솔



© 보통현상 - 김솔

희주가 준호의 사진을 빌미로 과제를 함께 준비하자고 제안하고 결국 둘은 짝을 이루어 과제인 2인 1조 댄스를 준비하게 된다. 준호와 희주의 평소와 다른 모습에 주변친구들은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는데, 과연 준호와 희주는 이 험난한 과정을 뚫어내고 무사히 체육수행평가를 마칠 수 있을까.

‘XXL레오타드 안나수이 손거울’은 청소년들의 일상과 고민을 다루며 관객들과 공감대를 형성한다. 또한 동시에 개인의 취향과 취미는 존중받아야 한다고 응원의 목소리를 낸다. 꽤 오랜 기간 우리 사회는 독특한 개인의 취향을 ‘틀린 것’, ‘잘못된 것’이라 교육시켜 왔고 그들을 배제시켜왔다. ‘XXL레오타드 안나수이 손거울’은 그 선입견에 저항하며, 조금 독특한 개인의 취미, 취향도 존중받아야 하며, 그것은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것일 뿐이라고 이야기해준다.

특히 ‘XXL 레오타드 안나수이 손거울’은 그동안 동시대와 호흡하며 변화를 거듭했다. 초연 당시에는 부모의 욕망이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초점을 맞추었다면 2022년 무대에서는 변화된 한국사회와 청소년들에게 집중한다. 작품 속 청소년, 젠더, 소수자, 인권 등에 대해 새롭게 질문을 던지며 동시대 사회의 문제의식을 담아내면서 2022년의 ‘XXL 레오타드 안나수이 손거울’은 새로운 모습으로 관객들과 만난다.



경계 긋기와 구별 짓기

혐오와 차별은 어떻게 시작되는가

이진아 연극평론가
숙명여자대학교 한국어문학부 교수

<XXL 레오타드 안나수이 손거울>은 극단 돌파구의 대표작이자 극단의 성장을 보여주는 작품이다. 청소년 연극 제작을 위한 ‘ASAC B성년 페스티벌’(재단법인 안산문화재단 주최) 참가작으로 2015년 가을 안산문화예술의전당 별무리극장에서 초연한 이래, 작품은 극단 연보에서 가장 앞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작품이 되었다. 7년간 공연을 거듭하면서 초연의 캐스팅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아니며 또 그에 큰 의미를 둘 필요도 없다고 하겠지만, 초연에서 희주 역을 맡았던 윤미경 배우가 계속 희주인 것을 지켜보는 것은 관객의 입장에서 한편으론 흥미롭고 한편으론 왠지 감개무량하다. 이것이 흥미로운 이유는 캐릭터를 바라보는 배우의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즐거움 때문이다. 희주에 대한 배우 해석이 크게 변화했기 때문이라기보다 7년간 서로 다른 ‘준호들’과 ‘민지들’을 만나면서 희주의 반응이 달라졌다고나 할까.

물론 작품의 해석도 조금씩 변화되었다. 정확히는 문제의식이 더 깊고 예민해졌다.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안전한 울타리 안’에 머무르면서 부모가 제시하는 미래와 가치관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중산층 아이들의 문제에 초점이 맞추어졌던 초연은, 공연을 거듭하면서 작품 속 인물들 간의 관계를 가로지르는 계급, 계층, 젠더 문제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고민을 드러냈다. 이에 초연에서는 조금 배경으로 물러서 있던 청소년 노동 문제, 청소년 퀴어 문제가 제 무게감을 갖췄다.

이번 2022년 공연에서는 무대 미술과 공간 구성도 달라졌다. 배우는 제 역할이 끝나도 퇴장하지 않는다. 무대에 남아 다른 인물의 장면에 반응하며, 각 장면의 의미에 때로는 감정을, 때로는 논평을 더한다. 사방이 막힌 흰색의 큐브형 공간에는 장면에 필요한 대소도구들이 처음부터 모두 배열되어 있다. 그 공간을 배우가 종횡하고 연기함에 따라 장소가 규정되고 의미가 발생한다. 장면 전환도 암전도 이 작품에는 없다.

배제와 차별을 승인하는 사회

등장인물 대부분이 청소년이지만, 작품은 이들을 미숙한 이들로, 가르침이 필요한 대상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들은 누구나가 그렇듯 결핍과 약점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며, 보통의 어른들도 그렇듯 생존하기 위하여 남의 약점을 이용하거나 후회할 일을 하는 인물들이다. 종막에 이르러 누구는 자신이 한 일을 정면으로 대면하며 책임지고 사과하려 하고, 누구는 외면하거나



회피한다. 작품에 등장하는 청소년 인물들은 부모를 비롯한 주변 어른들의 영향을 받기는 하지만, 이미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관계하고 행동하는 제 세계를 가진 독립된 존재들이다. 작품에 등장하는 유일한 어른인 체육 교사 영길은 아이들 사이를 오가며 나름으로 분투하지만,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은 바로 그 때문이다. 어른이라고 삶이 쉽지도 않으며, 조금 더 살았다고 답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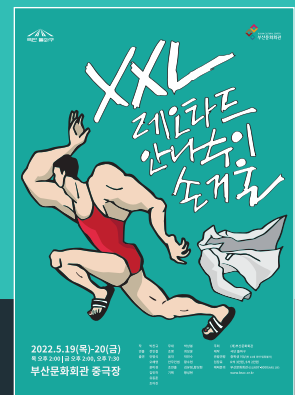
준호가 친구들에게 주먹을 휘두르는 사건이 벌어진 후, 영길은 말한다. “어느 누구도 어떤 이유에서건 상대를 때릴 권한은 없어. 맞아야 할 이유도 없고. 그게 사기꾼이 됐건 변태가 됐건 폭력은 안 되는 거야. 누구는 잘못했으니깐, 누구는 혐오스러우니깐. 이렇게 조금씩 예외를 만들면 나중엔 자기랑 생각이 다르다고, 아니면 특이하다는 이유로 주먹이랑 발이 나가게 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자 준호가 항변한다. “당하는 사람은 어떡해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막무가내로 이상한 놈 만들고, 병신 만들고, 왕따 만들면요? 그럼, 어떡해요? 들어주지도 않고 들어줄 생각도 안 하면 어떻게 하나구요. 어떡하냐구요!” 울음이 터진 준호에게 영길은 당황해 대꾸하지 못한다. 공연을 보는 어른들도 대꾸하지 못한다. 혐오와 배제와 낙인찍기가 난무하는 우리 사회 앞에서 주먹을 휘두르거나 울음을 터뜨리는 것 외에 별다른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은 준호만이 아닌 것이다.

학교 밖 우리 사회가 그렇듯 학교 안 아이들의 사회도 서로가 서로를 견제하고 경쟁하는 속에서 유지된다. 동질성에 대한 믿음과 유대가 강하고 중요시되는 만큼 이질성에 대한 거부와 차별도 더 강해진다. ‘우리’에 대한 단속은 계속 ‘우리 아님’과의 경계를 긋고, 별나고 이질적인 것들을 배제하고 밖으로 밀어내 버린다. 이것은 그대로 내부의 규율이 된다. 누구도 이를 거부하거나 벗어날 수 없다. ‘밖으로 내쳐지지 않으려면’이라는 말을 읊어대는 억압이 되며 나아가 약자를 위협하는 협박이 된다. 아차 하는 순간, 버둥거리며 감춘 약점이 기어이 드러나는 순간, 서로가 서로를 가차 없이 밀어낸다. 밀어내지 않으면 내가 내쳐질 것을 알기 때문이다.

‘다름’을 경험한다는 것에 대하여

단정한 교복을 입고 아파트 단지와 학교, 학원을 오가는 아이들 사이에서 햄버거 가게 로고가 찍힌 티셔츠와 모자를 쓴 희주는 눈에 띈다. 근육질의 몸에 ‘남자다운’ 행동을 하는 준호의 교복 안 여성용 레오타드도 별종의 신호다. 이들은 ‘보통’에서 벗어났다. 이들은 ‘귀여’하다. 같은 아파트 단지, 같은 교복, 같은 학원으로 유대감을 얻는 아이들 속에서 다르다는 것은 배제해도 된다는, 차별해도 된다는 신호가 된다. 우리 사회에서는 언제부턴가 다른 것이 위험한 것, 혐오해도 되는 것이란 신호가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박찬규 작가는 희곡집에서 이 작품이 한 고등학생과의 만남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밝힌 바 있다. 수년 전 어느 아파트 단지 내 독서실에서 일하면서 고1 남자아이와 친해지게 되었는데, 그 아이에게 맛있는 떡볶이집을 소개해 주느라 단지로부터 도보로 15분 정도 떨어진 동네를 함께 가게 된 것이다. 다가구 주택이 밀집한 그 동네를 아이는 낯설어하였는데, 그는 그곳을 처음 와 보았을 뿐 아니라 이 동네 아이들과는 되도록 어울리지 말라고 그의 부모님이 일러두었다는 말을 작가에게 해 주었다. 아이의 학교 친구들은 모두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고 있었다. 단지를 벗어나지 못하는 세계, 단지 밖을 경험할 수 없는 삶, 작가는 이를 “다름을 경험할 수 없는 환경”이라고 지칭했다. 사회의 시선과 편견이 만들어 놓은 구획된 세계 안에서만 사는 아이들, 그 제한된 세계 안에서 다시 위계와 규칙을 만들어나가는 아이들, 이는 ‘다름’을 위협의 신호로 여기며 거부하고 나아가 배제하고 혐오하는 우리 사회의 일면이기도 하다. <XXL 레오타드 만나줘 손거울>은 그런 우리의 모습을 들여다보게 한다.



5월 가정의 달에 만나는 특별한 무대

어린이극에서 가족음악극, 발레까지
다채로운 프로그램



코로나19의 확산방지를 위해 지난 2년 넘게 시행되었던 사회적 거리두기가 최근 들어 전면 해제되면서 다시금 일상을 즐기려는 시민들의 발걸음도 공연장으로 향하고 있다. 특히 5월은 가정의 달로, 모처럼 가족과 함께 공연장 나들이를 계획하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재)부산문화회관이 온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우선 어린이 전용극장인 부산문화회관 사랑채극장에서는 5월, 그림자극으로 만나는 특별한 음악여행 '비발디의 사계'와 부산시립극단의 가족뮤지컬 '미운오리새끼' 등 두 작품이 무대에 오른다. 사랑채극장은 지난 2017년 기존의 소극장을 어린이 전용극장으로 새롭게 탈바꿈시킨 공간으로, 그동안 어린이와 가족 단위의 관람객을 위한 다양한 콘텐츠와 프로그램으로 어린이 관객과 만나왔다. 팬데믹 사태로 한동안 운영이 중단되었으나 올해부터 다시 어린이의 상상력과 감수성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작품으로 관객과 만나고 있다.



그림자극으로 만나는 특별한 음악여행

극단 영이 제작한 '비발디의 사계'는 트리나 폴리스의 그림우화 '꽃들에게 희망을'을 원작으로,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클래식 음악인 비발디의 '사계'와 화려한 색감의 그림자극이 함께 어우러지는 특별한 무대이다. 원작인 '꽃들에게 희망을'은 지난 1972년 출간된 후 전 세계적으로 수백만 부가 팔린 베스트셀러로, 한 마리의 작은 애벌레가 세상에 나와 초라한 자신의 존재를 깨닫고 어떻게 살아야하는지에 대한 물음을 스스로에게 던지며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 관객들은 애벌레의 여정을 통한 사계절의 변화를 비발디의 '사계'를 통해 귀로 듣고 화려한 색감의 그림자극을 통해 눈으로 직접 확인한다. 특히 호기심을 자극하는 그림자극과 클래식 음악이 함께 어우러지면서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클래식 음악을 온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다. 공연은 5월 6일까지 계속된다.



백조면서 오리인 미운오리새끼

‘비발디의 사계’에 이어 5월 13일부터는 안데르센 동화 중에서도 가장 널리 알려진 ‘미운오리새끼’를 가족뮤지컬로 만날 수 있다. 지난해 9월, 부산시립극단 특별공연으로 무대에 올려져 많은 사랑을 받았던 작품으로, 원작이 가진 여러 다양한 해석 중에서도 전통적 해석 중 하나인 ‘자아찾기’를 현대적 시각으로 풀어낸다.

백조 가족은 하늘을 나는 연습 중이다. 그런 백조 가족을 노리는 사냥꾼, 결국 막내 백조 때문에 아빠 백조는 사냥꾼의 총에 맞아 죽는다. 아빠의 죽음이 자기 때문이라고 자책하는 막내는 도망치다 정신을 잃는다. 기억을 잃은 막내는 오리 무리와 함께 살고 무리들로부터 항상 괴롭힘을 당한다. 그러던 중 오리 마을이 사냥꾼으로부터 공격당하고 그 와중에 막내도 사냥꾼의 총에 날개를 맞아 정신을 잃는다. 깨어난 막내는 잃었던 기억을 되찾고 백조 가족과 재회한다. 날개를 다친 막내는 날 수가 없지만, 백조이자 오리로 후수에 남는다.

이번 작품에서 주인공인 ‘미운오리새끼’는 ‘미운오리’에서 환골탈태하여 ‘백조’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백조이면서 오리’인 존재로 남는다. 뮤지컬에 등장하는 노래 ‘백조면서 오리’의 노랫구절인 ‘백조로 태어났지만 오리가 되었어요, ‘우린 서로 다르지만 결국 모두 같아요’는 이번 작품의 주제를 명확하게 드러낸다. 재각색과 연출을 맡은 김지용 예술감독은 이번 작품이 관객들에게 아기백조의 좌절과 슬픔을 전해주며 그것이 ‘공감’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연은 6월 4일까지 계속된다.



전래동화로 만든 가족음악극

어린이날 주간인 5월 4일과 5일에는 부산시립합창단의 가족음악극 ‘옛날 옛적에’를 만날 수 있다. ‘옛날 옛적에’는 어린이들에게도 잘 알려진 전래동화 ‘해님 달님’, ‘선녀와 나무꾼’ 등 두 편의 이야기를 엮어 만든 창작음악극으로, 노래와 춤, 연기가 어우러져 기존 합창무대에서는 만날 수 없는 다양한 볼거리를 즐길 수 있다.

이번 무대는 부산시립합창단 예술감독 이기선이 지휘하고 작곡가 이진실이 작곡 및 시놉시스를 맡아 중심 이야기를 만들었으며, 극단 아트레볼루션 대표 박정우의 연출, 다양한 음악적 스펙트럼을 보여주고 있는 2310밴드의 대표 이삼열이 편곡을 맡아 완성도 높은 무대를 선사한다. 특히 음악극으로서의 더욱 풍성한 무대를 위해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과 2310밴드가 연주를 맡았으며, 부산시립극단 서보기,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성아민, 손민아가 출연하여 극적 재미를 더해준다. 부산시립합창단은 이번 무대에서 첫 곡인 ‘옛날 옛적 먼 옛날에’를 시작으로 ‘꼭꼭 숨어라’, ‘악어떼’, ‘얼굴 찌푸리지 말아요’ 등 우리가 즐겨 부르는 동요를 기반으로 편곡된 15곡을 통해 이야기를 풀어간다. 특히 이번 공연은 평소 공연장 입장이 어려운 3세 이상 어린이 관객까지 관람이 가능하다.



어린이들의 클래식 입문 프로그램

부산시립교향악단은 5월 26일 어린이들을 위한 특별한 무대 ‘부산시향의 우리아이음악회’를 개최한다. 이번 무대는 어려서부터 클래식과 친숙해질 수 있도록 기획된 어린이들을 위한 맞춤 프로그램으로, 특히 엘가의 ‘어린이의 방 모음곡’, 라벨의 ‘어미거위 모음곡’ 등 작곡가가 어린이들을 위해 특별히 작곡한 두 곡을 들려준다.

첫 곡인 엘가의 ‘어린이의 방 모음곡(Nursery Suite)’은 엘가가 만년에 작곡한 어린이를 위한 관현악 모음곡으로, 엘가의 또다른 작품인 ‘젊은이의 지팡이 모음곡’처럼 그가 어린시절 스케치했던 선율들을 바탕으로 작곡됐다. 모두 7개의 곡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어린이를 위한 음악답게 대부분의 악장들이 밝고 쾌활하다. 이번 무대에서는 7개의 곡 중 제1번 ‘새벽의 노래’(Aubade)를 시작으로 제3번 ‘분주함(Busy-ness)’, 제4번 ‘슬픈 인형(The Sad Doll)’, 제5번 ‘마차(The Waggon)’, 제6번 ‘즐거운 인형’(The Merry Doll)을 들려준다.

두 번째 곡인 라벨의 ‘어미거위 모음곡’은 친구의 아이들에게 동화책을 즐겨 읽어주던 라벨이 다섯 개의 동화를 바탕으로 작곡한 모음곡으로, 아이들을 위해 쉽게 쓰여진 곡이니 만큼 어린이들의 클래식 입문용으로 즐겨 연주된다. 이번 무대에서는 ‘잠자는 숲속의 미녀 파반(Pavane de la Belle au Bois Dormant)’, ‘난쟁이(Petit Poucet)’, ‘파고다의 여왕 레드로네트(Laideronnette, Imperatrice des pagodes)’, ‘미녀와 야수의 대화(Les entretiens de la Belle et de la Bete)’, ‘요정의 정원(Le jardin feerique)’ 등 어린 시절의 환상과 동심을 추억하게 하는 모음곡 전곡을 들려준다. 지휘는 부산시립교향악단 부지휘자 이민형.

골라먹는 재미가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

이밖에 스페인의 정열이 살아있는 유쾌한 희극발레, 유니버설발레단의 ‘돈키호테’가 5월 13일과 14일 부산시민회관 대극장에서, 청소년들의 일상과 현실적 고민을 깊이 있게 다룬 청소년극 ‘XXL레오타드 안나수이 손거울’은 5월 19일과 20일 부산문화회관 중극장에서 열린다.

또한, 5월 21일 부산시민회관 대극장에서 열리는 ‘2022 디즈니 인 콘서트’에서는 대형 스크린에 펼쳐지는 디즈니 오리지널 영상과 60인조 디토오케스트라가 만들어내는 웅장한 사운드와 화려한 조명, 그리고 국내 최고 뮤지컬 배우들로 구성된 디즈니 싱어즈의 강력한 노래로 관객들을 사로잡는다.



프로그램 일정



극단 영 그림자극 '비발디의 세계'

4월 6일(수)-5월 6일(금) 주말 오전 11:00, 오후 2:00(평일 단체공연)
부산문화회관 사랑채극장
전석 2만원(3세 이상 입장가, 10인 이상 단체 60%,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50% 할인)



부산시립합창단 어린이 뮤지컬 '옛날 옛적에'

5월 4일 수요일 오전 11:00(단체관람), 오후 7:30, 5일 목요일 오전 10: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R석 2만원, S석 1만원(3세 이상 입장가,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3인 이상 가족 50% 할인)



유니버설발레단 '돈키호테'

5월 13일 금요일 오후 7:30, 14일 토요일 오후 3:0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VIP석 8만원, R석 6만원, S석 4만원(48개월 이상 관람가,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부산시립극단 가족뮤지컬 '미운오리새끼'

5월 13일(금)-6월 4일(토) 토요일·공휴일 오전 11:00, 오후 2:00(평일 단체공연, 일요일 공연없음)
부산문화회관 사랑채극장
전석 1만원(전연령 관람가)



극단 돌파구 'XXL레오타드 안나수이 손거울'

5월 19일 목요일 오후 2:00, 20일 금요일 오후 2:00, 7:3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R석 3만원, S석 2만원(중학생 이상 관람가,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2022 디즈니 인 콘서트:Beyond The Magic

5월 21일 토요일 오후 5:0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VIP 10만원, R석 8만원, S석 6만원, A석 4만원(48개월 이상 관람가,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10% 할인)



부산시립교향악단 '우리아이음악회'

5월 26일 목요일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전석 1만원(5세 이상 관람가,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www.bscc.or.kr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2022 디즈니 인 콘서트: Beyond The Magic



● 디즈니의 꿈과 희망을 음악으로 전하는 ‘2022 디즈니 인 콘서트’가 5월 21일 부산시민회관 대극장에서 펼쳐진다.

디즈니 공식 라이선스 프로덕션으로, 디즈니의 애니메이션에 삽입되었던 히트곡들을 콘서트 무대에서 만날 수 있는 ‘디즈니 인 콘서트’는 대형 스크린에 펼쳐지는 디즈니 오리지널 영상과 지휘자 정한결이 지휘하는 60인조 디토오케스트라가 만들어내는 웅장한 사운드와 화려한 조명, 그리고 국내 최고 뮤지컬 배우들로 구성된 디즈니 싱어즈의 강렬한 노래로 관객들을 사로잡는다.

‘디즈니 인 콘서트’는 그동안 미국, 영국 및 유럽, 일본, 홍콩, 대만, 카타르 등 세계 유명 공연장에서 150회 이상 공연해오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2014년 올림픽공원 잔디마당에서 열리는 크레디아 파크콘서트에서 첫 내한 공연을 가진 이후, 매년 호평과 열광 속에서 흥행을 이어오고 있다. 지난 2018년부터는 실내 무대인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일부 회차를 조기 매진시키며 디즈니 팬들의 결집력을 보여주었으며, 2020년 11월에 열린 내한 공연은 팬데믹으로 지친 한국의 관객들에게 잊을 수 없는 마법같은 시간을 선사하며 뜨거운 환호를

이끌어냈다. 지난해인 2021년에는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으로 부산에서도 콘서트가 처음 열려 부산시민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바 있다.

‘Beyond the Magic’이라는 부제로, 디즈니의 마법, 그 이상의 황홀한 순간을 선사할 올해 무대에서는 겨울왕국, 겨울왕국2, 미녀와 야수, 라이온 킹, 알라딘, 신데렐라, 캐리비안의 해적 서곡 등 전 세계인이 사랑하는 디즈니 명곡을 디즈니 싱어즈의 노래로 들려준다. 특히 지난해 내한공연 최초로 선보여 뜨거운 반응을 얻었던, ‘알라딘’ 실사 영화의 삽입곡 ‘Speechless’에 이어 올해 무대에서는 제94회 아카데미 장편 애니메이션 수상작인 신작 ‘엔칸토:마법의 세계’의 삽입곡 ‘Waiting on a Miracle’를 국내 최초로 들려준다.

올해 관객과 만나는 디즈니 싱어즈는 뮤지컬 ‘쓰릴 미’, ‘타이타닉’, ‘광주’ 등에서 독보적인 존재감을 보여주는 정동화와 뮤지컬 ‘우리들의 사랑’의 주역이자 매력적인 목소리의 흥경아, 뮤지컬 ‘햄릿’과 ‘위키드’로 주목받고 있는 박시인, 뮤지컬계의 라이징 스타 유효진으로, 더욱 탄탄하고 실감나는 연기와 노래를 선사한다.

일 시 5월 21일 토요일 오후 5:00 **장 소**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입장료 VIP 10만원, R석 8만원, S석 6만원, A석 4만원(48개월 이상 입장 가능,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10% 할인)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제215회 정기연주회 국악관현악 시즌 II



- 동시대 작곡가들의 작품들 중 최고의 작품을 엄선하여 들려주는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국악관현악 시즌' 두 번째 무대가 5월 26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펼쳐진다.

'국악관현악 시즌'은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의 파워풀한 사운드와 국악관현악의 탁월한 현대적 해석력을 바탕으로 전통음악의 절묘한 조화를 찾아내는 수석지휘자 김종욱의 새로운 하모니가 기대되는 무대로, 지난 3월 첫 무대를 통해 관객들의 많은 박수를 받은 바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수석지휘자 김종욱이 지휘하고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현악 악장 김혜진(가야금), 조이오브스트링스 수석단원, 부산챔버뮤직소사이어티 단원으로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조혜운의 협연으로 다양한 창작국악곡을 들려준다.

첫 무대는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앞두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린 '순국의 혼(김백찬 곡)'을 부산 초연으로 들려준다. 이 곡에는 '순국'이라는 엄숙하고 슬픈 정서가 아닌 나라를 잃은 슬픔의 감정은 뒤로하고 나라를 구할 각오와 용기를 작품 전반에 담아내고 있다. 이어지는 곡은 가야금 주자 김혜진의 협연으로 들려주는 강태홍류 가야금산조 협주곡 '시간의 흐름(이정호 곡)'. 이번 무대를 통해 처음 소개

되는 '시간의 흐름'은 수레바퀴처럼 돌아가는 시간의 윤회성(輪廻性)을 가야금산조로 연주한다. 협연자 김혜진은 부산대학교 일반대학원 한국음악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현재 (사)강태홍류 가야금산조보존회 음악감독, 부산광역시정무형문화재 제8호 가야금산조 보유자 후보로 활동하고 있다.

바이올린 협연으로 들려주는 '이별가(김성국 곡)'는 이 시대 죽음으로 이별의 고통을 겪는 모든 이들을 위한 진혼의 노래로, 경기민요 '이별가'의 선율적 내용을 차용하고 있다. 협연자 조혜운은 한국예술종합학교와 미국 매네스대 석사 및 최고연주자과정을 졸업하고 보스턴대학교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The Special Presentation Winner 오디션 우승, 보스턴국제실내악콩쿠르(ICMEC) 1위로 카네기홀에서 독주 및 실내악 데뷔연주회를 가진 조혜운은 현재 한국예술종합학교 겸임교수로 있다.

마지막 무대에서는 시김새를 적절하게 통제하는 방식의 관현악법을 구현한 국악관현악 '공간이동(황호준 곡)'과 지난 2020년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명품 재창작관현악'을 통해 초연됐던 '바다(이정호 곡)'를 들려준다. '바다'는 창작국악관현악의 문을 연 작곡가 김기수의 '청사포 아침해'에 영감을 받아 작곡가 이정호가 새로운 감성으로 해석한 작품이다.

일 시 5월 26일 목요일 오후 7:30 장 소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R석(1층) 1만원, S석(2층) 5천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 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이방인에게도 마음의 문을 열게 하는 울림

부산시립교향악단
제586회 정기연주회

◆ 문화유목민 정두환 음악평론가

소리는 사람의 인체 중 항상 열린 두 귀로 인하여 24시간 우리를 자극하고 있는 신비한 감각이다. 물론 여기엔 물리적인 소리도 중요하지만, 소리에는 마음을 여는 심리적 관심이 더욱 중요할 것이다. 두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 듯, 두 귀에 들리지 않는다고 소리 나지 않음이 아니다. 존재의 현상을 두 눈으로, 두 귀로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다. 소리의 존재는 창작의 영역에서 무한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은 분명하다. 이 소리를 다루는 음악인들은 자연스럽게 사물을 바라보는 마음이 더욱 섬세할 수 밖에 없다.

지난 4월 1일, 부산시립교향악단 제586회 정기연주회 ‘이방인’에서는 부산시립교향악단이 ‘올해의 예술가로 선정한 바이올리니스트 양인모와의 첫 만남이 있었다. 그는 2015년 프레미오 파가니니 국제 바이올린 콩쿠르에서의 한국인 최초 우승자이기도 하다. 젊은 파가니니라는 이야기가 어울릴 만큼 그의 기교는 탁월하였다. 양인모는 코른골트의 ‘바이올린 협주곡 D장조 Op.35’에서 자신의 연주 기량을 유감없이 보여주었다. 작곡가 코른골트는 오스트리아 태생으로, 클래식과 영화음악을 넘나들며 순수음악과 상업음악의 경계가 무의미함을 보여주는 작곡가이다. 만약 영화에서 푸치니의 아리아 같은 아름다운 음악을 들었다면 코른골트의 음악이었을 것이다. 아름다운 세상의 소리를 담은 작곡가의 모습, 이날도 그의 장엄하고도 서사적인 음악이 펼쳐졌다.

여기에 한가지 더한다면 젊은 거장 바이올리니스트 양인모의 기교로 더욱 새로운 음색이 입혀졌다. 1, 2, 3악장 전체를 흐르는 대 서사시의 한 장면을 떠올리게 하는 연주는 많은 관객들에게 오랜만에 들려주는 희망의 메시지였다. 특히, 앙콜로 연주한 슈베르트의 ‘마왕에 의한 그랜드 카프리스 Op.26’에서는 탁월한 기교와 빠른 연주력으로 관객들을 사로잡았다. 바이올리니스트 양인모는 앞으로가 더욱 더 기대되는 연주자이다.



필자는 이번 음악회에서 진은숙의 '수비토 콘 포르차(Subito con Forza)'의 한국 초연에 특히 관심이 많았다. 진은숙은 한국 현대음악의 이정표와 같은 사람이다. 지난 2018년 서울시립교향악단 상임작곡가에서 물러나며 우리나라와 조금 멀어지는 듯 하였지만, 올해 통영국제음악제 예술감독으로 복귀하여 우리와의 관계를 더욱 새롭게 하였다. 그녀의 곡은 베를린 필과 런던 필 등 세계 최고의 악단에서 소개한다. 이러한 작곡가의 곡을 부산시립교향악단의 연주를 통해 들을 수 있어 관객의 입장에서 행복하다. 이러한 작업이 결국은 부산시립교향악단의 연주작품 목록을 확장하는 길과도 연결되기에 더욱 기대가 컸다.

이번에 연주된 '수비토 콘 포르차'는 베토벤 탄생 250주년을 기념하여 지난 2020년에 발표된 곡이다. 현대의 베토벤을 대면하는 듯한 이야기로 다양한 음색의 전개가 돋보였다. 이 곡은 내면의 소리와 외형의 균형감, 소리의 다이내믹이 요구된다. 첫 소리의 일성이 지속적으로 절제된 내공의 소리로 담고 있어야 하며, 이 내공이 모여 만들어진 절제된 소리의 힘이 이어진 뒤 다시금 터져나오는 소리의 힘은 소리가 사라진 뒤에도 그 여운을 주기에 충분하였다.

부산시립교향악단이 들려준 라벨의 '다프니스와 클로에 모음곡 제2번'은 라벨 특유의 음색과 흐름을 느끼기에는 조금의 아쉬움이 남는 연주였다. 다양하게 펼쳐지는 음색의 향연이라 하여도 무방한 색채가 그려지는 곡인데 몇가지 색으로 그림을 그리는 듯한 소리의 뒤섞임에서 지휘자의 많은 고뇌를 볼 수 있었다. 연주자들이 무대 끝까지 나올 정도로 날것의 소리를 최대한 다양하게 들려주기 위한 모습, 이로 인하여 오히려 소리의 뒤섞임이 느껴지는 무대, 이러한 것을 지휘자는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다. 보다 풍부한 소리를 관객에게 전달하고자 연주자들의 자리 배치에 고민한 흔적이 곳곳에서 보이지만, 이 또한 새로운 실험의 한 부분이다. 현 파트는 반사판 없이 날것의 소리를 전달해야 하며, 오히려 가장 잘 울리는 위치에 목관 파트를 배치함으로 목관의 화려함을 돋보이게 하였다. 목금관의 울림은 섞여서 선명한 투명성이 떨어졌으며 하프의 아름다운 여운이 다른 악기들의 소리에 뒤섞여 버렸다. 후반부로 가면서 울

려퍼지는 소리의 다양성과 다이내믹은 생동감보다는 섞임이 강하였다. 진은숙의 곡 '수비토 콘 포르차'와는 상반되는 느낌을 지을 수가 없었다.

다양한 장르의 음악과 새로운 음악을 들려주는 것은 끊임없는 도전이며 새로움을 향한 열정이다. 부산시립교향악단이 풀어야 할 숙제는 많다. 연주자들의 단결된 힘과 내적 공유를 통한 응집된 소리의 울림이 필요하다. 열심히 노력한다는 것은 두가지로 내포하고 있다. 하나는 개인의 기량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스스로의 시간이 충분하여야 한다. 연습량과 더불어 많은 사색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연주자 개개인들은 끊임없이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이를 기반으로 하나된 소리를 통한 메시지 전달이다. 이는 스스로가 준비되고 함께 이루어 나간다는 의식에서 출발한다. 지금 부산시립교향악단의 모습에서는 아쉬운 부분이다. 부산시립교향악단은 부산시민들의 자존심이자 부산을 대표하는 최고의 오케스트라이다.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최고의 음악으로 시민들에게 들려주어야 한다. 부산시립교향악단 60년의 역사는 교향악단의 역사임과 동시에 시민들의 역사이며 부산 음악 정신의 역사이다. 부산시립교향악단이 존재하는 목적과 이유는 최고의 음악을 시민들에게 들려주기 위함임을 한순간도 놓쳐서는 않는다.

어쩌면 모든 이는 이방인일 것이다. 그렇지만 이방인에게도 마음의 문을 열고 함께 다가감은 있다. 카뮈의 <이방인> 한 구절이다. "나는 처음으로 세계의 정다운 무관심에 마음을 열고 있었던 것이다. 세계가 그토록 나와 닮아서 마침내 그토록 형제 같다는 것을 깨닫자, 나는 전에도 행복했고, 지금도 여전히 행복하다고 느꼈다. 모든 것이 완성되도록, 내가 외로움을 덜 느낄 수 있도록, 내게 남은 소원은 다만, 내가 처형되는 날 많은 구경꾼들이 모여들어 증오의 함성으로 나를 맞아 주었으면 하는 것 뿐이다."

음악회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은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본연의 일에는 충실하면서도 상대에 대한 배려와 존중은 여전히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끼며 카뮈의 한 구절을 중얼거리려 본다.

또다른 국악의 재미를 느끼게 해준 무대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만우절 음악회’

◆ 김동녘 부산예술강사지원센터 팀장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공연장을 메운다. 지휘자, 연주자의 행동 하나하나에 사람들의 웃음꽃이 피어난다. 여기에는 전문지식이 많을 필요도, 음악에 대한 분석도 필요 없다. 단지 공연장은 관객들의 웃음으로 가득 차다.

벚꽃이 만개해 봄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4월 6일, 부산문화회관 중극장에서는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특별연주회가 ‘만우절 음악회’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다. 이번 공연은 이때까지 진행되었던 특별연주회와는 분위기가 달랐다. 지난해 특별 연주회였던 ‘신축다례연’, ‘협주곡의 밤’ 등은 아주 국악적인 모습을 통해 관객들에게 우리 음악의 깊은 맛을 보여주었다면 이번 음악회는 관객들에게 평소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공연에서 보지 못했던 실험적인 음악과 퍼포먼스를 통해 관객들에게 새로운 모습과 재미를 선사했다.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은 부산에서 가장 오래된 국악관현악 단체로, 지난 1984년 창단하여 부산을 중심으로 폭넓게 활동을 펼치고 있는 단체이다. 70여 명의 연주자들로 구성되어 현재까지 정기, 특별, 해외 공연 등을 통해 한국뿐 아니라 해외에도 우리 음악의 맛을 보여주고 있다. 현재는 2020년에 취임한 제9대 김종욱 수석지휘자가 단체를 이끌고 있다.

오프닝 공연을 포함한 총 9개의 곡이 진행된 이번 공연은 해설, 쉬는 시간 없이 100분간 각각의 테마로 진행되었다. 오프닝 공연으로 진행된 <★다방>은 타악 연주자 박재현이 구성한 공연으로,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의 젊은 단원들이 카



페에서 생길 수 있는 재미있는 상황극과 종이컵 난타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오프닝 공연을 통해 이번 공연이 결코 평범하지 않을 것임을 알리며 공연이 시작되었다.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이 주연이었던 <모여라! 만우절>에서 <집박 에디션>, <가야금곤체로도 동문서답>, <패러디 '오징어 게임'>은 관현악 연주 중의 돌발상황을 표현하였는데 실제 연주자들과 지휘자가 연기에 참여하여 평소 보던 연주와는 다른 의외성으로 관객들에게 재미를 선사했다. 특히 <집박 에디션>에서 조선 시대의 지휘자 역할을 하던 집박악사와 현 지휘자의 자존심 싸움을 마치 찰리 채플린의 무성영화처럼 표현하여 관객들의 웃음을 유발시켰다.

이어서 진행된 <아리아 '자갈치 시장'>, <유쾌한 댄스 퍼포먼스 '건달'> <에티켓>은 국악과 타 예술 장르가 융합된 공연으로 부산시립합창단, 부산시립무용단, 부산시립극단이 참여하여 부산시립예술단의 종합선물세트와도 같은 무대였다. 부산의 사투리와 표준어의 차이를 노래로 표현한 <아리아 '자갈치 시장'>은 새로운 아이디어와 재치있는 노래 가사로 관객들에게 재미도 주었지만, 사투리를 쓰는 관객들이 대부분인 공연장에서 뜻밖의 큰 공감을 얻어냈다.

이번 공연에서 가장 호응이 좋았던 <타악 퍼포먼스 ?>는 타악단원 박재현이 협연자로 나와 타악기가 아닌 타자기를 이용하여 장단을 연주했다. 영상스크린에 연주자의 메시지가 타자기 장단에 맞춰 나와 호응을 유도하기도 하였으며 어린이 드럼 세트를 이용한 연주, 그리고 연주자의 익살스러운 퍼포먼스를 통해 관객들과 교감하였고 이에 관객들은 좋은 반응을 보여주었다. 마지막으로 연주된 <놀자! 마당놀이>는 신명나는 장단을 통해 관객들의 흥을 돋우면서 신명을 교감하며 공연의 끝을 맺었다.

이번 공연에서 보여준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의 모습은 아마 악단이 지향하는 공연이기보다는 악단의 '부캐'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든다. 요즘 예능에서 연예인들이 기존의 이미지를 탈피하여 시청자들에게 새로운 모습을 보이고자 하는 장치로 '부캐'를 사용하는데, 이런 전통 있는 단체들에게는 더욱 필요한 모습이라고



생각한다. 그 단체의 색깔을 잠시 내려놓고 평상시에는 보여주지 않았던 모습은 대중들에게 신선함으로 어필될 것이고, 이로 인해 새로운 관객층의 유입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이번 공연에서는 평상시보다 어린이 관객들이 많았으며, 다른 연령대보다 더욱 공연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 이 또한 인상 깊었다.

이번 연주회의 가장 특징은 공연의 가벼움 아닐까? 보통 국악관현악하면 차분하고 웅장한 느낌을 주는 공연이 많고 국악의 보존과 발전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 무거운, 즉 어려운 음악이라고 느껴지는 분야이다. 그러다 보니 높은 음악성과 비교적 저렴한 입장료에도 불구하고 타 예술 장르에 비해 대중들에게 외면을 받아왔다. 대중들이 예술을 즐기는 이유는 학문적 관점으로 말할 때는, 이런저런 전문용어를 사용하며 이론을 펼쳐낼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재미가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흥미가 없고 재미가 없으면 누가 본인 돈과 시간을 써가며 공연을 보겠는가. 재미가 있어야 그것을 공부하고 그 속의 의미 또한 알 수가 있다.

무거운 예술도, 가벼운 예술도 있다. 진지하고 과묵해서 기품이 있는 사람도 있고 가볍게 통통 튀어서 매력적인 사람도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다양한 국악공연이 필요하다. 이것은 어느 것이 '옳다', '나쁘다'라고 판단을 할 수 없다. 하지만 가벼운 예술은 공연장 문턱이 더 낮게 느껴진다. 아무리 음악성이 뛰어나도 관객들이 재미있게 즐길 수 없다면 그건 '자기 만족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든다.

이번 공연 준비를 위해 평상시보다 더욱 고생했을 부산국악관현악단에게 박수를 보내며, 관객들이 쉽게 볼 수 있고 재미있게 볼 수 있는 이런 공연들도 많이 기획되어 공연되었으면 한다.

극단의 새로운 얼굴들

2022 부산연극제

◆ 김남석 부경대학교 교수, 연극평론가

1990년대까지만 해도 극단은 ‘동인제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었다. 극단의 대표가 있고 극단원들이 있었으며, 그들은 공동의 목표를 위해 극단을 운영했다. 비록 극단 대표가 강력한 결정 권한을 독점하고 있고, 극단원들은 이러한 결정에 종속되는 경향이 심하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도 극단이 온전히 한 사람만의 것은 아니었다. 아무리 강력한 대표가 존재한다고 해도, 극단은 극단을 위해 모인 사람들 공동의 소유여야 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이러한 결정에 반하는 연극인이 늘어났고, 각자 기호대로 분리 독립하여 새로운 극단들을 창립하기 시작하는 움직임이 확산되었다. 이른바 극단 난립의 시대가 펼쳐졌다(지금 시기는 그러한 시대의 일부이다). 사람들은 이러한 현상을 가리켜 처음에는 ‘프로듀서 시스템’이라고 불렀고, 현재에는 ‘프리랜서 시스템’이라고도 통칭하곤 했다. 명칭이야 무엇이든 간에, 현재의 연극인들은 1인 1극단 상황까지 목격해야 했다. 올해 부산연극제에서 우선 주목되는 현상은 이러한 체제에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한 점이다. 이러한 움직임을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하여 발언을 조율할 필요가 있는데, “변화의 기미가 일부 엿보인다”고 하는 편이 옳을 것이다. 한 사람 혹은 편익에 의해 극단원들을 모으고, 그 극단원들이 수동적으로 공연을 참가하던 최근의 풍조에 작은 변화들이 나타난 것이다.

극단 ‘프로젝트팀 이틀’은 김지용이 예술감독으로 운영하고 있는 극단이다. 그렇게 자주 공연을 시행하는 극단은 아니었으며, 부산연극제에도 단골로 참가하는 극단도 아니었다. 하지만 올해 흥미로운 콘셉트로 연극제에 참여했다. 김지용이 쓰고 연출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임준서가 그 역할을 수행한 것이다. 임준서는 주로 배우로 활동하던 연극인이었기에, 이러한 등장은 다소 의외이기는 하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는 분명 환영할 일임에는 틀림 없다고 해야 한다.

극단 에저또는 박태환 작, 김지연 각색으로 <흔들린다>를 선보였다. 이 작품은 울산 극단 세소래의 작품으로, 해당 극단 대표이자 연출(가)인 박태환의 희곡이다. 극단 에저또

프로젝트팀 이틀 ‘마리’



극단 바문사 ‘그루터’



는 이 작품을 각색하여 자신들의 공연 환경에 맞추었는데, 이때 이러한 각색(전환)은 김지연이 맡았다. 김지연이 이미 여러 차례 희곡을 집필하여 부산연극제에 진출한 경험을 이미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시도가 생소한 사례는 아니다. 하지만 에저또 또한 이러한 작업과 분담을 통해 1인 대표 체제의 극단이 아닌, 함께 가는 극단으로의 변화를 모색한다고 할 수 있겠다.

극단 바다와 문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이하 '바문사')에서도 동일한 변화가 엿보인다. 최은영이 바문사의 대표가 된 이래, 최은영이 짓고 최은영이 연출하는 공연이 주류를 이루었다. 희곡 창작 능력과 연출력을 겸비한 최은영이었기에, 이러한 극단 운영은 그 자체로는 문제가 없어 보인다. 아니, 해당 시점에서 부산 연극의 조류를 충분히 수용한 결과라고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번 부산연극제에서는 다소 의외의 연극인이 연출을 맡았다. <그루터>의 연출을 맡은 이는 배문수였는데, 평소 바문사와 배문수의 친분과 협연을 모르는 바는 아니나 이러한 연출 선정은 다소 특이하다고 해야 한다. 사실 배문수가 연출을 맡은 일은 최초 사례는 아니었다. 2020년에 <코뿔소>를 연출한 전력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코뿔소> 공연은 찬반양론을 불러온 공연이었기 때문에, 다시 연출을 맡은 일은 또 그만큼의 논란을 가져올 수 있었음에도, 바문사의 결정은 신속하기 이를 데 없었다.

최근까지만 해도 부산연극제의 참가/진행 방식은 계속해서 논란을 빚었고, 그로 인해 극단원들은 더욱 수동적으로 변해야 했다. 가령 예전 창작 초연 참가 시스템일 경우에는, 극단원들이 쓰고 연출하고 다듬는 작업에 합부로 끼어들기 어려웠다. 적절한 창작 초연작을 구하기도 바쁜 경우라 실험적인 시도를 극단원들에게 맡기기 어려웠다. 극단 대표가 선택을 전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귀한 희곡'을 구하는 과정에서 극단원들의 창작 의욕은 오히려 밀려날 수밖에 없었다.

제도가 개선되자 각 극단들은 다소 숨통을 톨 수 있다. 공연 대상 작품을 구할/준비할 시간과 기회가 늘어났고, 이에 따라

평소에는 숨겨 두었던 재능과 욕망을 펼 수 있는 상황도 덩달아 늘어났다. 최은영이 쓰고 배문수가 연출하는 공연의 경우에는 바문사의 새로운 연출자가 등장하여 극단의 자연스러운 확장까지 기대할 수 있는 경우이다. 물론 배문수가 바문사라는 극단의 단원이 될 것인지는 또 다른 선택이겠지만, 확장된 의미에서 극단 공동체를 간주할 때 1인 대표 체제의 극단 시스템에 변화를 가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시도로 여겨진다.

프로젝트 이틀에서도 임준서의 거취는 분명하게 규정할 수 없을 것이다. 현 시점에서 어느 극단이 있다고 해서, 그 극단의 단원이 누구라고 확정지어 말하기는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현재는 이러한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변화된 개념을 사용해야 한다. 그러한 측면에서 임준서는 프로젝트 이틀의 또 다른 동반자이고, 함께 연출을 길을 걷는/걸을 수 있는 동반자이다.

전술한 대로, 극단 에저또에서 김지연의 활동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김지연은 거의 10년 전부터 창작과 각색 작업에 뛰어들었고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그 작업이 계속 이어진다는 점에서, 이번 각색 작업은 다시금 주목될 일이 아닐 수 없다. 더 큰 바람이 있다면, 에저또에 '또 다른 김지연'이 등장하고, '다른 연출가'도 등장하는 일일 것이다.

개선 방향을 논할 때마다, 부산연극제는 지역 축제가 되어야 하고 부산 연극인의 한마당이 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끊임없이 있었다. 그리고 그 방식이 무엇이나는 질문도 곁들여지고 했다. '관객이 함께하는 연극이 되어야 한다'는 말은 교과서적인 답안으로 끼어든 대답이었다. 여기에 대답 하나를 추가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부산연극제에 참여하는 극단들이 A 아무개 대표의 극단이 아니라, B 연출의 단독 퍼포먼스 단체가 아니라, 극단원들이 조화롭게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는 극단으로 참여하는 방법이다. 물론 시대의 흐름에 맞게 말하면, 함께 참여하는 이들이 반드시 극단원이 아닐 수 있다. 함께 연극의 길을 걷는 동반자로서, 공동의 작품을 창작하고 소유하고 즐기는 동료라도 충분할 것이다. 한 사람의 극단이 아닌, 공동의 극단으로서의 길을 걸을 수만 있다면 말이다.

부산문화회관

2022 풀리처상 사진전 부산전시

일 시 | 1월 21일(금)-5월 15일(일) 전시실
 입장료 | 일반 1만5천원, 청소년 1만2천원
 어린이 9천원
 문 의 |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60만명의 심장을 뛰게 한 풀리처상 사진전. 이번 전시는 1998년 한국에서의 첫 전시를 시작으로 4차례 전시를 통해 서울에서만 60만 관객을 동원하며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사진전으로 기억되는 풀리처상 사진전의 2022년 부산전시로, 사진부문이 신설된 1942년부터 2021년까지의 수상작 140여점과 사진 뒤 숨겨진 이야기들이 소개된다. 특히 이번 전시에서는 2019년 풀리처상 '브레이킹 뉴스' 사진부문에서 한국인 최초 수상한 사진기자 김경훈이 포함된 로이터통신 사진팀의 사진도 확인할 수 있다.

• 관람시간/오전 10:00~오후 7:00
 (오후 6:00 입장마감, 매주 월요일 휴관)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비발디의 사계

일 시 | 4월 6일(수)-5월 6일(금) 오전 11:00
 오후 2:00(평일 단체공연) 사랑채극장
 입장료 | 전석 2만원(3세 이상 입장, 10인 이상 단체 60%,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50% 할인)
 문 의 |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www.bscc.or.kr



그림자극으로 만나는 특별한 음악여행 '비발디의 사계'. 트리나 폴리스의 그림유화 '꽃들에게 희망을'을 원작으로 한 이번 작품은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클래식곡인 비발디의 '사계'와 그림자극이 어우러지는 작품으로, 계절의 변화를 비발디 '사계'를 통해 귀로 듣고 화려한 색감의 그림자극을 통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호기심을 자극하는 그림자극과 클래식 음악이 함께 어우러지면서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클래식 음악을 온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다.

부산시립합창단 제185회 정기연주회 어린이 뮤지컬 옛날 옛적에

일 시 | 5월 4일 수요일 오전 11:00(단체관람),
 오후 7:30, 5일 목요일 오전 10:30 대극장
 입장료 | R석 2만원, S석 1만원(3세 이상 입장,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 의 |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어린이들에게도 잘 알려진 전래동화 '해님 달님', '선녀와 나무꾼' 등 두 편의 이야기를 엮어 만든 창작음악극. 부산시립합창단 예술감독 이기선이 지휘하고 작곡가 이진실이 작곡 및 시놉시스를 맡아 중심 이야기를 만들었으며, 극단 아트레볼루션 대표 박정우의 연출, 2310밴드의 대표 이상열이 편곡을 맡아 완성도 높은 무대를 선사한다. 특히 음악극으로서의 더욱 풍성한 무대를 위해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과 2310밴드가 연주를 맡았으며, 부산시립극단 서보기,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성아민, 손민아가 출연하여 극적 재미를 더해준다.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제47회 청소년 협연의 밤 2022 꿈과 감성이 있는 젊은 음악회

일 시 | 5월 3일 화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전석 2천원
 문 의 |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기량이 뛰어난 국악학도의 등용문으로 그동안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중인 수많은 연주자들을 배출해온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제47회 청소년 협연의 밤.

오디션을 거쳐 합격한 국악 전공자들에게 국악관현악단과의 협연을 통한 자긍심 고취와 무대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무대로, 특히 미래의 주인공들이 들려주는 학구적이면서도 열정적인 무대를 만날 수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부산대학교 한국음악학과 졸업 및 동대학원 석사과정에 있으며 현재 부산가야금연주단 정단원, 부산현금보존회 회원으로 있는 배현지(25현 가야금), 2017년 세종 전국국악대회 우수상, 2018년 세종 전국국악대회 최우수상을 수상하고 현재 경북대학교 국악과 4학년이

재학중인 성승현(생황), 부산대학교 한국음악학과 4학년인 고희창(설장구), 2019년 제27회 대전전국국악경연대회 학생부 대상, 제21회 여수진남전국국악경연대회 기악 중고등부 대상, 제13회 추담전국국악경연대회 학생부 종합대상, 제18회 대한민국 빛고를 기악 대제전 고등부 종합대상을 수상하고 현재 한국예술종합학교 1학년에 재학중인 오대주(피리), 충주시립무용국악단 비상임 단원이자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음악과 및 동대학원 석사과정을 졸업하고 현재 박사과정에 있는 김가현(소금), 부산대학교 한국음악학과 3학년 조혜진(모듬북) 등 6명의 협연자가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과 호흡을 맞춘다.

- 프로그램
- 정동희/25현 가야금 협주곡 '찬기파랑가'
 - 이정호/생황 협주곡 '환상적'
 - 이경섭/설장구 협주곡 '소나기'
 - 원일/피리 협주곡 제1번 '가산향'
 - 이준호/소금 협주곡 '길'
 - 이정호/모듬북 협주곡 'Heart of Storm'
 - 지휘/김중욱(수석 지휘자)
 - 가야금/배현지 • 생황/성승현
 - 설장구/고희창 • 피리/오대주
 - 소금/김가현 • 모듬북/조혜진

소프라노 정혜민 귀국 독창회

일 시 | 5월 5일 목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전석 2만원(학생 50% 할인)
 문 의 | 정혜민 010-5297-2528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학사 및 석사과정을 졸업하고 이태리로 유학, 베니스 국립음악원 석사과정, 밀라노 베르디 국립음악원 박사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소프라노 정혜민 귀국 독창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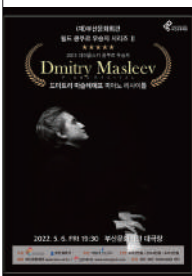
유학시절 오페라 '라 체리니' 주역으로 베니스 말리브란극장에서 데뷔하고 성악부문 오디션 선정자로는 최초로 베니스 라 페니체극장 오케스트라와 협연한 정혜민은 2년마다 열리는 베니스 뮤직 비엔날레에서 라 페니체극장 오페라 주역으로 발탁되어 무대에 선보였다.

이날 무대에서는 슈만, 마스네, 말러, 파야의 가곡 및 비발디, 드보르작의 오페라 아리아를 들려준다.

- 피아노/이윤지 • 해설/정지은

(재)부산문화회관월드콩쿠르우승자시리즈 II 드미트리 마슬레예프 피아노 리사이틀

일 시 | 5월 6일 금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R석 5만원, S석 4만원, A석 3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ARS 1번)



2015년 제15회 차이콥스키 국제 콩쿠르에서 심사위원단의 만장일치로 우승을 차지한 피아니스트 드미트리 마슬레예프 피아노 리사이틀. 마슬레예프는 그동안 진보적 해석과 완벽에 가까운 섬세한 테크닉, 러시아 고전에 대한 깊은 탐구, 철학적 사유 등으로 독특한 작품 세계를 구축해오며 현재 전세계로부터 뜨거운 러브콜을 받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 마슬레예프는 차이콥스키와 스크랴빈, 라흐마니노프 등 러시아 작곡가들의 곡을 들려준다.

강우용 귀국 피아노 독주회

일 시 | 5월 6일 금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전석 2만원
문 의 | 강우용 010-3594-2826



풍부한 표현과 매력적인 음색으로 청중을 사로잡는 피아니스트 강우용 귀국 독주회. 부산대학교 음악학과를 실기수석으로 졸업하고 도독, 드레스덴 국립음대 석사과정을 졸업한 한 강우용은 이후 남다른 학구적 열정으로 동대학 가곡반주과 석사과정과 벨기에 안트베르펜 왕립음악원을 졸업했다. 독일 유학시절, 이탈리아 Pedara Catania 국제콩쿠르에서 피아노부문 1위를 차지하는 등 국내외 콩쿠르에서 실력을 인정받았던 강우용은 일본 후쿠오카 신인음악회에서 성공적인 데뷔무대를 가진 후 독일, 벨기에, 네덜란드, 이탈리아, 프랑스 등 다수 무대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쳐왔다. 강우용은 현재 부산예술중·고등학교에 출강하며 후진양성에도 힘쓰고 있다.

제10회 베이스 손옥 독창회

일 시 | 5월 7일 토요일 오후 4:00 챔버홀
입장료 | 초대
문 의 | 손옥 010-9550-4649



아지무스오페라단 대표이자 부산기독교성악가회 회장, 예그린합창단, 금성하모니, 라이온스합창단 지휘자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베이스 손옥 독창회. 오랜 침묵을 깨고 7년만에 독창회를 갖는 손옥은 이번 무대에서 한국가곡 및 성가, 오페라 아리아로 관객과 만난다.
프로그램
현제명/오라 황덕식/추억의 간이역 변훈/명태 최덕신/시편23편 베르디/오페라 '나부코' 중 '기도' 모차르트/오페라 '피가로의 결혼' 중 '더 이상 날지 못하리' 등 수곡
• 반주/이영숙

제11회 부산사람 이태석 기념음악회 새 시대의 기상

일 시 | 5월 10일 화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초대(휴페이지 응모 후 추첨)
문 의 | (사)부산사람이태석기념사업회(637-0125)



‘한국의 슈바이처’라 불리는 이태석 신부의 고귀한 정신을 기리기 위해 매년 열리고 있는 부산사람이태석 기념음악회. 인제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한 뒤 장래가 보장된 의사의 길을 버리고 사제가 되기로 결심한 이태석 신부는 2001년 사제서품을 받자 아프리카 수단의 톤즈로 파견을 자청, 당시 전쟁과 가난으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었던 남수단 어린이들에게 교육과 의료봉사로 헌신하다 지난 2010년 1월 대장암으로 선종했다. 매년 예술인들의 재능기부 참여로 열리는 기념음악회는 올해 ‘새 시대의 기상’이라는 부제로, 온화한 카리스마의 마에스트로 오충근이 지휘하는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와 바이올리니스트 송지원, 첼리스트 송영훈이 함께한다.

지휘자 오충근은 제48대 난파음악상, 제9회 KNN 문화대상(문화예술 부문)을 수상했으며 현재 국립경대학교 석좌교수, 부산클래식음악제 예술감독으로 있다. 바이올리니스트 송지원은 미국 커티스 음악원과 뉴잉글랜드 음악원 석사과정, 줄리어드 음악원 아티스트 디플로마 과정을 졸업하고 세계 유수의 콩쿠르를 휩쓴 바 있다. 완벽한 기교와 따뜻한 감성을 겸비한 한국 최고의 첼리스트 송영훈은 2001년 대통령상을 수상하고 현재 전문연주자로 활동하면서 KBS 클래식 FM ‘송영훈의 가정음악’ 진행자로 많은 사람들과 소통해오고 있다.
프로그램
차이콥스키/대관식 행진곡
차이콥스키/로코코 주제에 의한 변주곡 작품 33
차이콥스키/바이올린 협주곡 라장조 작품 35
브람스/이중 협주곡 작품 102
차이콥스키/이탈리아 기상곡 작품 45



윤혜빈 귀국 피아노 독주회

일 시 | 5월 10일 화요일 오후 7:30 챔버홀
입장료 | 초대
문 의 | 윤혜빈 010-5641-4935



동덕대학교 음악과를 졸업하고 프랑스로 유학, 베르사유 국립음악원에서 피아노 전문연주자과정, 최고연주자과정을 최고점으로 졸업한 피아니스트 윤혜빈 귀국 독주회. 일찍이 국내외 다수 콩쿠르에서 상위 입상하여 음악적 두각을 보인 윤혜빈은 유학시절 ‘France Versailles Hotel de ville’ 초청연주, ‘Conservatoire de Versailles’에서의 다수 솔로 및 실내악 연주, 마스터클래스 등 다양한 무대에서 관객과 만나왔다. 현재 메츠클라 앙상블, 피아스트라, 부산피아노연주가클럽 회원으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윤혜빈은 이번 무대에서 스카를라티와 베토벤, 슈만의 곡을 들려준다.

제53회 부산피아노연주가클럽 정기연주회

일 시 | 5월 10일-11일 화-수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초대

문의 | 부산피아노연주가클럽 010-8488-6649



지난 1996년, 부산 소재의 각 대학교 음악학과 교수들을 주축으로 창단된 후 현재 390여명의 전문피아니스트들이 활발한 학문교류와 연주활동을 펼치고 있는 부산피아노연주가클럽 정기연주회.

부산피아노연주가클럽은 부산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피아노음악 전문 예술단체로, 매년 2차례의 정기연주회를 통해 피아노음악의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

올해는 'PIANO와 위대한 시작始作'이라는 주제로 첫날인 10일에는 정성혜 피아노 독주회를, 11일에는 피아노 솔로와 듀오 무대를 펼친다. 특히 이번 무대는 위드 코로나 시대, 위대한 일상을 향한 새로운 시작의 의미를 부여하고 응원하는 특별한 무대이다.



10일(화) 정성혜 피아노 독주회

오랜 기간 유학을 마치고 귀국한 신예 연주자의 독주회로 꾸며지는 무대로, 예술인으로서 첫발을 내딛는 피아니스트 정성혜의 무대가 펼쳐진다.

정성혜는 이날 무대에서 고전시대에서 낭만시대, 현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레퍼토리를 아름답고 낭만적인 선율로 그려낸다.

프로그램

하이든/소나타 제31번 내림가장조 Hob. X. VI.46
그라나도스/고예스카스
슈만/다비드 동맹 무곡집 작품 6

11일(수) PIANO와 위대한 始作

솔로와 듀오의 다양한 연주형태로 다채로운 피아노 음악을 감상할 수 있는 무대로, 동의대학교 박선혜 교수와 부산대학교 이윤수 교수를 필두로 중진연주자와 신진연주자들이 펼치는 화합의 무대이다.

- 연주/박아연, 강성은, 선진수, 정효인, 최혜련, 이윤수, 김태윤, 안승우, 양정은, 민유승, 박선혜, 신정아, 홍은영, 김민하

부산시립교향악단 기획음악회 심포니아夜

일 시 | 5월 11일 수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전석 1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의 |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관현악의 꽃이라 할 수 있는 교향곡을 보다 심도 있게 감상하기 위해 부산시립교향악단이 마련한 기획음악회 '심포니아夜', 특히 연주 시작 전 음악칼럼니스트로부터 연주곡에 대한 에피소드와 해설을 통해 무대를 더욱

깊이 감상할 수 있다.

부산시립교향악단 예술감독 최수열의 지휘로 시벨리우스 교향곡 제2번을 감상할 수 있는 이번 무대에서는 대원문화재단 전문위원이자 음악칼럼니스트로 활동하며 꼼꼼하고 진지한 해설로 두터운 팬을 확보하고 있는 황장원 칼럼니스트가 해설을 맡아 곡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 지휘/최수열 · 해설/황장원

부산시립교향악단 기획음악회 미완성 음악회Ⅰ

일 시 | 5월 12일 목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2층 일반석 5천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60% 할인)

문의 |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부산시립교향악단 제587회 정기연주회를 미리 만날 수 있는 부산시향의 미완성 음악회.

실제 리허설을 바탕으로 오케스트라가 앙상블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경험할 수 있는 새로운 형식의 음악회로, 연주를 앞두고 지휘자와 단원들이 호흡을 하나로 맞추어 가는 과정을 직접 육성으로 듣고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실제 무대와는 차별화된 매력을 느낄 수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제587회 정기연주회에서 협연을 맡은 바이올리니스트 양인모와 함께 정기연주회 프로그램 중 한 곡인 시벨리우스 '바이올린 협주곡'의 리허설 과정을 꾸밈없이 보여준다.

- 지휘/최수열
- 바이올린/양인모(2022 올해의 예술가)

2022 부산음악대축제

일 시 | 5월 12일-13일 목-금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초대

문의 | (사)부산음악협회 634-1295



매년 다양한 기획음악회를 선보이며 부산을 대표하는 클래식 공연시리즈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사)부산음악협회 '2022 부산음악대축제'.

12일(목) 신인음악회

매년 부산지역 대학 졸업생 중 우수자를 추천받아 오디션을 통해 선발, 음악가로서의 첫걸음을 열어주는 신인음악회.

프로그램

- 쇼팽/안단테 스피아나토와 화려한 대폴로네이즈 작품 22
- 글린카/왈츠 환상곡
- 리스트/전설 제2번
- 뒤티에/피아노소나타 작품 1
- 쇼팽/스케르초 제2번 작품 31 등 수록
- 피아노/이나영, 김현아, 성예림, 박지혁, 도예찬

- 바이올린/배다원, 조은비
- 오보에/김하린 · 플루트/최영광
- 소프라노/허수빈 · 테너/손준호
- 해설/이도윤

13일(금) 앙상블의 밤 '오페라 홀릭'

오페라하우스와 부산국제아트센터의 성공적인 준공을 기원하며 마련하는 앙상블의 밤. 이번 무대에서는 '오페라 홀릭'이라는 주제로 오페라 속 명곡들을 다양한 앙상블로 들려준다.

- 출연/나눔플루트앙상블(피콜로 장정림·플루트 최효석, 김여진·알토 플루트 김인호·베이스 플루트 황미리), 포르투나 앙상블(바이올린 박미정, 홍기정, 이상엽, 김다경·피아노 하수민), 부산현악사중주(바이올린 오난숙, 심수정·비올라 유소희·첼로 김동환), N-musica(피아노 김소희, 이진성), 무미건조(피아노 육은화, 김병기), JM 앙상블(오보에 권성은·플루트 황미리·피아노 유영욱), TDC 앙상블(피아노 고영주·바이올린 금성빈, 오근영·비올라 유정주·첼로 이지수·타악기 우정은), 소프라노 이진영, 최한술, 테너 장지현, 강도호

- 해설/오동주

부산시립교향악단 제587회 정기연주회 오로라

일 시 | 5월 13일 금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R석 2만원, S석 1만5천원, A석 1만원, B석 5천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부산시립교향악단이 2022년 '올해의 예술가로' 선정된 바이올리니스트 양인모와 함께하는 제587회 정기연주회 '오로라'. 2021년 도입한 '올해의 예술가'는 능력있는 예술가를 선정하여 한 해동안 협업을 진행하는 프로젝트로, 지난해 그 첫 번째 주인공으로 작곡가 김택수가 선정된 바 있다. 바이올리니스트 양인모는 보스턴 글로브지로부터 '흠집을 데 없는 기교와 부드럽고 따뜻한 음색'이라는 극찬을 받은 연주자로, 젊은 바이올리니스트들의 꿈의 대항아로 여겨지는 2015 프레미오 파가니니 국제 바이올린 콩쿠르에서 9년만에 등장한 우승자이자 한국인 최초 우승자로 화제를

모았다. 특히 1위 우승과 더불어 최연소 결선 진출자상, 현대 작품 최고 연주상, 청중상에 이르는 특별상을 휩쓸며 바이올린 채널로부터 '새로운 세대의 가장 재능 있는 젊은 현악 거장'으로 꼽히기도 했다. 양인모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예술영재교육원을 졸업하고, 이후 같은 학교에 영재 입학하여 수학했으며, 2013년부터 2019년까지는 뉴잉글랜드 음악원에서 학사와 최고연주자과정을 졸업했다. 현재는 베를린 한스 아이슬러 대학에서 대학원 과정을 이수 중이다. 이번 무대에서 양인모는 냉정과 열정이 공존하는 시벨리우스 바이올린 협주곡으로 관객과 만난다. 시벨리우스 '바이올린 협주곡'은 핀란드의 국민 작곡가로 명성을 누리던 시벨리우스가 작곡한 유일한 협주곡으로, 북유럽 특유의 서늘한 정취와 더불어 낭만적 열정을 토로하는 오케스트라와 독주 바이올린의 앙상블이 특징이다. 부산시립교향악단은 양인모와의 협연무대에 이어 2부에서는 '시벨리우스의 전원 교향곡'으로 불리는 '교향곡 제2번'을 들려준다.

- 지휘/최수열
- 바이올린/양인모(2022 올해의 예술가)

과르텟 BCMS 정기연주회 BCMS X EWHA

일 시 | 5월 13일 금요일 오후 7:30 **챔버홀**
문 의 | 과르텟 BCMS 010-6295-8552



부산을 대표하는 앙상블인 부산체임버뮤직소사이어티가 창단한 과르텟 BCMS 정기연주회. 부산대학교 교수이자 부산체임버뮤직소사이어티 리더로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김동욱을 예술감독으로, 한국예술종합학교 겸임교수이자 조이오브스트링스 수석단원, 부산체임버뮤직소사이어티 수석단원으로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조혜운, 영남대학교 겸임교수이자 경북도립교향악단 수석, 부산체임버뮤직소사이어티 수석단원인 비올리스트 최영식,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재원 및 부산예술중·고에 출강하고 있는 첼리스트 홍승아로 구성된 과르텟 BCMS는 이번 무대에서 이화여자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인 피아니스트 계명선, 소프라노 김은희와 함께 5월에 어울리는 화려한 곡들로 무대를 채운다.

겸임교수이자 조이오브스트링스 수석단원, 부산체임버뮤직소사이어티 수석단원으로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조혜운, 영남대학교 겸임교수이자 경북도립교향악단 수석, 부산체임버뮤직소사이어티 수석단원인 비올리스트 최영식,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재원 및 부산예술중·고에 출강하고 있는 첼리스트 홍승아로 구성된 과르텟 BCMS는 이번 무대에서 이화여자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인 피아니스트 계명선, 소프라노 김은희와 함께 5월에 어울리는 화려한 곡들로 무대를 채운다.

부산시립극단 특별공연 가족뮤지컬 미운오리새끼

일 시 | 5월 13일(금)-6월 4일(토) 토요일·공휴일 오전 11:00, 오후 2:00(평일 단체공연, 일요일 공연없음) **사랑채극장**
입장료 | 전석 1만원(전연령 관람가)
문 의 |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지난해 9월, 부산시립극단 특별공연으로 무대에 올려져 많은 사랑을 받았던 가족뮤지컬 '미운오리새끼'.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다시 한번 관객과 만나는 이번 무대는 안데르센 동화 중에서도 가장 널리 알려진 작품으로, '미운오리새끼'가 가진 여러 다양한 해석 중에서도 전통적 해석 중 하나인 '자아찾기'를 현대적 시각으로 풀어본다.

- 원작/안데르센
- 각색/신서영
- 작사, 연출/김지용
- 작곡/진소영
- 음악감독/김성복
- 반주/이현주, 이소진
- 안무, 움직임연출/홍종민

아르텔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함께하는 사랑의 송가

일 시 | 5월 14일 토요일 오후 7:00 **대극장**
입장료 | R석 10만원, S석 7만원, A석 5만원, B석 3만원
문 의 | 아르텔필하모닉 오케스트라 010-6209-9990



사회복지법인 단우복지재단이 나눔과 실천의 사회공헌음악회로 마련하는 '사랑의 송가'. 프랑스로 협동조합을 뜻하는 단어로, 취약계층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구성된 오케스트라 협동조합인 아르텔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함께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소프라노 이은경, 테너 김화정, 정태성, 바리톤 박정민, 그리고 정통 클래식은 물론 뮤지컬, 재즈 등 다양한 음악적 시도로 대중과 만나온 아트라스(Art-las), 마술사 함현진이 출연, 다채로운 클래식 무대와 매직쇼로 관객들에게 위로와 힐링의 무대를 선사한다.

- 지휘/윤현진

(재)부산문화회관 특별강좌 세기의 기증, 이건희 컬렉션 이건희 컬렉션수집과 기증 그리고 미술관의 역할

일 시 | 5월 14일 토요일 오후 2:00 **챔버홀**
입장료 | 전석 1만원
문 의 |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지난해 '세기의 기증'으로 주목 받아 큰 화제를 모으고 있는 '이건희 컬렉션'과 관련하여 국립현대미술관 김준기 학예실장을 초청하여 마련한 특별한 강좌 '세기의 기증, 이건희 컬렉션'. 이번 강좌는 삼성가의 미술품 수집스토리에서부터 컬렉션과 기증, 뮤지엄의 새로운 역할 뿐만 아니라 주요 기증 작품인 한국근현대미술 명작들을 살펴보는 시간으로, 두 번째 강좌에서는 해외의 대표적인 미술품 컬렉션 사례들을 통해 수집과 기증문화의 중요성을 살펴보고 이건희 컬렉션이 기증문화와 박물관문화를 활성화하는데 얼마나 의미있는 일인지를 알아본다.

히사이시 조 영화음악 콘서트 2022

일 시 | 5월 15일 일요일 오후 5:00 **대극장**
 입장료 | R석 12만원, S석 9만원
 A석 6만원, B석 4만원
 문 의 | 위클래스 070-4190-12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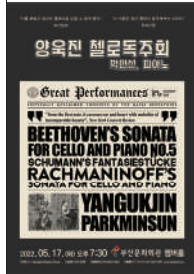
영화음악의 거장 히사이시 조의 베스트 컬렉션을 만날 수 있는 '히사이시 조 영화음악 콘서트' 2022년 무대.

이번 무대는 히사이시 조의 영화&애니메이션 음악을 70인조 풀편성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할 수 있는 영화음악 콘서트로, 특히 올해는 공연을 찾았던 팬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원령공주', '붉은 돼지'의 유명 수록곡들이 새롭게 추가되었다.

- 지휘/김재원
- 연주/WE필하모닉 오케스트라
- 출연/김재원(피아노), 김영준(바이올린), 고관수(오보에), 배성우(첼로)

양옥진 첼로 독주회

일 시 | 5월 17일 화요일 오후 7:30 **첼버홀**
 입장료 | 전석 2만원(ticket.interpark.com)
 문 의 | IPB 070-8018-8303



뉴욕콘서트리뷰로부터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소리와 멜로디가 나의 귀와 가슴을 어루만졌다'고 호평받은 첼리스트 양옥진 독주회.

미국 모리스주립대학교 교수, 부산시립교향악단 수석, 서울시립교향악단 객원수석을 역임한 후 현재 인제대학교 교수로 있는 양옥진은 매년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독주회를 가져왔으며, KBS 오케스트라, 부산시립교향악단, 강남심포니오케스트라 등과의 협연무대를 통해 수준높은 음악을 선사해왔다.

관객들과 보다 가깝게 소통하고자 공연장을 첼버홀로 정한 양옥진은 이번 무대에서 낭만음악의 시작을 알리는 베토벤 소나타 제5번을 시작으로 슈만의 환상소곡집을 거쳐 첼로소나타의 진수인 라흐마니노프 소나타를 피아니스트 박민선과 함께 들려준다.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극단 돌파구 XXL레오타드 안나수이 손거울

일 시 | 5월 19일 목요일 오후 2:00,
 20일 금요일 오후 2:00, 7:30 **중극장**
 입장료 | R석 3만원, S석 2만원
 (중학생 이상 관람,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 의 |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ARS 1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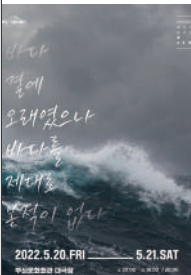
과도한 생존경쟁 끝자락에서 마주하는 우정과 무한경쟁 사회에 던지는 따뜻한 위로가 담긴 연극 'XXL레오타드 안나수이 손거울'.

지난 2015년 청소년 연극 전문 축제인 'ASAC B' 성년 페스티벌에서 초연된 후 서울과 안산, 대전 등 꾸준한 무대에 오르면서 평론가와 관객들로부터 많은 호평을 받은 작품으로, 이번 무대에서는 변화된 한국사회와 청소년들에게 집중하면서 작품 속 청소년, 젠더, 소수자, 인권 등에 대한 새로운 질문을 던진다.

- 작가/박찬규
- 연출/전인철

부산시립무용단 제85회 정기공연 부산, 40계단 바다 곁에 오래였으나 바다를 제대로 본적이 없다

일 시 | 5월 20일 금요일 오후 8:00,
 21일 토요일 오후 4:00, 8:00 **대극장**
 입장료 | R석 3만원, S석 2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2023년 창단 50주년을 맞는 부산시립무용단이 새로운 50주년을 준비하며 부산시립무용단 고유의 색깔을 다듬고, 부산의 이야기에 집중하고자 마련한 2022년 첫 정기공연

전쟁과 함께 시작된 피란민들의 삶과 애환이 남아있는 부산 40계단 이야기를 춤으로 표현한 작품으로, '만남'과 '그리움'과 같은 인간의 소원과 성장의 이야기를 다룬다. 특히 술한 사연과 세월에 피어난 상처투성이들의 춤과 영혼들의 만남은 드라마틱한 움직임과 음악, 설치/조형의 미술과 영상과 융합하여 새로운 형태의 댄스시어터로 드러난다.

경남 오케스트라 클립 피아노 듀오 콘서트

일 시 | 5월 22일 일요일 오후 4:00 **첼버홀**
 문 의 | 경남 오케스트라 클립 010-2598-5004



시명진은 중앙대학교 피아노과 및 동대학원 석사 과정을 졸업하고 이태리 G. Spontini 공립음악원 박사과정을 수료했으며, 현재 부산 피아노연주가 클럽 회원, 고신대학교 외래교수로 있다. 하수연은 이태리 G. Spontini 공립

음악원 박사과정을 졸업하고 고신대학교 대학원 초빙교수로 있으며, 조가희는 중앙대학교 피아노과 및 동대학원 석사과정을 졸업하고 오산 청소년합창단 반주자, 코리안 챔버 오페라 반주자를 역임한 바 있다. 박혜라는 중앙대학교 피아노과와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을 졸업하고 브니엘예술고등학교 강사, 고신대학교 외래교수를 역임했으며, 권윤아는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을 졸업하고 (사)루체디무지가 회원, 경남 더샵 오케스트라 정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특별연주회 2022 솔로리스트들의 축제

일 시 | 5월 24일 화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전석 2천원
 문 의 |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부산지역 유망 연주자들의 등용문인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2022 솔로리스트들의 축제'.

미래의 음악계를 이끌어 갈 능력 있는 음악인을 발굴, 육성하기 위해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이 매년 마련하는 특별한 무대로, 지난 3월 협연자 선정 오디션을 통해 선발된 차세대 연주자 7명이 관객과 만난다.

- 지휘/이명근(수석지휘자)
- 협연/최예린(바이올린, 인제대학교 대학원 졸업), 김선영(바이올린, 창원대학교 대학원 졸업), 송예빈(비올라, 부산대학교), 정예빈(첼로, 부산대학교), 조윤서(플루트, 인제대학교), 신예은(호른, 동아대학교), 윤경현(피아노, 버클리음대)

김미성 피아노 리사이틀 Prokofiev&Revolu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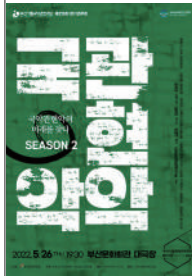
일 시 | 5월 25일 수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전석 2만원(학생 50% 할인)
 문 의 | 아트뱅크코리아 442-1941



2019년 독일에서 귀국 후 독주, 협연, 실내악 등 다양한 장르에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피아니스트 김미성 독주회. 아름다운 음색과 음악적 해석력이 뛰어나다는 호평을 받은 김미성은 독일 슈투트가르트 국립음대와 데트몰트 국립음대 석사, 마인츠 국립음대 최고연주자과정을 졸업했으며, 재학 당시 DAAD 독일 학술교류처 장학금, Erika Heintzeler의 장학금 및 Dr. Carl Dorken Stiftung재단의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현재까지 재단 소속 연주자로 유럽에서 활동 중이다. 이번 무대에서는 20세기를 대표하는 러시아 작곡가 프로코피예프의 소나타 제2번과 제3번, 그리고 난곡 중의 난곡으로 꼽히는 소나타 제8번을 들려준다.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제215회 정기연주회 국악관현악 시즌 II

일 시 | 5월 26일 목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R석(1층) 1만원, S석(2층) 5천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 의 |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동시대 작곡가들의 작품들 중 최고의 작품을 엄선하여 들려주는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국악관현악 시즌' 두 번째 무대. 수석지휘자 김종욱이 지휘하고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현악 악장 김혜진(가야금), 조이오브스트링

스 수석단원으로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조혜운의 협연으로 다양한 창작국악곡을 들려준다.

프로그램

- 김백찬/순국의 혼 [부산 초연]
- 이정호/강태홍류 가야금산조 협주곡 '시간의 흐름' [초연]
- 김성국/바이올린 협주곡 '이별가' [부산 초연]
- 황호준/공간이동
- 이정호/국악관현악 '바다'

부산시립교향악단 기획음악회 우리아이음악회

일 시 | 5월 26일 목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전석 1만원(5세 이상 관람가,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어려서부터 클래식과 친숙해질 수 있도록 부산시립교향악단이 어린이들을 위해 마련한 맞춤 프로그램 '우리아이음악회'. 부산시립교향악단 부지휘자 이민형이 지휘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엘가의 '어린이의 방 모음곡', 라벨의 '어미거위 모음곡' 등 작곡가가 어린이들을 위해 특별히 작곡한 두 곡을 들려준다. 첫 곡인 엘가의 '어린이의 방 모음곡(Nursery Suite)'은 엘가가 만년에 작곡한 어린이를 위한 관현악 모음곡으로, 어린이를 위한 음악답게 대부분의 악장들이 밝고 쾌활하다. 라벨의 '어미거위 모음곡'은 다섯 개의 동화를 바탕으로 작곡한 모음곡으로, 어린이들의 클래식 입문용으로 즐겨 연주된다.

정은혜 피아노 독주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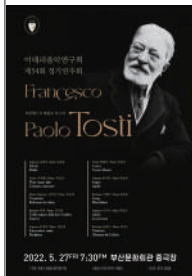
일 시 | 5월 26일 목요일 오후 7:30 **챔버홀**
 입장료 | 초대
 문 의 | MMK 예술기획 010-9411-3033



화려한 기교와 뛰어난 무대 장악력, 그리고 청아하고 깊은 음악세계를 보여주고 있는 피아니스트 정은혜 독주회.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프란츠 리스트 국제콩쿠르 심사위원장 Eugene Alcalay로부터 '그녀가 진짜 리스트안(Lisztian)이다'라는 찬사를 받으며 우승을 거머쥔 정은혜는 부산대학교에서 피아노과 연주 수석으로 졸업한 후 도미, 오스틴 텍사스 주립대학교에서 석사 및 박사과정을 졸업하고 미국 각지에서 활발한 연주활동을 펼친 바 있다. 현재 서울 외국어대학원 대학교 겸임교수로 있는 정은혜는 이번 무대에서 모차르트, 슈만, 아르보 파르트, 바버의 곡을 들려준다.

이태리음악연구회 제54회 정기연주회 프란체스코 파올로 토스티

일 시 | 5월 27일 금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전석 2만원
 문 의 | 이태리음악연구회 010-8701-8862



지난 1985년 창단된 후 매년 정기연주회와 특별 연주회, 찾아가는 음악회 등 다양한 무대를 통해 관객과 소통해온 이태리음악연구회의 54번째 정기연주회. 이번 무대에서는 당시 오페라 유행하던 이탈리아에서 한평생 가곡 작곡에만 전념하여 이탈리아 노래를 예술가곡으로 끌어올린 이탈리아 가곡의 왕 토스티의 작품을 소개한다.

- 소프라노/김민성, 윤지영, 왕기현, 이은미
- 메조소프라노/성미진
- 테너/박재화, 방현호
- 바리톤/박찬, 고영호, 김길수
- 피아노/전은령, 최승희, 최성근

테너 이태흠 귀국 독창회

일 시 | 5월 27일 금요일 오후 7:30 **챔버홀**
 입장료 | 무료
 문 의 | 예술기획아트캐넥션스 010-9810-2278



부산대학교와 이탈리아 산타체칠리아 로마 국립음악원을 졸업하고 유럽과 미국 등에서 활동을 이어온 테너 이태흠 귀국 독창회. 귀국 후 왕성한 활동을 통해 음악적 저변을 넓히며 관객과 예술을 이어주는 차세대 성악가로 주목받고 있는 이태흠은 이번 무대에서 리스트가 이탈리아 시인인 프란체스코 페트라르카의 시에 영감을 받아 세 편의 시에 곡을 붙인 '페트라르카의 세 개의 소네트'를 비롯해 푸치니 오페라 '토스카'의 아리아와 듀엣곡 등을 평소 삶에 대한 깊은 고찰을 가져온 이태흠만의 폭넓은 음악적 표현으로 들려준다.

- 사회/고민지
- 피아노/오재영
- 소프라노/김유진

부산시민회관

장정림 플루트 독주회

일 시 | 5월 28일 토요일 오후 6:00 **챔버홀**
 입장료 | 초대
 문 의 | 장정림 010-2459-4147



현재 UKO오케스트라와 부산플루트앙상블, 나눔 플루트앙상블 단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플루티스트 장정림 독주회.

경성대학교 및 동대학원 석사과정을 졸업한 장정림은 부산관현악단, 스트링스 챔버오케스트라, 부산소년소녀현악합주단, 메소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부산플루트앙상블과 협연무대를 가져왔으며, 대학원 시절에는 오스트리아 비엔나 대사관 초청으로 UKO오케스트라와 협연한 바 있다. 장정림은 현재 해강초등학교, 부산예술고등학교에 출강하며 후진양성에도 힘쓰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근대 플루트의 기반을 닦은 프랑스 출신의 뛰어난 플루티스트이자 작곡가였던 타파넬을 비롯해 포레, 펠트, 고베르, 비도르의 작품을 들려준다.

- 피아노/이주연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2022 시민뜨락축제

일 시 | 4월 22일(금)-5월 20일(금)
 매주 금요일 오후 12:20 **야외광장**
 입장료 | 무료
 문 의 |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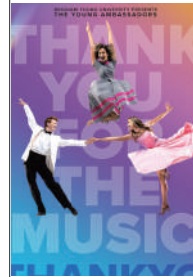
(재)부산문화회관이 시민들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위해 마련하는 대표적인 야외무대축제 '2022 시민뜨락축제'.

매년 봄과 가을 펼쳐지는 '시민뜨락축제'는 그동안 일상적 공간에서 다채로운 무대를 선보이면서 부산시민회관이 '시민들의 유쾌한 문화놀이터'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많은 사랑을 받아왔다.

일정
 5월 6일(금) 퓨전국악밴드 비원, Project A
 5월 13일(금) 이괄림 앙상블, 어쿠스틱 나무의자
 5월 20일(금) 부산시립합창단

BYU 영 앰버서더스
2022년 한국 투어

일 시 | 5월 5일 목요일 오후 4:00 **대극장**
 입장료 | R석 2만원, S석 1만5천원, A석 1만원
 문 의 | BYU 영 앰버서더스 한국 투어 홍보팀
 02-2038-2548



미국의 명문 사립대학인 브리검 영 대학교의 뮤지컬 공연그룹 '영 앰버서더스(Young Ambassadors)'의 무대.

지난 1970년 일본 오사카에서 개최된 엑스포 공연을 시작으로 52년간 68개국 순회공연을 통해 전 세계 사람들과 소통해온 영 앰버서더스는 지난 2002년 한국을 첫 방문한데 이어 2009년과 2015년 한국에서 공연을 가진 바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에 대한 소중함과 감사함을 아름다운 음악과 노래, 그리고 댄스를 통해 나눈다.

- 예술감독/네이션 발저

경희댄스시어터
박재현의 안무노트

일 시 | 5월 29일 일요일 오후 5:00 **중극장**
 입장료 | 전석 2만원(사전예약시 50% 할인)
 문 의 | 경희댄스시어터
 010-4165-7136, 010-2691-7327



지난 2016년 창단 후 실험적인 무대와 시도되지 않은 움직임 연구, 지역적 특색을 살린 공연으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경희댄스시어터의 무대.

이번 무대에서는 안무자 박재현이 그동안 창작한 작품 중 많은 호평을 받았던 '굿모닝 일동씨-슬픔에 관하여(제16회 AK21 국제안무가 육성공연 그랑프리 수상), '고독-그곳엔 사랑이 없다(제2회 금정산 생명문화축전 전국 춤 경연 이정희상 수상), '인어공주를 위하여-편견(제28회 부산무용제 우수상 및 안무상 수상)' 등 세 작품을 새롭게 선보인다. 안무자 박재현은 제3회 문화올림픽 세계 델픽대회에서 한국인 최초 은메달을 수상한 바 있다.

- 안무, 연출/박재현

극단 이야기 제42회 정기공연
슬픔이 찬란한 이유

일 시 | 5월 6일 금요일 오후 7:30,
 7일 토요일 오후 4:00 **소극장**
 입장료 | 전석 3만원
 문 의 | 극단 이야기
 010-4221-5033, 010-8502-46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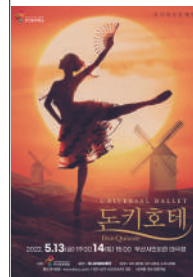
어떠한 이유에서든 삶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긍정의 메시지를 전하는 극단 이야기 '슬픔이 찬란한 이유'.

'2021 제12회 전국창작회곡 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한 '슬픔이 찬란한 이유'는 대사의 리드미컬한 음악성과 장면의 유기적 연결을 통해 쌓아올리는 주제 의식을 보여줘 당시 심사위원들로부터 호평을 받은 바 있다.

• 작/김숙경 • 연출/박현형
 • 출연/양진철, 박현, 안성혜, 배진만, 손미나, 이동희, 임선미, 엄준필, 장민, 장현준, 박영준, 한혜민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유니버설발레단 돈키호테

일 시 | 5월 13일 금요일 오후 7:30,
 14일 토요일 오후 3:00 **대극장**
 입장료 | VIP석 8만원, R석 6만원, S석 4만원
 (48개월 이상 관람,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ARS 1번)



세르반테스의 소설 '돈키호테 데 라만차'를 바탕으로, 19세기 발레 음악의 가장 루드비히 민쿠스의 음악과 고전발레의 아버지라 불리는 마리우스 프티파의 안무로 탄생된 발레 '돈키호테'는 원작과 달리 가난하지만, 젊은 이발사 바질과 매력 넘치는 선술집 주인의 딸 키르리의 유쾌한 사랑 이야기를 담고 있다.

특히 지중해의 낭만과 스페인의 정취가 녹아든 무대와 의상, 유머 넘치는 캐릭터들이 벌이는 좌충우돌 해프닝, 그리고 그 안에서 펼쳐지는 스페인풍의 화려하고 테크닉 넘치는 춤들이 시종일관 관객들을 사로잡는다.

KNN 방송교향악단 제4회 정기연주회 서희태 상임지휘자 취임음악회

일 시 | 5월 17일 화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VIP석 10만원, R석 7만원
 S석 5만원, A석 2만원
 문 의 | KNN 방송교향악단 850-9568



부산, 경남 지역을 대표하는 KNN방송교향악단이 마련하는 제4회 정기연주회.
 지난 2016년 창단한 KNN방송교향악단은 매년 경남을 순회하며 대중에게 클래식 연주를 선보이는 '더 클래식 경남'을 비롯해 부산, 경남의 문화단체와 기업이 주최하는 수많은 문화행사에 참여하여 지역의 문화발전에 기여해오고 있다.
 특히 이번 무대는 최근 KNN 방송교향악단 음악감독 겸 상임지휘자로 취임한 지휘자 서희태의 취임음악회로,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수석 첼리스트 세바스티안 브루를 비롯 소프라노 조선희, 메조소프라노 양송미, 테너 이범주, 바리톤 최중우가 출연, 1부 멀티플레이 KNN방송교향악단,

2부 '오페라&발레전문 오케스트라 KNN방송교향악단'이라는 주제로 화려한 무대를 펼친다.
 2부에서는 아이다 역에 조선희, 암네리스 역에 양송미, 라다메스 역에 이범주, 아모나로스 역에 최중우가 맡아 이집트 장군 라다메스와 에티오피아 공주 아이다와의 비극적인 사랑을 그린 베르디 오페라 '아이다'를 갈라무대로 선보인다.
 지휘자 서희태는 지난 2008년 인기리에 방송되었던 MBC 미니시리즈 '베토벤 바이러스'의 예술감독을 맡아 드라마의 성공을 이끌었으며, KBS '클래식 오디세이', '열린음악회'와 같은 정통 음악방송 외에도 EBS '세계테마기행', tvN '오페라스타', SBS '스타킹' 등 다양한 방송활동으로 클래식음악의 대중화를 이끄는 데 앞장서 왔다.
 특히 인문학과 리더십분야에서 인정받는 전문 강사로 jtbc '차이나는 클라스', EBS '통찰', '세바시'와 같은 강연 프로그램과 KMA(한국능력협회) 클래식아트경영 최고경영자과정 리더멘토로 강연활동을 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여 (사)한국강사협회로부터 '명강사로 선정된 바 있다.'
 서희태는 현재 (사)뉴서울필하모닉오케스트라 음악감독 겸 수석지휘자, (사)한국오페라단 음악감독을 맡고 있다.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2022 디즈니 인 콘서트: Beyond The Magic

일 시 | 5월 21일 토요일 오후 5:00 **대극장**
 입장료 | VIP 10만원, R석 8만원, S석 6만원,
 A석 4만원(48개월 이상 입장 가능, 부산 문화회관 정기회원 10% 할인)
 문 의 |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디즈니 공식 라이선스 프로젝트로, 디즈니의 애니메이션에 삽입되었던 히트곡들을 콘서트 무대에서 만날 수 있는 '디즈니 인 콘서트'.
 생동감 넘치는 대형 스크린에 펼쳐지는 디즈니 오리지널 영상과 지휘자 정한결이 지휘하는 60인조 디토오케스트라가 만들어내는 웅장한 사운드와 화려한 조명, 그리고 국내 최고 뮤지컬 배우들로 구성된 디즈니 싱어즈의 강렬한 노래로 관객들을 사로잡는다.
 • 디즈니 싱어즈/뮤지컬배우 정동화, 홍경아, 박시인, 유효진

프로이데 뮤직스토리 콘서트 읽어주는 음악회 엘리스의 유럽여행

일 시 | 5월 21일 토요일 오후 3:00 **소극장**
 문 의 | 프로이데 010-2850-6424

고신대학교 대학원 피아노교수학 교수 및 학생들과 부산에서 활동하고 있는 음악인들로 구성된 전문연주단체 프로이데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마련한 무대.
 누구나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림동화를 음악과 함께 들려주는 이번 무대에서는 특히 미국의 슈베르트라고 일컫는 현대작곡가 W. Gillock의 알려지지 않은 감미로운 선율의 작품들을 소개한다.
 • 음악감독/금찬이(고신대학교 음악과 객원교수)
 • 연주/김태윤, 이수정, 박소진, 강유진, 안효은, 남근영, 김해경, 류희성, 박지현, 안지영, 양다운, 엄연령, 옥예진, 이은정, 이송이, 이현진, 허지영, 윤수빈, 이현진, 김혜린, 김현신, 이재민

부산시민회관 2022 문화가 있는 날 배시시 명품극장 스냅

일 시 | 5월 25일 수요일 오후 7:00 **소극장**
 입장료 | 무료(지정좌석제, 5세 이상 관람가)
 문 의 |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재)부산문화회관이 예술의전당 우수 공연 콘텐츠를 공연장 대형 스크린을 통해 상영하는 2022 문화가 있는 날 '배시시 명품극장'.
 5월 상영회에서는 온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미스터리 퍼포먼스 '스냅'

을 선보인다.
 동화적인 스토리텔링을 바탕으로 마임, 그림자아트, 미디어아트, 신체극 등을 마술과 결합한 '스냅'은 지난 2016년 에든버러 프린지페스티벌에서 베스트 프로덕션상을 수상하고 2019년 브로드웨이 42번가 뉴빅토리의 공식초청을 받아 무대에 오르는 등 마술의 장르적 한계를 뛰어넘는 예술성과 작품성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한·오수교 130주년 기념 2022 빈 심포니 내한공연

일 시 | 5월 31일 화요일 오후 7:00 **대극장**
 입장료 | R석 25만원, S석 18만원,
 A석 12만원, B석 5만원
 문 의 | 더블유씨엔코리아(주) 02-2183-1290



'음악의 도시' 오스트리아 빈을 대표하는 전통과 명성을 자랑하는 빈 심포니 내한공연.
 리하르트 슈트라우스, 브루노 발터, 빌헬름 푸르트벵글러,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 등 수많은 명장들이 거쳐간 명실공히 유럽 최고의 오케스트라로, 세계적인 음악페스티벌 초청과 해외 투어 공연을 매년 진행하고 있다.
 이번 무대는 현재 빈 심포니 음악감독으로 있는 지휘자 안드레스 오로스코 예스트라다가 지휘하고 오늘날까지도 세계적인 명성을 이어가고 있는 거장 피아니스트 예뎜 브로프만이 협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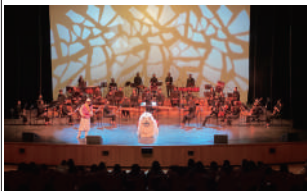
음악

부산예술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한 해설이 있는 예술여행

일 시 | 5월 3일 화요일 오전 10:00
 을숙도문화회관 대공연장
 문 의 | 을숙도문화회관 220-5811

 코로나 팬데믹이 장기화되면서 수학여행을 갈 수 없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어 많은 사랑을 받았던 을숙도문화회관 해설이 있는 예술여행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춘 상세한 해설로 진행되는 이번 무대에서는 40인조 양악·국악 연합오케스트라의 연주, 첼리스트 홍승아의 협연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사한다.

프로그램
 흥동기/고구려의 훈
 이경섭/타(打)
 양방언/프론티어 등 수곡



제486회 가람화요초청음악회 오월의봄, 사랑의설렘을 노래하다

일 시 | 5월 3일 화요일 오후 7:00
 가람아트홀
 입장료 | 전석 2만원(네이버 예약)
 문 의 | 가람아트홀 621-6669, 010-2113-8604



가람아트홀이 아름다운 계절 5월을 맞아 마련한 제486회 가람화요초청음악회. 이번 무대에서는 피아니스트 나누리와 플루티스트 박은지가 출연, 봄의 서정과 잘 어울리는 다채로운 곡을 들려준다.

플루티스트 박은지는 미국 이스트만 음대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석사과정을 수료한 후 현재 한국플루트협회 이사, 모스틀리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부수석으로 있다. 피아니스트 나누리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실기수석 입학 후 도독, Hochschule fur Musik 'Carl Maria von Weber'에 우수입학(석·박사과정), 오스트리아 모짜르테움 국립음악원을 수료하고 현재 EnoB 음악감독 및 전문연주자로 활동하고 있다.

프로젝트 앙상블 Flute'z 제9회 정기연주회

일 시 | 5월 6일 금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은빛샘홀
 입장료 | 초대
 문 의 | 프로젝트 앙상블 Flute'z 010-5327-6025



매년 다양한 플루트 앙상블로 플루트의 매력을 전하고 있는 프로젝트 앙상블 Flute'z의 9번째 정기연주회.

프로젝트 앙상블 Flute'z는 신라대학교 초빙교수, 동의대학교 외래교수로 있으며 부산예술중·고등학교에 출강하고 있는 플루티스트 전은지를 리더로 그동안 다양한 무대를 통해 관객과 만나왔다. 이번 무대에서는 바흐와 쿨라우, 멘델스존, 비제, 그리그 등 우리 귀에 친숙한 곡을 플루트 앙상블만의 색다른 연주로 감상할 수 있다.

- 연주/전은지, 김성민, 김고은, 임경옥, 오은지, 김윤아, 장진서, 최지현, 서정연, 정유리, 변이진

바이올린 앙상블 MORAN 제2회 정기연주회

일 시 | 5월 7일 토요일 오후 5:00
 금정문화회관 은빛샘홀
 입장료 | 초대
 문 의 | 바이올린 앙상블 모란 010-3489-1790



창원시립교향악단 악장이자 인제대학교 겸임교수로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이리나를 중심으로 그녀의 제자들로 창단한 바이올린 앙상블 MORAN의 두 번째 정기연주회.

지난 2020년 창단한 부산, 경남의 유일한 바이올린 앙상블팀인 MORAN은 화려하면서도 여유와 품위를 가진 모란꽃처럼 서로 다양한 매력을 가진 연주자들이 클래식은 물론 현대음악, 더 나아가 크로스오버를 통한 다양한 레퍼토리를 MORAN만의 색깔로 들려줄 예정이다.

- 연주/이리나, 김소연, 장혜진, 강혜원, 이고운, 김가영, 김윤정, 최예린, 김영아, 김하영, 김지현
- 게스트/피아니스트 박민선

필슈파스 콘서트홀 기획연주 광안살롱 위켄드

일 시 | 5월 7일(토), 21일(토) 오후 7:00
 필슈파스 콘서트홀
 입장료 | 전석 2만원
 문 의 | 필슈파스 콘서트홀 010-6284-6357,
https://pf.kakao.com/_cLRxf5

 매월 첫 번째, 세 번째 주 토요일 저녁, 광안리 필슈파스 콘서트홀에서 열리는 '광안 살롱 위켄드'. 독일어로 '즐거자'라는 뜻을 지닌 '필슈파스'는 연주자와 관객이 함께 소통하며 음악의 순간을 즐기는 공간이 되길 바라며 붙인 이름으로, 클래식 공연 입문자를 위한 대중적인 공연에서부터 클래식 매니아들에게 다양한 영감을 제공할 수 있는 높은 수준의 무대까지 부산의 클래식 대중화를 위해 운영되고 있다.

필슈파스 콘서트홀의 대표적인 기획공연인 '광안 살롱 위켄드'는 휴식이 필요한 주말, 광안리에



서 즐기는 살롱콘서트로, 다양한 장르의 실력있는 아티스트들의 다채로운 무대가 펼쳐진다.

7일 라우네앙상블 첫번째 트리오 연주회
 바이올리니스트 박은경, 피아니스트 이수정, 드럼 주자 정종혁으로 구성된 라우네앙상블의 첫 연주회로, 클래식에서부터 재즈, 크로스오버, 팝 등 다채로운 무대를 선사한다.

프로그램
 맥스 로치/Conversation
 드뷔시/달빛
 베토벤/바이올린소나타 제5번 등 수곡



21일 Ensemble selah '피아노로 만나는 앙상블 음악'
 피아니스트 김채은, 박유경, 이정원, 최소윤으로 구성된 피아노앙상블 셀라의 무대로 모차르트, 슈베르트, 드뷔시, 라벨의 1Piano 4hands 곡을 들려준다.

프로그램
 모차르트/반짝반짝 작은 별
 슈베르트/판타지 바단조 D.940
 드뷔시/작은 모음곡 L.65
 라벨/라 발스

제37회 짜장콘서트 한국 민요의 재발견 백년의 사랑, 천년의 노래

일 시 | 5월 7일 토요일 오후 4:00
 동아대학교 석당박물관
 입장료 | 사전예약(선착순 50명)
 문 의 | 음악풍경 010-3091-1524



올해부터 '음악과 역사의 만남'이라는 테마로 관객과 만나고 있는 전문예술단체 음악풍경의 짜장콘서트.

이번 무대에서는 한국민요를 편곡한 노래, 혹은 민요적 성격을 띤 한국가곡 가운데 널리 알려지거나 널리 알려야 할 노래를 엄선해 선보인다. 특히 작곡가 박동규, 최석태, 진소영이 전통민요를 기악곡으로 변주한 편작음악을 처음 들려준다.

- 소프라노/박현진, 왕기현
- 테너/장지현, 김준연
- 연주/프로무지카(바이올린 원아름, 첼로 문혜정, 피아노 정은희)
- 해설/이진이

을숙도문화회관 예술공감

일 시 | 5월 10일(화), 24일(화) 오후 7:30
 을숙도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전석 5천원(예매시 20% 할인)
 문 의 | 을숙도문화회관 220-5811



을숙도문화회관이 지역 예술인들에게 무대에 설 기회를 제공하고 시민들에게는 다양한 공연예술을 선사하기 위해 마련하는 '예술공감' 5월 무대.

10일(제8회) 폴리포니기타듀오와 함께하는 힐링콘서트

기타리스트 서승완, 김경태로 구성된 폴리포니기타듀오와 함께하는 힐링무대.

지난 2005년 결성된 후 그동안 클래식 및 영화음악, 국악, 남미무곡 등 장르를 넘나드는 다양한 연주를 펼치고 있는 폴리포니기타듀오는 특히 지난 2012년과 2015년, 2016년 통영 윤이상 국제음악제 프린지에 참가하여 'Rising Star'로 선정된 바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주로 오케스트라 곡으로 연주되는 '아랑훼즈 협주곡'을 비롯해 우리 귀에 친숙한

다양한 곡을 통해 코로나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시민들에게 힐링의 무대를 선사한다.

프로그램

Cavatina, Fantasia para 2 Guitarras, Concierto de Aranjuez 'Adagio

24일(제9회) 샌드아트와 음악 만들기

전문문화예술단체인 문화예술어깨동무가 펼치는 샌드아트와 함께하는 특별한 무대.

생상의 '동물의 사육제'를 테마로 한 샌드아트와 다양한 연주로 관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문화예술어깨동무는 공연과 문화예술교육을 전문적으로 진행하는 문화예술단체로 기악, 성악, 관현악, 국악, 샌드아트 등 관객의 눈높이에 맞춘 무대를 제작, 무대에 올리고 있다.

- 피아노/안선애, 이화영선
- 테너/김성진
- 소프라노/설은경
- 가야금/박보경
- 샌드아티스트/김상식

제62회 부산피아노듀오협회 정기연주회

일 시 | 5월 10일-11일 화-수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금빛누리홀
 입장료 | 초대
 문 의 | 부산피아노듀오협회
 010-3815-3190, 010-3596-1964



지난 1990년 원로 피아니스트 제갈삼 명예교수를 중심으로 국내에서 최초로 창단된 피아노듀오단체인 부산피아노듀오협회 정기연주회.

부산피아노듀오협회는 매년 두차례 정기연주회와 해외 초청연주회를 통해 피아노 듀오음악의 보급과 활성화에 힘써왔다.

10일 박지은&전소영 듀오연주회

11일 듀오연주회

- 연주/나광자, 최윤희, 조현선, 김소형, 김영실, 심하정, 성민주, 고영주, 윤민화, 손영주, 정은화, 서보람, 장서희, 김주원, 윤지현, 정은혜, 강한솔

5월 금정수요음악회

일 시 | 매주 수요일 오후 7:30(4월 공연없음)
 금정문화회관 은빛샘홀
 입장료 | 전석 1만원
 문 의 | 금정문화회관 519-5664

매월 다채로운 장르의 무대로 관객과 만나는 금정수요음악회 5월 무대.



11일(777회) 리더비트 제3회 정기연주회

소프라노 강수영, 설은경, 메조소프라노 이지영, 테너 김성진, 바리톤 김중화, 조규희, 피아니스트 강대현, 박소미, 주은정이 독일 클래식 3B로 불리는 작곡가 바흐와 베토벤, 브

람스의 곡을 들려준다.

프로그램

바흐/커피칸타타 BWV 211
 베토벤/멀리 있는 연인에게 작품 98
 브람스/사랑의 노래 왈츠 작품 52

18일(778회) 주빌레 클라리넷 앙상블 '라틴 클라리넷 음악여행'

지난 2016년 2월 창단연주회를 가진 후 클라리넷



선율의 매력을 전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쳐온 주빌레 클라리넷 앙상블의 무대.

이번 무대에서는 흥겨운 라틴음악을 클라리넷 앙상블 연주로 감상할 수 있다.

- 연주/최우선, 최연주, 박관희, 황수빈, 윤빛나,

이난경, 임효정, 김상훈, 박예녹

- 작곡/이태현

25일(779회) 바이올리니스트 김은정, 하피스트 한혜주 듀오 리사이틀

바이올린과 하프 선율이 어우러지는 특별한 무대로 드뷔시, 앤더슨, 모차르트, 바흐, 포레 등 다양한 작곡가들의 곡을 들려준다.



오혜진 귀국 피아노 독주회

일 시 | 5월 12일 목요일 오후 8:00
 금정문화회관 은빛샘홀
 문 의 | 오혜진 010-5765-02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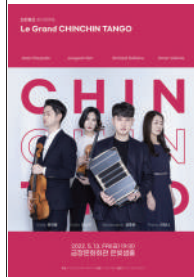


부산대학교를 졸업하고 도독, 드레스덴 국립음대 석사 최연소 졸업 및 뷔르츠부르크 국립음대 석사과정을 졸업하고 만하임 국립음대 실내악 최고 연주자과정 만점 졸업 및 음악교육학 학사 수료, 자르브뤼켄 국립음대 실내악 최고연주자과정 및 피아노 솔로 최고연주자과정을 졸업한 피아니스트 오혜진 귀국 독주회.

그동안 Padova 국제콩쿠르 1위, Citta di Barletta 국제콩쿠르 1위, 런던 Grand Prize Virtuoso 국제콩쿠르 1위 등 다수 콩쿠르에서 입상한 바 있는 오혜진은 현재 듀오 온 멤버이자 글로벌고신 영재원, 브니엘예중, 브니엘예고, 부산예중, 부산예고에 출강하며 후진양성에 힘쓰고 있다.

르 그랑 친친탱고 Le Grand CHINCHIN TANGO

일 시 | 5월 13일 금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은빛샘홀
 입장료 | 전석 1만원
 문 의 | 친친탱고 010-2107-8407



희노애락을 담고 있는 탱고음악에 매력을 느낀 작곡가 겸 반도네온 연주자 김종완, 피아니스트 이안나, 바이올리니스트 강소연, 비올리니스트 정하람으로 구성된 탱고양상블인 '친친탱고'의 2022년 첫 콘서트.

'친친(CHINCHIN)'은 영어로는 '안녕하세요'와 같은 가벼운 인사말이며, 스페인어로는 '건배', 그리고 한국어로는 '친한 친구의 줄임말로, 누구나 탱고음악을 친근하게 느낄 수 있도록 독특한 악기구성과 알찬 프로그램으로 탱고의 매력을 전 해오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탱고의 거장 아스토르 피아졸라의 'Le Grand Tango'를 중심으로 그의 대표곡을 들려준다.

영도문화예술회관 수요상설공연 onStage 국악실내악단 도시락과 함께하는 춘향가 흥취

일 시 | 5월 18일 수요일 오후 7:30
 영도문화예술회관 절영홀
 입장료 | 전석 1만원
 문 의 | 영도문화예술회관 419-5571~4



지역의 청년 국악실내악단 도시락과 함께하는 영도문화예술회관 수요상설공연.

지난 2011년 창단한 국악그룹 도시락(都是樂)은 '모두[도], 이다[시], 음악 [락]'으로 모든 것이 음악이다라는 뜻을 가진 국악단체로 타악, 가야금, 해금, 판소리, 피리, 대금, 아쟁 등 다양한 악기 연주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기존의 전통국악에 다양한 장르를 접목시켜 국악의 무한한 가능성을 바탕으로 우리음악을 대중들에게 알리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온 도시락은 이번 무대에서 도시락만의 색깔로 재해석한 '춘향가'를 통해 국악이라는 큰 울타리 안에서 다양한 음악적인 퍼포먼스를 시도한다.

(사)부산네오파하모닉오케스트라 제7회 정기연주회 베토벤 교향곡 6번 전원

일 시 | 5월 19일 목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금빛누리홀
 입장료 | R석 5만원, S석 3만원, A석 2만원
 (청소년 50%, 단체 20인 이상 30% 할인)
 문 의 | (사)부산네오파하모닉오케스트라
 070-8899-7308



부산광역시 전문예술법인단체인 (사)부산네오파하모닉오케스트라가 마련하는 이번 정기연주회. 부산의 민간 오케스트라로서는 처음으로 상근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사)부산네오파하모닉 오케스트라는 지난 2009년

7월 창단된 후 연간 40여회가 넘는 다양한 무대를 통해 관객과 소통해오고 있다. 상임지휘자 홍성택이 지휘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베토벤의 오페라 '오베론' 서곡을 시작으로 슈베르트 교향곡 제8번 '미완성'에 이어 베토벤 교향곡 제6번 '전원'을 들려준다.

한국리스트협회 부산경남지부 제12회 정기연주회

일 시 | 5월 20일 금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은빛샘홀
 문 의 | 한국리스트협회 부산경남지부
 010-8544-9810

초인적인 피아노 기교의 거장이자 교향시를 창안하여 표제음악의 장을 열었던 작곡가 리스트의 음악을 깊이 있게 연구하고 널리 알리고자 창립한 한국리스트협회 부산경남지부의 정기연주회.

프로그램
 스크리아빈 5개의 프렐류드 작품번호 16 중 1번
 쇼스타코비치/24 개의 프렐류드 작품번호 34
 마뉴엘 파야/베티가 환상곡
 마르첼로/오보에 협주곡 라단조 2악장
 엔리코 모리코네/가브리엘의 오보에 등 수록
 • 연주/황성훈, 이성현, 오수민, 이윤지 & 콰르텟, 이지선 & 손선경, 김현정 & 추교준
 • 특별출연/손양호(오보에), 김정미(반주)

제7회 굿모닝 콘서트 탱고의 역사 Histoire Du Tango

일 시 | 5월 20일 금요일 오전 11:00
 을숙도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전석 1만5천원
 (블랙업커피 포함, 예매시 20% 할인)
 문 의 | 을숙도문화회관 220-5811



공연의 여운과 커피의 향기로 두배의 기쁨을 누리는 을숙도 음악산책 굿모닝콘서트 5월 무대.

이번 무대에서는 피아졸라 서거 30주년을 맞아 다양한 장르의 젊은 예술들이 모인 '더 아티스트'가 우리 귀에서도 익숙한 피아졸라의 대표곡들을 들려준다.

- 해설/아나운서 손지현(前 MBC부산문화방송)
- 연주/황미리(플루트), 김재준(피아노), 김종완(반도네온), 김경태(클래식기타), 김대경(콘트라베이스), 이영훈(퍼커션)

성민주 피아노 클래스 콘서트

일 시 | 5월 22일(일), 28일(토) 오후 7:00
 금정문화회관 은빛샘홀
 입장료 | 초대
 문 의 | 성민주 010-3815-3190

그동안 독주회 및 실내악, 협연 등 다수 무대를 통해 관객과 만나온 피아니스트 성민주의 제자들이 마련하는 피아노 클래스 콘서트. 이화여자대학교 피아노과 실기수석으로 학사과정을 졸업한 뒤, 오스트리아 모차르테움 잘츠부르크 국립음대에서 석사 및 최고연주자과정을 졸업한 성민주는 2010년 귀국독주회를 시작으로 그동안 독주회 및 실내악 연주, 독창회·독주회 반주 등 다수 무대에서 관객과 만나왔다. 성민주는 현재 경성대학교 및 동대학원, 동아대학교, 경남대학교 외래교수로 후진양성에 힘쓰고 있다. 이번 무대는 동아대학교, 경성대학교 피아노과에 재학중인 제자들의 무대로, 그동안 갖고 닦은 실력을 선보인다.

을숙도문화회관 문화가 있는 날 부산가야금연주단 **썩의 춘몽**

일 시 | 5월 25일 수요일 오후 7:30
 을숙도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초대(초등학생 이상 관람)
 문 의 | 을숙도문화회관 220-5811



시민들이 폭넓은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도록 을숙도문화회관이 마련한 2022 문화가 있는 날 '을숙도 예술 나들이' 올해 첫 무대인 '썩의 춘몽'에서는 5월을 맞아 부산가야금연주단이 '봄에 내리는 눈'이라는 제목답게 화사하고 현란한 가야금곡인 '춘설'을 비롯해 민속악의 백미 '김병호류 가야금산조', 천년의 꿈을 이야기하는 '천년지몽', 영도의 전설을 담은 '절영의 전설' 등 대중들에게 친숙한 곡을 밝고 몽환적인 가야금 연주로 들려준다. 부산가야금연주단은 지난 2004년 창단 이후 꾸준한 활동을 이어온 부산 경남의 대표적 민간 전문예술단체로, 다양한 장르의 무대로 관객과 소통해오고 있다.

영도문화예술회관 문화가 있는 날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

일 시 | 5월 25일 수요일 오후 7:30
 영도문화예술회관 봉래홀
 입장료 | 전석 5천원
 문 의 | 영도문화예술회관 419-5571~4



Re:born 문화예술단과 함께 하는 영도문화예술회관 문화가 있는 날 '피가로의 결혼'. 모차르트의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은 풍자의 미학과 유쾌한 희극적 요소가 결합된 18세기 대표적인 오페라 부파로, 이번 무대에서는 피가로 역의 바리톤 정승화를 비롯해 소프라노 신민원(수잔나), 바리톤 한정현(알마비바 백작), 소프라노 정혜리(백작부인), 소프라노 이주민(케루비노), 테너 박호민(바질리오) 등이 출연, 특별한 무대를 선사한다.

- 연출/정승환
- 피아노/민종호
- 해설/선승일

필슈파스 콘서트홀 상설연주 **정오의 선율:12시 마티네 콘서트**

일 시 | 5월 25일 수요일 낮 12:30
 필슈파스 콘서트홀
 입장료 | 전석 1만5천원
 문 의 | 필슈파스 콘서트홀 010-6284-6357, https://pf.kakao.com/_clRxf5



연주자와 관객이 음악으로 하나되어 음악적 교감을 나누고자 다양한 공연을 무대에 올리고 있는 필슈파스 콘서트홀이 매월 상설무대로 마련하는 12시 마티네콘서트 '정오의 선율'. 클라리네티스트 이한석, 피아니스트 박다은으로 구성된 '양상블 클라온'의 연주로 진행되는 이번 무대는 점심시간 위로와 휴식이 필요한 시민들에게 편안하고 아름다운 멜로디로 공감과 힐링을 전한다. 특히 연주회에 앞서 클래식, 가요, 뉴에이지, OST 등 듣고싶은 곡을 필슈파스 콘서트홀의 카오체널과 인스타그램을 통해 댓글로도 신청할 수도 있다.

부산음악포럼 제16회 정기연주회 **가곡과 아리아의 밤**

일 시 | 5월 29일 일요일 오후 5:00
 금정문화회관 은빛샘홀
 입장료 | 초대(예약 필수)
 문 의 | 부산음악포럼 010-3885-6600, 010-9692-3973



지난 2005년 창립 후 지금까지 80여회 연주회를 통해 관객과 만나온 부산음악포럼의 16번째 정기 연주회. 전문연주자를 비롯해 생활음악인들이 함께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우리 귀에 친숙한 국내외 가곡 및 오페라 아리아를 들려준다.

- 소프라노/김경희, 정소연, 신영숙, 김성미, 진주희, 이혜원, 김정아
- 테너/양수배, 주철수, 송은섭, 정경일
- 바리톤/한성권, 황우상, 배용, 강문중, 최철영
- 클라리넷/윤수천 • 피아노/강유나

연극

연극 **보잉보잉**

일 시 | 3월 17일(목)-5월 15일(일) 평일 오후 7:30, 주말·공휴일 오후 3:00, 6:00(월요일 공연 없음) BNK부산은행조은극장 1관
 입장료 | 전석 4만원
 문 의 | (주)KNN 1588-2757



2001년 초연된 후 현재 400만명 관객을 돌파하며 신기록을 이어가고 있는 스테디셀러 연극 '보잉보잉'. 약천후로 비행기가 결항된 어느 날, 애인 중 한명인 이수가 조성기를 찾아온다. 고향친구 순성과 가정부 옥희는 조성기의 외도를 숨겨주기 위해 동분서주하지만 차꾸만 돌발상황이 발생하면서 성기의 애인 세 명 모두가 한 집에 모이게 되는 데... 대학로를 대표하는 코미디 연극 '보잉보잉'은 미모의 스텀러스 애인을 셋이나 두고 있는 바람둥이 주인공 조성기를 둘러싼 해프닝을 다루는 코미디 장르극으로,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는 코믹한 스토리가 극의 재미를 더해준다.

연극 완벽한 커튼콜

일 시 | 3월 24일(목)-5월 29일(일) 평일 오후 7:00,
주말 오후 2:30, 5:00(월요일 공연없음)
BNK부산은행조은극장 2관
입장료 | 전석 3만5천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의 | BNK부산은행조은극장 1588-2757



분장실이라는 독특한 소재와 한번에 두가지 공연을 볼 수 있는 신선한 시도, 그리고 파격적인 웃음으로 화제가 되고 있는 연극 '완벽한 커튼콜'. 연극 '설록홀츠'가 무대에 오르는 날, 분장실에서는 공연 전 준비로 정신이 없다. 드디어 작품이 무대에 오르지만, 시작부터 실수연발, 설상가상으로 무대 뒤에서는 공연은 뒷전 인체 배우들의 싸움이 시작되는데... 공연중 발생한 기상천외한 사건들로 NG를 낼 수 밖에 없는 배우들의 해프닝과 그 모습을 실제 공연으로 생각하고 즐기는 관객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지켜보는 스태프까지 실제인지 공연인지 헷갈리는 기막힌 무대가 펼쳐진다.

뮤지컬 더 나우(The Now)

일 시 | 4월 1일(금)-5월 29일(일) 평일 오후 8:00,
주말·공휴일 오후 3:00, 7:00(수요일 공연없음)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입장료 | VIP석 15만원, R석 13만원, S석 10만원
문의 | (재)영화의전당 780-6060



부산 강동시장의 한 음악 다방을 배경으로 한 뮤지컬 '더 나우(The Now)'. (재)영화의전당이 뮤지컬 전문 제작·공연단체인 일본의 '신주쿠양산박', 한국의 '신주쿠양산박'과 공동제작한 뮤지컬 '더 나우'는 우리 가요의 변천사를 담은 주크박스 뮤지컬로, 분단의 아픔과 민족의 한을 풀어냈던 트로트부터 7080 시대의 젊음을 상징한 통기타 음악, 최근의 힙합까지 한국인의 정서를 대변해 온 대중가요를 아우른다. 특히 이번 작품은 부산을 배경으로, 강동시장의 LP음악다방 '더 나우'의 대표 최순애가 음반 업계에서 겪는 성장과 배신, 사랑과 추억 등 굴곡 많은 인생사가 펼쳐진다.

뮤지컬 라이온 킹 인터내셔널 투어

일 시 | 4월 1일(금)-5월 8일(일) 평일 오후 7:30,
주말·공휴일 오후 2:00, 7:00(5/8일 오후 2:00, 월요일 공연없음) 드림씨어터
입장료 | VIP석 18만원, R석 15만원
S석 12만원, A석 9만원, B석 7만원
문의 | 클럽서비스 1577-3363



디즈니의 동명 애니메이션을 무대화한 뮤지컬 '라이온 킹' 인터내셔널 투어. 지난 1997년 11월 브로드웨이에서 초연한 이래 20개국, 100개 이상의 도시에서 1억1000만 명이 넘는 관객을 동원하는 대기록을 쓴 라이온 킹은 토니 어워즈 6개 부문을 비롯해 아카데미상, 그래미상 등 전세계 70여 개 주요 어워드를 수상한 바 있다. 특히 이번 무대는 사자를 비롯한 동물을 구현하기 위한 신체적인 표현과 배우들의 군무, 앙상블을 조화롭게 이뤘으면서도 아프리카 초원의 분위기를 재현하는 신선한 음악들로 가득 채워져 있다.

심야의 지하철 戀歌

일 시 | 5월 1일 일요일 오후 4:00, 2일-3일
월-수요일 오후 7:30 액터스소극장
입장료 | 전석 2만원(할인, 단체 1만5천원)
문의 | 부두연극단 611-6616, 010-7450-3582

부산 소극장 연극운동의 1세대 개척자로 부산 연극 부흥에 이바지해온 공로로 지난해 제64회 부산시 문화상을 수상한 연출가 이성규의 수상 기념공연 '심야의 지하철 연가'. 지난 2005년 대산대학문학상 희곡부문 수상작인 김래임의 '울고 있는 저 여자'와 스페인 작가 팔로마 페드레로의 '오늘 밤은 우리 둘뿐' 등 두 작품을 옴니버스극으로 엮은 이번 무대는 심야 지하철 승강장에서 일어나는 사랑의 상처와 고독, 욕망과 꿈을 그려낸 작품이다.

- 연출/이성규
- 출연/이동현, 이서영, 김승완, 정안지



가족뮤지컬 더 클라운

일 시 | 5월 5일 목요일 오후 2:00
금정문화회관 금빛누리홀
입장료 | 전석 2만원(만 5세 이상 관람가)
문의 | 금정문화회관 519-5661



금정문화회관이 어린이 날을 맞아 마련한 특별한 무대, 극단 벼랑끝날다의 가족뮤지컬 '더 클라운(The Clown)'. 대한민국 최고의 어린이 공연 예술축제인 '2021 아시테지 겨울축제'에서 특별상을 받으며 작품성과 대중성을 인정받은 '더 클라운'은 마음, 미술 등 대사 없이 몸짓만으로 진행되는 '년버벌 클라우닝쇼', 각양각색의 독특한 캐릭터를 자랑하는 빨간 고 광대들이 등장하여 가족, 사랑, 자유, 상상 등 4가지 주제를 통해 관객들에게 웃음과 희망을 선사한다.

- 작, 연출/이용주
- 작곡, 음악감독/심연주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 원더의 공룡대모험

일 시 | 5월 7일 토요일 오후 1:00, 4:00
영도문화예술회관 봉래홀
입장료 | 전석 2만원(36개월 이상 관람가)
문의 | 영도문화예술회관 419-5571-4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열리는 가족뮤지컬 '원더의 공룡대모험'. 이번 작품은 실제 공룡을 만나고 싶었던 미술사 원더가 오랜 연구 끝에 6,550만년 전 공룡이 살던 석기시대로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가 펼쳐지는 이야기로, 신기한 마술과 드로잉, 레이저 등 여러 장르의 퍼포먼스가 융·복합되어 가족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다. 특히 어린이들의 무한한 상상력을 자극시키기 위해 실감나는 공룡이 등장하면서 관객들의 눈길을 사로잡는다.

해피 데이즈

일 시 | 5월 11일-13일 수-금요일 오후 7:30,
14일 토요일 오후 4:00 **액터스극장**
입장료 | 전석 3만원(할인, 단체 1만5천원)
문 의 | 부두연극단 611-6616, 010-7450-3582



그동안 '마지막 테이프', '대사 없는 1막', '고도를 기다리며', '승부의 종말', '쓰러지는 모든 것들' 등 베키트의 주요 작품들을 소개, 베키트 극 전문가로 불리는 연출가 이성규의 베키트 연작 시리즈 마지막 무대 '해피 데이즈'.

아일랜드 출신의 시인이자 소설가, 극작가로, 현대 연극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무엘 베키트는 인간의 삶에 대한 부조리를 독특한 문체와 방식을 통해 극적으로 표현한 작품을 선보이며, 지난 1969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다. 연출가 이성규는 이번 무대에서 흠뻑이 허리까지 문힌 주인공 위니가 목까지 파묻히며 내뿜는 인간 존재의 아이러니한 상황을 코믹 터치로 보여 준다.

- 출연/황미애, 박창하

뮤지컬 하데스타운

일 시 | 5월 20일(금)-29일(일) 금요일 오후 7:30,
주말 공휴일 오후 2:00, 7:00 **드림씨어터**
입장료 | VIP석 15만원, R석 13만원
S석 10만원, A석 7만원
문 의 | 클립서비스 1577-33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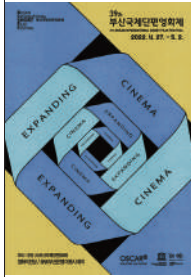


2019년 제73회 토니어워즈 '최우수작품상', 2020년 제62회 그래미어워즈 '최고 뮤지컬 앨범상', 2021년 한국뮤지컬어워즈 '대상' 등을 수상한 뮤지컬 '하데스타운'. 지난 2019년 브로드웨이 초연 이후 전 세계 최초 라이선스 공연으로, 지난해 9월 서울에서 막을 올린 후 높은 완성도와 배우들의 열연으로 '올해의 뮤지컬'이라는 호평이 쏟아졌다. '하데스타운'은 사랑하는 사람을 되찾기 위해 지하 세계로 향하는 오르페우스와 에우리디케, 1년 중 절반은 지상에서, 나머지는 지하에서 보내는 페르세포네와 하데스의 신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작품으로, 대한민국 공연계를 대표하는 내노라하는 배우들이 출연한다.

영화

제39회 부산국제단편영화제

일 시 | 4월 27일(수)-5월 2일(월)
영화의전당, BNK부산은행 아트시네마
문 의 | 부산국제단편영화제 742-9600, bisff.org



국내 최대 단편영화제이자 국내 최초 아카데미인 증평영화제인 2022 부산국제단편영화제. 올해로 39회를 맞는 부산국제단편영화제는 부산지역의 독립 단편영화를 소개하고 영화인재 양성을 목표로 1980년 '한국단편영화제'란 이름으로 출발한 후 1997년 '부산단편영화제', 2000년 '부산아시아단편영화제'를 거쳐 2010년부터 부산국제단편영화제로 명칭을 변경하고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 단편영화를 소개하고 있다. 올해 '영화의 확장'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영화제에서는 국제경쟁 부문 37개국 40편, 한국경쟁 부문 20편 등 총 60편의 단편영화가 선정되었으며, 영화제 기간동안 최우수 작품상, 우수작품상, 심사위원특별상 등 10개 부문 상을 놓고 경쟁한다.

작은영화콘서트 심플라이프

일 시 | 5월 7일 토요일 오후 2:00
부산예술회관 공연장
입장료 | 무료(15세 이상 관람가)
문 의 | 부산영화인협회 628-4371



부산영화인협회가 매월 첫째주 토요일 오후에 마련하는 작은영화콘서트. 이번 상영회는 예술성과 작품성을 인정받은 작품들을 선별, 상영하고 영화를 매개로 예술과 인문학적 소양을 키워나가고자 마련된 자리로, 상영 후에는 시나리오 작가인 서영조 부산영화인협회 회장이 영화에 담긴 메시지를 깊이있게 알아가는 영화수다가 함께 진행된다. 5월 상영회에서는 언론과 평단의 찬사로 세계 우수영화제를 석권한 홍콩 영화계의 거장 허안화 감독의 '심플라이프'를 선보인다. '심플라이프'는 영화 '천녀유혼' 시리즈와 '황비홍' 등을 제작한 저명한 홍콩 프로듀서 로저 리의 감동실화를 바탕으로, 세대간의 갈등과 노년층 문제를 담담하고 진솔하게 담아낸 작품이다.

콘서트

2022 조명섭 콘서트 新나는! 달밤 음악회

일 시 | 5월 7일 토요일 오후 2:00, 7:00
소향씨어터 신한카드홀
입장료 | VIP석 13만2천원, R석 12만1천원
문 의 | (주)밝은누리 1566-9621

정동원棟동 이야기話화 2nd 전국투어 콘서트 in 부산

일 시 | 5월 7일 토요일 오후 6:00,
8일 일요일 오후 4:00 **KBS부산홀**
입장료 | R석 14만3천원, S석 12만1천원
A석 11만원
문 의 | (주)밝은누리 1566-9621

커피소년 부산 라이브 콘서트

일 시 | 5월 28일 토요일 오후 7:00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입장료 | 전석 7만7천원
문 의 | (주)애영 우리들 Ent. 1800-1545

행사

5월 오페라바움 영상감상회

일 시 | 매주 월요일 오후 2:00, 금요일 오후 1:00
오페라바움
입장료 | 전석 1만원(중급반 이상 1만5천원)
문 의 | 오페라바움 722-9597

오페라 전문 음악감상실인 오페라바움이 마련하는 5월 영상감상회. 매주 월요일에는 교향곡, 협주곡 콘서트 실황을, 매주 금요일에는 '벤자민 브리튼 시리즈'를 오페라바움 대표 심성섭의 상세한 해설로 감상할 수 있다.

프로그램
6일(금) 빌리 버드
13일(금) 루크레티아의 능욕
20(금) 베네치아에서의 죽음
27일(금) 피터 그라임스



5월 시네바움 아카데미

일 시 | 매주 월요일 오후 7:00,
19일(목) 오전 11:00 시네바움
문 의 | 시네바움 010-2774-3455

2일(월) 오후 7:00 人事라는 이름의 선물
• 강사/박동섭(독립연구자)

9일(월) 오후 7:00 영화, 글쓰기의 맛
• 강사/김영광(영화 평론가)

16일(월) 오후 7:00 가야사 해석을 둘러싼 갈등과 간극
• 강사/이근우(부경대학교 사학과 교수)

19일(목) 오전 11:00 목요일의 브런치-낭송과 낭독 그리고 토크
'그리하여 흘러 쓴 것들, 이제니 시집(문학과 지성사)'

23일(월) 오후 7:00 화투에 나타난 일본의 문화 기호
• 강사/안수현(부산가톨릭대 인문학연구소 연구위원)

30일(월) 오후 7:00 그리스 민주정과 검사장 민선제
• 강사/최자영(한국외대 그리스·불가리아과 겸임교수)

김옥균의 영광클래식음악아카데미 클래식콘서트 영상감상회

일 시 | 매주 금요일 오전 11:00
영광도서 8층 문화홀 1관
입장료 | 3개월 12만원
문 의 | 영광도서 070-4020-2540
김옥균 010-6367-0149



MBC 부산문화방송 'FM 가정음악실', '별이 빛나는 밤에' 등 음악프로그램을 연출한 前 MBC PD 이자 현재 클래식해설가, 시인, 음악치료사로 활동하고 있는 김옥균의 해설로 진행되는 '영광클래식 음악감상회'.

알기 쉬운 서양음악사 특강과 함께 클래식 음악으로 우울증과 불면증을 치료하는 '클래식 음악 치료 영상감상회'도 매주 개최된다.

프로그램

R 슈트라우스 가정교향곡, 슈만 연가곡시인의사랑
베르디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 헨델 '수상음악'
슈베르트 '미완성 교향곡', 그리고 '피아노협주곡 A단조'

비발디 '바순협주곡 E단조', 로드리고 '아랑페즈 기타협주곡'
라흐마니노프 '피아노협주곡 3번', 베토벤 '교향곡 제7번'
베를리오즈 '환상교향곡', 사라사테 '찌고이네르 바이젠펙'

제175회 알바트로스 시낭송콘서트 어버이사랑 주제 詩 낭송회

일 시 | 5월 21일 토요일 오후 3:00
영광도서 9층 문화홀

입장료 | 무료
문 의 | 부산알바트로스 시낭송문학회 회장
010-6367-0149

- 출연/김병래 시인 외 초대시인
- 특별출연/소프라노 이은선

제36회 부산청소년예술제

일 시 | 5월 17일(화)-30일(월)
부산예술회관, 부산문화회관,
부산시민회관
문 의 | (사)부산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631-1377, www.artpusan.or.kr



매년 5월, 청소년의 달에 개최되는 '부산청소년예술제'는 21세기의 주역인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발표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청소년들의 적성과 소질을 개발하고, 건전한 청소년문화를 형성하는데 기여해왔다.

주요 일정

17일(화) 부산예술회관 공연장 개막식 및 개막공연
18일(수)-21일(토) 부산시민회관 전시실 학생사 진공모전
19일(목)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청소년무용예술제
20일(금) 부산문화회관 챔버홀 부산청소년음악제
21일(토) 부산예술회관 공연장 청소년가요 및 댄스경연대회

21일(토)-22일(일) 부산예술회관 전시장 청소년, 영상으로 소통하다
22일(일) 부산예술회관 회의실·공연장 청소년 건축상상마당
23일(월)-28일(토) 부산예술회관 전시장 학생그림공모전
25일(수)-30일(월) 부산예술회관 공연장 부산청소년연극제
28일(토) 부산예술회관 공연장 청소년시낭송대회
28일(토) 부산예술회관 회의실 청소년꽃다발만들기대회
29일(일) 부산예술회관 전국청소년국악경연대회

2022 문예회관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지원사업 영도에서 떠나는 유럽 예술 여행III

일 시 | 5월 21일(토) 오전 10:00, 28일(토)
오전 10:30 영도문화예술회관 동백홀
입장료 | 무료(사전전화예약필수)
문 의 | 영도문화예술회관 419-5574



영도문화예술회관이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지원사업으로 운영하는 '영도에서 떠나는 유럽 예술여행' 세 번째 프로그램.

이번 프로그램은 유럽의 박물관과 미술관을 중심으로 그 나라의 역사와 예술을 알아보는 시간으로, 유럽 현지에서 지난 10년여간 전문해설가로 활동했던 강사 김성민의 생생한 유럽현지 감성과 해설로 유럽 예술여행을 떠난다.
5월 21일부터는 '이탈리아 피렌체·베네치아 예술여행'이라는 주제로 한달간 강좌 4회와 공연 감상 1회가 진행된다.

전시

**부산현대미술관 기획전
새로운 매개들-
부산 미디어아트와 시작과 계보**

일 시 | 3월 1일(화)-7월 10일(일)
부산현대미술관 전시실
문의 | 부산현대미술관 220-7400~1

**아세안문화원 기획전시
차와 커피의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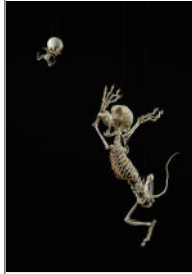
일 시 | 3월 11일(금)-6월 19일(일)
아세안문화원 기획전시실
문의 | 아세안문화원 775-2024

**캐나다군 625전쟁 참전 특별전
26791, 한국의 방패가 되다**

일 시 | 3월 24일(목)-8월 31일(수)
유엔평화기념관 1층 기획전시실
문의 | 유엔평화기념관 901-1400

**부산시립미술관 기획전
한국현대미술작가조명Ⅳ-이형구**

일 시 | 3월 29일(화)-8월 7일(일)
부산시립미술관 2층 전시실
문의 | 부산시립미술관 744-2602



독창적인 조형 언어를 바탕으로 '몸'에 대한 주제 의식을 이어가는 작가 이형구의 작품 세계를 조망하는 이번 전시에서는 이형구 작품 세계 전반을 관통하는 몸의 주요한 의미를 되짚어보고, 끝없는 예술적 가능성으로서 몸의 위상을 재고하고자 한다.

**김덕용 작품전
Seed-Mother of pearl**

일 시 | 4월 1일(금)-5월 31일(화)
소울아트스페이스
문의 | 소울아트스페이스 731-5878

성지연 사진전 유보된 순간

일 시 | 4월 4일(월)-6월 18일(토)
BMW 포토 스페이스
문의 | BMW 포토 스페이스 792-1630
...
• 관람시간/오전 9:00~오후 6:00(토요일은 오후 3:00까지, 일·공휴일 휴관)

**부산시립미술관 기획전
나는 미술관에 OO하러 간다
On my way to the Museum**

일 시 | 4월 22일(금)-10월 16일(일)
부산시립미술관 3층 전시실
문의 | 부산시립미술관 744-2602
...
여가 활동의 불평등을 극복하고 미술관이 제한할 수 있는 대안적 알고리즘을 보여주는 특별한 전시로, 동시대 여가 현상과 여가 활동을 탐색해 보는 '인트로' 섹션, 미술관이 제공할 수 있는 본질적인 감상의 여가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채워진 'O+O+', 'O+O', 'O'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볼로냐 그림책 일러스트 특별전
with 마리쿠테 알파벳 동물원**

일 시 | 4월 22일(금)-7월 3일(일)
문화플랫폼 시민마당(구 부산진역사)
입장료 | 관람권 6천원
문의 | 부산동구청 440-4065
...
• 관람시간/오전 10:00~오후 7:00(오후 6:00 입장마감, 월요일 휴관)

김은곤 굿바이 작품전

일 시 | 4월 25일(월)-5월 7일(토) 스페이스 음
문의 | 스페이스 음 557-3369

스누피 한국특별전

일 시 | 5월 5일(목)-6월 24일(금) KT&G
상상마당 부산 갤러리
입장료 | 1만2천원
문의 | KT&G 상상마당 부산 070-8893-0892-4

**어린이날 기념 특별 기획전
즐거운 소동**

일 시 | 5월 2일(월)-5월 29일(일) 갤러리 한스
문의 | 갤러리 한스 010-4574-0660

...
5월 5일 어린이날 100주년을 기념한 특별기획전으로, 어린이작가와 조각작가들의 콜라보레이션으로 열리는 '즐거운 소동'.
• 조각작가/엔조, 제제, 김중선, 김승현, 박성주, 이경
• 어린이작가/권규민, 김예진, 김재인, 김주원, 김주현, 김채은, 김하윤, 박은서, 서지윤, 송민경, 송지훈, 안재이, 안지호, 원서진, 옥예지, 조성운, 조성준, 조준오, 조하윤, 조한규, 조한성, 주윤제



이영지 개인전 속닥속닥

일 시 | 5월 3일(화)-6월 4일(토) 아트소향
문의 | 아트소향 747-0715

현대작가 9인 초대전

일 시 | 5월 5일(목)-5월 14일(토) 타워갤러리
문의 | 타워갤러리 464-3939

2022 '5월의 향연'전

일 시 | 5월 17일(화)-5월 31일(화) 타워갤러리
문의 | 타워갤러리 464-3939





죽림 한풍을 찾아서

이병순 지음 / 실천문학사
278p / 1만 3천 500원

해외로 반출된 우리 문화재는 얼마나 많을까. 일제강점기만 해도 상상을 초월할 정도라고 한다. 우리 문화재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라면 흥미롭게 읽을 수 있는 소설이 있다. 이 책은 2012년 부산일보 신춘문예로 등단한 이병순 소설가의 첫 장편소설이다. 일제강점기 때 미술품을 경매하던 '경성미술구락부' 주변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흥미진진한 서사로 풀어냈다. 병신년에 태어났기에 '강병신'이라는 이름을 가진 화공이 대나무 숲에 부는 바람을 담은 '죽림한풍'을 그렸다. 병신 화공은 이 그림을 '동치'에게 주었다. 골동품에 미쳐 전 재산을 바쳤다 해서 동치라고 불리는 인물이다. '죽림한풍'의 가치를 알아본 동치와 화공이 죽은 후 그림은 사라졌다. 동치의 손자 김중하는 그림의 가치를 알기에 찾고, 병신 화공의 손자 강석초는 조부의 그림을 모두 찾아 미술관을 만들려 한다. 두 사람을 따라가면 당시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볼 수 있다. 고적탐사라는 이유로 조선의 땅을 파헤치는 일본인, 경성미술구락부에서 거금을 뿌리며 미술품을 사는 일본 소장자들, 그 사이에는 조선의 소장자들도 있다. 아름답고 순박한 순우리말이 소설 속에 보석처럼 박혀있어 읽는 재미 또한 각별하다.



서점은 내가 할게

이화숙, 강정아 지음 / 빨간집
312p / 1만 5천 원

부산에서 25년째 운영 중인 동네서점이 있다. 어린이 전문서점이라는 개념도 생소했던 시절에 어린이들을 위해 만들어진 귀한 서점이다. '책과 아이들'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어떤 서점인지 짐작이 된다. 아이를 키울 때 함께 책을 읽던 초보엄마 강정아가 좋은 그림책을 자신의 아이만 보는 게 아까워 스스로 '잠잠이'라 칭하며 책방을 연 게 시작이었다. 25년을 지나는 동안 '책과 아이들'은 수많은 작가와 독자들이 아끼고 사랑하는 책방이 되었다. 그 자리에 문을 열고 있다는 것, 그 존재만으로도 든든한 책 문화의 버팀목으로 자랐다. 남녀노소, 책방 회원과 동네 이웃 누구나 오가는 문턱 없는 책의 천국이다. 이곳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 강정아씨가 부산 동네서점들의 '썩반장' 이화숙의 청을 받아 긴 이야기를 들려준다. 강정아씨는 이렇게 말한다. "논술을 목적으로 한 독서는 책에 재미 붙이기 힘들거든요. 진짜 독자가 되지 않는 거죠. 결국 책 읽는 사람 되자고 독서 모임 하는 건데 말이죠. ... 유아 때 책을 읽어주는 이유는 조기교육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양육자와의 교감이지요. 그 좋은 기억이 바탕이 되어 평생 책을 손에 쥐는 사람이 되고 점점 독서 수준이 심화되는 거예요."



예술가가 사는 집

멀리사 와이즈 글,
케이트 루이스 그림, 손희경 옮김
아트북스 / 216p / 1만 6천 원

모네가 말년까지 왕성한 작품 활동을 하며 자신의 흔적을 고스란히 남긴 지베르니 저택은 그의 작품만큼 유명하다. 반 고흐가 그림에 대한 열의를 불태우던 시절을 보낸 프랑스 아를의 노란 집, 프리다 칼로의 불꽃같은 생애와 예술세계를 엿볼 수 있는 카사아술도 세계적인 유명세를 떨치는 관광지가 될 정도이다. 한 시대를 풍미하고 걸출한 작품들을 쏟아내며 불꽃같은 인생을 살았던 예술가들은 어떤 공간에서 어떻게 생활했을까. 예술가의 집은 그 자체가 작품이자 창작 도구이자 창조적 영감의 원천이었다. 이 책은 17인의 시각예술가와 그들이 살았던, 혹은 거의 일체화되었던 공간에 대한 책이다. 글을 쓴 멀리사 와이즈는 예술가들의 공간을 직접 방문한 경험과 감상을 기록했다. 케이트 루이스는 개성을 살려 재현한 그림으로 그 공간을 보여준다. 사진이 아니라 그림이라 더 특별하게 다가온다. 사진으로 보는 근사한 공간이 보는 사람의 소비욕구를 자극한다면 그림으로 보는 공간은 좀 더 따뜻하게 다가온다. 아름다운 그림으로 남은 예술가의 집들은 세월이 지나도 빛이 바래지 않을 가치를 담고 있다. 마음을 울리는 글과 아름다운 그림이 어우러진 예술 에세이다.

(재)부산문화회관, 기관 업무협약 체결

부산시립미술관, 부산민주공원,
부경대학교

(재)부산문화회관(대표이사 이정필)이 최근 지역의 문화예술 증진과 시민들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지역 기관들과 업무협약을 맺었다.

(재)부산문화회관은 지난 4월 13일, 부산의 대표적인 미술문화공간인 부산시립미술관(관장 기혜경)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부산시립미술관이 지난 4월 22일 개막한 기획전 '나는 미술관에 ○○하러 간다'의 주제인 '여가를 즐기는 방법으로, (재)부산문화회관이 현재 진행중인 문화예술아카데미 프로그램을 연계기획, 두 기관이 함께 운영한다. 이번 협약에 따라 기존 문화예술아카데미 강좌를 연계한 워크숍 및 신규 특강 프로그램까지 깊이 있고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되면서, 부산시립미술관에서 (재)부산문화회관을 만나는 새로운 방식의 문화예술 플랫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부산시립예술단도 올해 부산시립미술관에서 시민들과 만난다. 앞으로 있을 부산시립예술단 공연을 통해 정적이었던 미술관이 시민들이 참여하고 소통하는 동적인 공간으로 변하면서 부산시립미술관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을 예정이다. 특히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상호 교류하고 협업하면서 부산을 대표하는 문화예술기관으로서 공간과 장르의 한계를 뛰어넘어 복합문화예술의 장을 마련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4월 13일에는 부산 시민의 숭고한 민주정신이 깃든 민주공원(관장 김종기)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재)부산문화회관과 민주공원은 시민친화적인 복합문화공간으로서 시민들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는데 힘쓰며, 역사를 기리고 부산을 상징하는 우수 콘텐츠 공동 개발에도 서로 힘을 모으기로 했다.

한편, 지난 3월 28일에는 지역 문화예술 증진과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재)부산문화회관과 부경대학교(총장 장영수)와의 업무협약식이 열렸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앞으로 △공연 및 교육 프로그램 공동개발을 위한 상호 협력 △학생, 교직원 대상 공연 초청 및 할인 등 공연(전시)관람 혜택 제공 △(재)부산문화회관 플러스회원 학생 및 교직원 가입 추진 △공연 및 전시 홍보물 비치, 온·오프라인 홍보를 확대 추진 등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BSCC

PROGRAM

2022.6-9월
June-September

(재)부산문화회관 2022 시즌 프로그램

※ 문화 부산문화회관 / 시민 부산시민회관

클래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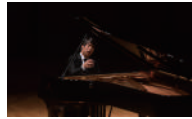
음악의 온기를 전하는 실내악의 향연
**2022 부산문화회관 챔버 페스티벌
Da Capo**

문화 | 중극장, 챔버홀 2022. 1. 7.(금)-1. 19.(수)



월드 콩쿠르 우승자 시리즈 I
박재홍 피아노 리사이틀 - 앙코르

문화 | 대극장 2022. 3. 19.(토) 5:00pm
R 50,000원 S 40,000원 A 30,000원
※만 7세 이상 관람



월드 콩쿠르 우승자 시리즈 II
**드미트리 마슬레예프
피아노 리사이틀**

문화 | 대극장 2022. 5. 6.(금) 7:30pm
R 50,000원 S 40,000원 A 30,000원
※만 7세 이상 관람



월드 콩쿠르 우승자 시리즈 III
임지영 & 홍민수 듀오 리사이틀

문화 | 대극장 2022. 7. 22.(금) 7:30pm
R 50,000원 S 40,000원 A 30,000원
※만 7세 이상 관람



한국 실내악의 새로운 역사를 써가는 현악사중주단
노부스 콰르텟 <오직 베토벤>

문화 | 중극장 2022.8.19.(금) 7:30pm
R 50,000원 S 30,000원
※만 7세 이상 관람



월드 콩쿠르 우승자 시리즈 IV
레이 첸 & 선우예권 듀오 콘서트

문화 | 대극장 2022. 9. 3.(토) 5:00pm
R 70,000원 S 50,000원 A 30,000원
※만 7세 이상 관람



책과 음악, 대화로 가득한
첼리스트의 책방으로 초대합니다

홍진호 콘서트 <진호의 책방>

문화 | 대극장 2022.9.8.(목) 7:30pm
R 50,000원 S 40,000원 A 30,000원
※만 7세 이상 관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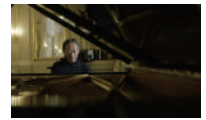
세계 3대 국제콩쿠르 우승자들의 첼로 협연
**<2022 퀸엘리자베스
국제 콩쿠르 위너스 콘서트 in 부산>**

문화 | 대극장 2022.9.14.(수) 7:30pm
R 50,000원 S 30,000원 A 20,000원
※만 7세 이상 관람 ※티켓오픈 추후공지



세계적 마에스트로가 선사하는 음악 선물
<마에스트로 정명훈 실내악 콘서트>

문화 | 대극장 2022.9.21.(수) 7:30pm
V 120,000원 R 100,000원 S 80,000원 A 60,000원
※만 7세 이상 관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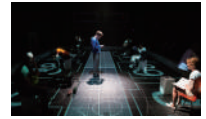


연극·뮤지컬

NT-Live 화제의 영국 연극을
라이브 스크린으로!
한밤중에 개에게 일어난 의문의 사건

문화 | 중극장 2022. 2. 26.(토) 3:00pm
전석 20,000원 ※만 15세 이상 관람

※NT-Live는 공연실황을 녹화하여 상영하는 작품입니다.
제작 영국극립극장 | 연출 마리안느 엘리엇 | 극본 사이먼 스티븐스
원작 마크 해던 | 출연 루크 트리드웨이, 니암 쿠섹, 폴 리터, 니콜라 워커



NT-Live 화제의 영국 연극을 라이브 스크린으로!
다리에서 바라본 풍경

문화 | 중극장 2022. 4. 30.(토) 3:00pm
전석 20,000원

※만 15세 이상 관람
※NT-Live는 공연실황을 녹화하여 상영하는 작품입니다.
제작 영국극립극장 | 연출 이보 반 호프 | 원작 아서 밀러
출연 마크 스트롱, 니콜라 워커



스승의 삶을 흠친 제자의 딜레마
극단 배우창고 <단편소설집>

시민 | 소극장 2022. 3. 18.(금)-19.(토)
금 7:30pm / 토 3:00pm
R 30,000원 S 20,000원 ※중학생 이상 관람
연출 김세준 | 출연 윤소희, 김선희



과도한 생존경쟁 끝자락에서 마주하는 '우정'
**극단 돌파구
<XXL 레오타드 안나수이 손거울>**

문화 | 중극장 2022. 5. 19.(목)-20.(금)
목 2:00pm / 금 2:00pm, 7:30pm
R 30,000원 S 20,000원 ※중학생 이상 관람



그 날 불행이 다가왔다...
빅픽처스스테이지 <코마>

시민 | 소극장 2022. 6. 10.(금)-11.(토)
 금 7:30pm / 토 3:00pm
 R 30,000원 S 20,000원
 ※중학생 이상 관람



뮤지컬로 탄생한 세계가 사랑하는 화가의 이야기
<빈센트 반 고흐>

문화 | 중극장 2022.7.8.(금)-9.(토)
 금 7:30pm / 토 2:00pm 6:00pm
 R 60,000원 S 40,000원
 ※만 11세이상 관람



창작뮤지컬 최고 화제작의 귀환
뮤지컬 <팬레터>

시민 | 대극장 2022.7.30.(토)-31.(일)
 토 6:00pm / 일 3:00pm
 V 90,000원 R 70,000원 S 50,000원
 ※만 14세이상 관람



믿고 보는 배우들이 연기하는 역사 속 보통사람들
<그때도 오늘>

문화 | 중극장 2022.9.23.(금)-24.(토)
 금 7:30pm / 토 3:00pm
 R 50,000원 S 30,000원
 ※만 13세이상 관람



발레·무용

(재)부산문화회관 & 파리 테아트르 드 라 빌-리옹댄스비엔날레 공동제작
안은미 컴퍼니 <드래곤즈>

문화 | 중극장 2022. 3. 4.(금)-5.(토)
 금 7:30pm / 토 3:00pm
 R 50,000원 S 30,000원 A 20,000원
 ※전 연령 관람



스페인의 정열이 살아 숨 쉬는 희극 발레
유니버설발레단 <돈키호테>

시민 | 대극장 2022. 5. 13.(금)-14.(토)
 금 7:30pm / 토 3:00pm
 R 80,000원 S 60,000원 A 40,000원
 ※48개월 이상 관람



동화로 함께 보는 가족발레
<거인의 정원>

시민 | 대극장 2022.9.29.(목)-10.1.(토)
 목, 금 10:00am / 토 3:00pm
 전석 20,000원
 ※만 3세 이상 관람



국악·전통

김준수 & 하윤주 & 두번째달과 함께 떠나는
 팔도유람 음악여행
**김준수, 하윤주, 두번째달
 <팔도유람>**

문화 | 중극장 2022. 4. 17.(일) 5:00pm
 R 50,000원 S 30,000원 A 20,000원
 ※초등학생 이상 관람



지금, 여기에 다시 살아난 수궁가
**국립창극단
 <귀토>**

시민 | 대극장 2022.8.12.(금)-13.(토)
 금 7:30pm / 토 3:00pm
 R 50,000원 S 30,000원 A 20,000원
 ※만 7세 이상 관람



콘서트

그 시절 우리들의 노래와 이야기
**슬기로운 음악생활
 -이세준, 홍경민, 김중서&악스**

문화 | 대극장 2022.1.23.(일) 5:00pm
 R 70,000원 S 50,000원 A 30,000원
 ※초등학생 이상 관람

슬기로운
 음악생활

소중한 사람에게 보내는 달콤한 음악선물
박종훈&웅산 재즈 콘서트

문화 | 대극장 2022. 2. 13.(일) 5:00pm
 R 50,000원 S 40,000원 A 30,000원
 ※초등학생 이상 관람



가장 핫한 아티스트를 셀렉하는 가장 트렌디한 콘서트
**<SELECT SHOP ;
 셀렉콘 - 십센치 X 소수빈> - 부산**

시민 | 대극장 2022.6.11.(토). 6:00pm
 V 121,000원 R 99,000원
 ※만 7세 이상 관람



가족·어린이

팔죽 한 그릇이 건네는 맛있는 지혜
**극단 동그라미그리기
 <팔죽할멈과 호랑이>**

문화 | 사랑채 2022. 2. 19.(토)-4. 3.(일) 11:00am
 *월, 화 공연 없음
 전석 20,000원
 ※3세 이상 관람



그림자극으로 만나는 특별한 음악여행!
극단 영 <비발디의 세계>

문화 | 사랑채 2022. 4. 6(수)-5. 6(금) 11:00am
 *월, 화 공연 없음
 전석 20,000원
 ※3세 이상 관람



감동을 넘어선 마법의 시간
**2022 디즈니 인 콘서트
 : Beyond the Magic**

시민 | 대극장 2022. 5. 21.(토) 5:00pm
 V 100,000원 R 80,000원 S 60,000원 A 40,000원
 ※48개월 이상 관람



요절복통 뮤지컬로 읽는 세계 명작
<아기돼지 삼형제>

문화 | 사랑채 2022.7.2.(토)-8.28.(일)
 평일 11:00am / 주말 11:00am, 2:00pm
 전석 20,000원
 ※만 2세 이상 관람



우리 아이 첫 클래식 콘서트
<핑크퐁 클래식 나라-뚜뚜를 찾아라>

문화 | 대극장 2022.8.20.(토) 5:00pm
 R 50,000원 S 40,000원 A 30,000원
 ※36개월 이상 관람



환경을 이야기하는 마법 같은 퍼포먼스
<에코백>

문화 | 사랑채 2022.9.15.(목)-10.9.(일)
 평일 11:00am / 주말 11:00am, 2:00pm
 전석 20,000원
 ※만 4세 이상 관람



문화가 있는 날

당신을 웃게 하는 또 다른 감동, 스크린으로 만나다
BSCC 배시시 명품극장

시민 | 소극장 2022. 4. 27.(수), 5. 25.(수), 6. 29.(수)
 매주 수요일 7:30pm
 무료



지역프로젝트

부산시민들의 유쾌한 문화놀이터
시민뜨락축제

시민 | 야외무대 2022. 4. 22.(금)-5. 20.(금)
 9. 23.(금)-10. 14.(금)
 매주 금요일 12:20pm
 무료



부산시립예술단 2022 시즌 프로그램

※ **문화** 부산문화회관 / **시민** 부산시민회관

부산시립교향악단

기획연주회
부산시향의 미완성음악회 I

문화 | 대극장 2022. 1. 20.(목) 7:30pm
 전석 5,000원



제583회 정기연주회
2022 신년음악회

문화 | 대극장 2022. 1. 21.(금) 7:30pm
 R 20,000원 S 15,000원 A 10,000원 B 5,000원
 지휘 최수열 | 피아노 김정원



제584회 정기연주회
부산시향의 말러

문화 | 대극장 2022. 2. 16.(수) 7:30pm
 R 20,000원 S 15,000원 A 10,000원 B 5,000원
 지휘 이병욱



기획연주회
부산시향의 미완성음악회 II

문화 | 대극장 2022. 3. 10. (목) 7:30pm
 전석 5,000원



제585회 정기연주회
정점

문화 | 대극장 2022. 3. 11.(금) 7:30pm
 R 20,000원 S 15,000원 A 10,000원 B 5,000원
 지휘 최수열 | 피아노 문지영



기획연주회
부산시향의 미완성음악회 III

문화 | 대극장 2022. 3. 31.(목) 7:30pm
 전석 5,000원



● Previe

제586회 정기연주회

이방인

문화 | 대극장 2022. 4. 1.(금) 7:30pm
R 20,000원 S 15,000원 A 10,000원 B 5,000원
지휘 최수열 | 바이올린 양인모(올해의 예술가)



기획연주회

부산시향의 실내악공간 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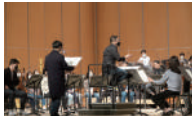
문화 | 챔버홀 2022. 4. 21.(목) 7:30pm
전석 10,000원



기획연주회

부산시향의 미완성음악회IV

문화 | 대극장 2022. 5. 11.(수) 7:30pm
전석 5,000원



제587회 정기연주회

오로라

문화 | 대극장 2022. 5. 13.(금) 7:30pm
R 20,000원 S 15,000원 A 10,000원 B 5,000원
지휘 최수열 | 바이올린 양인모(올해의 예술가)



기획연주회

부산시향의 우리아이음악회

문화 | 중극장 2022. 5. 26.(목) 7:30pm
전석 5,000원



제588회 정기연주회

여정

시민 | 대극장 2022. 6. 17.(금) 7:30pm
R 20,000원 S 15,000원 A 10,000원 B 5,000원
지휘 이민형 | 피아노 일리아 라쉬코프스키



제589회 정기연주회

프라하 중앙역

문화 | 대극장 2022. 7. 15.(금) 7:30pm
R 20,000원 S 15,000원 A 10,000원 B 5,000원
지휘 김선욱 | 첼로 한재민



부산시립합창단

제185회 정기연주회

어린이뮤지컬 <옛날 옛적에>

문화 | 대극장 2022. 5. 4.(수) 7:30pm
5. 5.(목) 10:30am
R 20,000원 S 10,000원
지휘 이기선 | 연출 박정우 | 작곡·연주 이진실2310밴드



창단 50주년 기념 및 제186회 정기연주회

칼 오르프 <카르미나 부라나>

문화 | 대극장 2022. 6. 23.(목)·24.(금) 7:30pm
R 30,000원 S 20,000원 A 10,000원
지휘 이기선



특별연주회

2022 Summer Fantasy '시간(時間)II'

문화 | 대극장 2022. 7. 21.(목) 7:30pm
전석 10,000원
지휘 임희준 | 연주 이삼열 밴드 외



특별연주회

유명지휘자 초청연주회

문화 | 대극장 2022. 8. 17.(수) 7:30pm
전석 10,000원
객원 지휘 T. J. Harper



특별연주회

신진지휘자 초청연주회

문화 | 중극장 2022. 9. 15.(목) 7:30pm
전석 10,000원
지휘 임희준, 김진영



창단 50주년 기념 및 제187회 정기연주회

4인 4색 합창축제

문화 | 대극장 2022. 10. 28.(금) 7:30pm
전석 10,000원
지휘 김광일, 김강규, 전상철, 이기선



특별연주회

합창으로 하나되는 부산 <제33회 부산합창제>

문화 | 대극장 2022. 11. 8.(화)·10.(목) 6:00pm
무료
연합지휘 이기선



창단 50주년 기념 및 제188회 정기연주회

하이든 <천지창조>

문화 | 대극장 2022. 12. 8.(목) 7:30pm
R 20,000원 S 10,000원 A 5,000원
지휘 이기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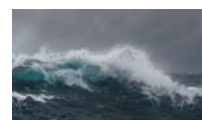
연주 United Korea Orchestra
출연 김순영, 황병남, 이광근, 문동환

부산시립무용단

제85회 정기공연

부산, 40계단_바다 곁에 오래였으나 바다를 제대로 본적이 없다

문화 | 대극장 2022. 5. 20.(금)·21.(토)
금 8:00pm / 토 4:00pm, 8:00 pm
안무 이정윤



Dancers and Masterpiece

별이 빛나는 <이정운의 댄스살롱>

문화 | 중극장 2022. 7. 22.(금)-23.(토)
안무 이정운



제86회 정기공연

춤, 본색 II

문화 | 대극장 2022. 10. 21.(금)-22.(토)
안무 이정운



특별공연

안무가 LAB

문화 | 중극장 2022. 12. 2.(금)-3(토)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제214회 정기연주회

국악관현악 시즌 I

문화 | 대극장 2022. 3. 3.(목) 7:30pm
지휘 김종욱 | 소금 조은경 | 거문고 이대하
대금 한영길 | 거문고 오상훈 | 아쟁 최혜윤



특별연주회

만우절 음악회

문화 | 중극장 2022. 4. 6.(수) 7:30pm
지휘 김종욱



특별연주회

제47회 청소년 협연의 밤

문화 | 중극장 2022. 5. 3.(화) 7:30pm



제215회 정기연주회

국악관현악 시즌 II

문화 | 대극장 2022. 5. 26.(목) 7:30pm
지휘 김종욱 | 가야금 김혜진 | 바이올린 조혜윤



부산시립극단

제71회 정기공연

바나야저씨

문화 | 중극장 2022. 3. 11.(금)-13.(일)
평일 7:30pm / 주말 5:00pm
원작 안톤 파블로비치 체홉 | 연출 성기웅



특별공연

가족뮤지컬 <미운오리새끼>

문화 | 사랑채 2022. 5. 13.(금)-6. 4.(토)
토·공휴일 11:00am 2:00pm
(평일단체공연 일요일 공연없음)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특별연주회

유망주 음악회 -Ensemble

문화 | 챔버홀 2022. 2. 19.(토) 5:00pm



제67회 정기연주회

Com Spirito(활기있게)

문화 | 대극장 2022. 3. 22.(화) 7:30pm
지휘 이명근



특별연주회

솔로리스트들의 축제

문화 | 대극장 2022. 5. 24.(화) 7:30pm



특별연주회

유망주음악회 -The Solist

문화 | 챔버홀 2022. 6. 25.(토) 5:00pm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특별공연

기량향상음악회

문화 | 챔버홀 2022. 2. 25(금) 7:00pm
2. 26.(토) 4:00pm



특별공연

프렌들리 콘서트

문화 | 중극장 2022. 7. 28.(목) 7:30pm
전석 2,000원



제162회 정기연주회

PEACE

문화 | 대극장 2022. 9. 17.(토) 5:00pm
전석 2,000원
지휘 김수현



특별연주회

제34회 부산청소년합창제

문화 | 대극장 2022. 11.4(금)-5(토)
무료



제163회 정기연주회

크리스마스 선물

문화 | 대극장 2022. 12.10(토) 5:00pm
전석 2,000원
지휘 김수현



※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공연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재)부산문화회관 후원회

MEMBER OF THE ASSOCIATION FOR THE BUSAN CULTURAL CENTER

회장

변원탄 의료법인 양산병원 이사장

명예회장

최수기 (주)휴넷 회장

부회장

박정삼 백송건설 회장
도용복 (주)사라토가 회장
김정기 (주)경동건설 대표이사
임현경 신주레약국
임현숙 (사)아름다운 사람들 이사장

사무처장

김홍재 (전)연제구의장

이사회원

강대일 웰딩시스템
강서룡 효승테크 대표이사
곽국민 (주)파크랜드 대표이사
권한상 부경대학교 교수
김기호 (주)이디에스 보안물류 대표이사
김성우 (재)해뜨락 요양병원 이사장
김신호 (주)덕신체인 대표이사
김암우 세무법인 중추 대표이사
김충석 국제로타리3661 부산지구 총재
류용주 삼신교통(주) 회장
박영기 에스더블유팜 대표이사
박장호 (주)피에스제이 대표이사
서현석 한국고무산업 대표이사
손명찬 서원건설산업(주) 대표이사
윤철원 (주)정우 대표이사
이수영 (주)유환 대표이사
이진영 돌고래마취통증의학과의원 원장
임성국 하이원해운항공 대표이사
임정덕 예술과부산 대표이사

장문호

(주)천영스틸 대표이사

장세비

우리은행 부산금융센터 및
부산영업 그룹장

정문흠

(주)태영버스 대표이사

정연택

디씨엠(주) 대표

정용환

서번산업엔지니어링(주) 대표이사

조기종

조기종치과의원 원장

일반회원

강득용 (주)프리미엄 에셋 대표이사
김말순 인창요양병원 대표이사
김영수 세종월드건설 대표이사
김영욱 김&정 세무회계사무소 대표이사
김종부 다올테크 대표이사
김종식 주식회사 JJK 회장
김 철 은중합병원 산부인과
김형우 (주)천마 대표이사
김희규 효성의약품(주) 대표이사
도재철 (주)좋은세상 대표이사

문민우

박성복

대동병원 이사장

박성환

세종기획 이사

박혜빈

구포성심병원 이사장

박흥근

삼강종합건설(주)

성원기

세무법인 인성

양은진

세무법인 프로텍 세무사

이경철

통통샤인 정신건강의학과

이상수

르네상스피부과 원장

이에리카정애

이현숙 정신건강의학과 원장

이현숙

임은자

정민섭 산부인과 원장

정민섭

(전)국회의장

정의화

속편한내과 원장

조성락

라이프온(주) 대표이사

조종래

주식회사 일신케미칼 사장

하정태

법률사무소 담헌 변호사

한원우



보람 있는 후원, 명예로운 모임

(재)부산문화회관 후원회 가입안내

GUIDE A MEMBER OF THE ASSOCIATION FOR THE BUSAN CULTURAL CENTER

■ 기본 예우



후원회 전용 룸 이용



대극장 좌석 네이밍



예술의초대
소식지 발송



연(분기 또는 반기)
후원회원 대상 음악회 개최



후원 회원명단 게재
(후원회 홈페이지, 월간지 등)



부산시립예술단 공연 무료 관람 제공
(동반 1인 포함 / 사전 신청자에 한함)



후원회 멤버십 카드 발급



회원패 증정



무료 주차혜택 제공
(본인 차량에 한함)

■ 회원별 예우

단위 : 만 원

구분	가입비	연회비 (익년도부터)	법인/ 개인	기획공연 및 전시 무료 초대		아카데미	좌석 네이밍 (대극장)
				기획공연(연간)	전시		
부회장	500 이상	200	법인/ 개인	- 기획공연 8매 - 기획공연 및 예술단공연 입장료 할인(30~50%)	본인·배우자 무료	본인·배우자 무료	2개 좌석
이사 회원	300	100		- 기획공연 6매 - 기획공연 및 예술단공연 입장료 할인(30~50%)	본인 무료, 동반 1인 50% 할인	본인 50% 할인	
일반 회원	100	50	개인	- 기획공연 4매 - 기획공연 및 예술단공연 입장료 할인(30%)	본인 무료, 동반 1인 50% 할인	본인 10% 할인	1개 좌석

- ※ 법인회원은 300만원부터 가능하고, 후원회원 예우는 개인 및 법인의 대표와 배우자에 한함.
- ※ 공연(기획공연, 예술단공연) 무료초대는 반드시 사전 예약을 하여야 하며, 조기매진 시 초대권 제공 불가함.
- ※ 일부 공연의 경우 공동주최 등의 사유로 예우사항(할인율 등)이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 전시, 아카데미(1강좌에 한함)의 경우 반드시 사전 신청자에 한하며 내부 사정에 따라 예우사항 등은 조정 될 수 있음.

가입문의 : (재)부산문화회관 홍보팀(051-607-6123)

일상에 문화를 더하다, 문화생활의 필수품 (재)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회원가입

가입신청 홈페이지(www.bscc.or.kr) 또는 전화 051)607-6000
 단체가입 할인 20명 이상(10%), 30명 이상(20%), 50명 이상(30%)

공통혜택

- 가입기간(1년) · 정기회원 카드 발급(10일 이내) · 선 예매 서비스제공(일부공연 제외)
- 월간 예술정보지 '예술의초대' 우송(1년) · 공연정보(SMS) 제공(대관공연 제외)
- 아카데미 수강료 할인(10%~) · 부산문화회관 주차요금 50% 할인(입차 시 회원카드 제시)
- 정기회원 라운지 무료 이용(회원카드 제시 시 음료 등 제공)
- 부산시내 외부공연 및 대관공연 입장료 할인(주최 측 협의에 한함)



VIP

연 회 비 : 10만원
 초 대 권 : 8매(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기획공연 4매, 부산시립예술단 공연 4매)

할인매수 : 6매(공연당)

특별혜택

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지정된 기획공연 및 부산시립예술단(5개 단체) 공연 초대권 각 4매 증정

- 지정된 기획공연, 지정된 객석 수에 따라 선착순 예약 마감
- 지정된 기획공연, 지정된 좌석 중에서 예약 가능
- 초대권은 가입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사용(전화 사전예약)
- 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기획공연(전시) 및 부산시립예술단 공연 입장료 할인(10~50%)
- 부산문화회관 무료주차권 10매

※ 지정된 기획공연은 (재)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월간 예술정보지 <예술의초대>를 통해 따로 공지 (조기마감)

※ 부산시립예술단: 교향악단, 국악관현악단, 합창단, 무용단, 극단



SPECIAL

연 회 비 : 5만원
 초 대 권 : 4매(부산시립예술단 공연 4매)
 할인매수 : 4매(공연당)

특별혜택

부산시립예술단(5개 단체) 공연 초대권 4매 증정

- 초대권은 가입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사용(전화 사전예약)
- 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기획공연(전시) 및 부산시립예술단공연 입장료 할인(10~30%)
- 부산문화회관 무료주차권 6매



MEMBER

교향악단, 국악관현악단, 합창단, 무용단, 극단

연 회 비 : 3만원
 초 대 권 : 2매(부산시립예술단 공연 2매)
 할인매수 : 2매(공연당)

특별혜택

부산시립예술단(5개 단체) 가입단체 공연

초대권 2매 증정

- 초대권은 가입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사용(전화 사전예약)
- 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기획공연(전시) 및 부산시립예술단공연 입장료 할인(10~30%)
- 부산문화회관 무료주차권 4매

※ 가입단체 초대권 증정, 비가입단체는 예술단 공연 입장료의 할인이 달라질 수 있음.

(재)부산문화회관 유료회원을 위한 선 예매 서비스 제공

(재)부산문화회관에서는 2021년부터 유료회원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선 예매 제도를 도입합니다. 선 예매는 일반 예매에 앞서 유료회원에게 사전 예매기간을 제공함으로써 회원들이 보다 좋은 좌석을 미리 예매할 수 있습니다. 대상공연은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및 부산시립예술단 공연(일부 공연 제외)입니다. 부산문화회관은 앞으로도 유료회원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입 문의 : (재)부산문화회관 고객지원센터 TEL. 051)607-6000 FAX. 051)607-6119 * 평일 09:00~18:00(토·일·공휴일 제외)

법인 가족과 나누는 특별한 시간, 더 큰 문화의 감동을 선사합니다

(재)부산문화회관 법인회원

BSCC Business Membership

법인회원을 위한 비즈니스 멤버십은 문화 혜택과 더불어 회관의 홍보 채널을 제공합니다. 한 장의 카드로 혜택을 모으고, 문화를 즐기고, 기쁨을 나눕니다. 법인이라면 기업의 품격을 높여줄 재단법인 부산문화회관 비즈니스 멤버십에 가입하세요.

비즈니스 멤버십 주요 혜택

01 부담은 줄이고 문화는 풍성하게

공연과 전시(20~50%), 아카데미 수강(10%), 회관 주차장(50%) 등을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공되는 프로그램 북 교환권으로 유료 판매하는 공연 프로그램 북을 교환해 공연을 더욱 풍성하게 즐기세요. ※ 선예매 서비스 제공

02 멤버십 전용 카드 및 이벤트 제공

회원카드에 기업 로고를 표기해드립니다. 법인회원 멤버십을 위한 회원 전용 초청 이벤트로 예상치 못한 초대의 즐거움까지 함께 누리보세요.

03 최고의 혜택과 홍보를 한 번에

회관의 온·오프라인 홍보 채널을 이용해 기업을 홍보할 수 있습니다. 월간 <예술의초대>, 회관 내 DID, 회관 홈페이지 및 SNS를 통해 기업을 홍보하세요.

비즈니스 멤버십 등급별 혜택

등급		루비 레드 (Ruby Red)	에메랄드 그린 (Emerald Green)	사파이어 블루 (Sapphire Blue)
등급 (가입기간 1년)				
연회비(발급 카드)		500만 원(50매)	300만 원(30매)	100만 원(10매)
공통혜택		회원카드 기업 로고 표기 공연 및 전시할인(20~50%) 아카데미 수강료 할인(10%) 월간 예술정보지 <예술의초대> 발송 회원 라운지 무료 이용 (회원카드제시 시) 회원 대상 초청 이벤트 실시 문화회관 주차장 무료 이용(회원카드 제시 시) 제휴업체 할인(업체 사정상 변경될 수 있음)		
등급별 추가 혜택	기획공연 유료 프로그램 북 교환권	90매	60매	30매
	회관 홈페이지 배너 광고	6개월	3개월	1개월
	월간 예술정보지 <예술의초대> 광고	2회	1회	-
	회관 내 DID 법인 홍보	6개월	3개월	1개월
	회관 공식 SNS 홍보(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카카오토리, 블로그)	6개월	3개월	1개월

문의 : (재)부산문화회관 고객개발팀(051-607-6114~7, www.bscc.or.kr)

특별한혜택

(재)부산문화회관
VIP회원에게만 드리는

Busan Cultural Center



다양한 할인혜택으로 문화생활의 필수품으로 자리 잡은 (재)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제도는 높은 할인율과 초대권 증정 등 다양한 혜택으로 보다 많은 관람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부산문화회관 VIP 회원에 가입하시면 지정 기획공연 중 초대권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초대권 사용이 가능한 공연은 월간 예술정보지 <예술의초대>나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www.bscc.or.kr)를 통해 공지되며, 공지된 공연 중 원하는 공연을 선택하셔서 전화로 사전 예약하시면 됩니다. 아래 공연은 2022년 예약이 가능한 기획공연으로 공연예매 시작과 함께 전화로 예약가능하며 선착순 마감입니다.

NT-Live

‘다리에서 바라본 풍경’

4월 30일(토) 오후 3:00 **종료**
부산문화회관 중극장(선착순 R석 40매)

월드 콩쿠르 우승자 시리즈 II

‘드미트리 마슬레예프

피아노 리사이틀’
5월 6일(금)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선착순 R석 40매)

2022 디즈니 인 콘서트

: Beyond the Magic

5월 21(토) 오후 5:0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선착순 R석 40매)

연극 ‘XXL 레오타드 안나수이 손거울’

5월 20일(금)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선착순 R석 40매)

유니버설발레단 ‘돈키호테’

5월 13일(금)-14일(토) 금 오후 7:30, 일 오후 3:00 **종료**
부산시민회관 대극장(선착순 R석 40매)

빅피쳐스테이지 ‘코마’

6월 10일(금)-11일(토) 금 오후 7:30, 토 오후 3:00
부산시민회관 소극장(회차별 선착순 R석 40매)

월드 콩쿠르 우승자 시리즈 III

‘임지영&홍민수 듀오 리사이틀’

7월 22일(금)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선착순 R석 40매)

(재)부산문화회관
VIP회원에게만 드리는
특별한 혜택

**월드 콩쿠르 우승자 시리즈IV
'레이 첸 & 선우예권 슈퍼 듀오 콘서트'**

9월 3일(토) 오후 5:00 **종료**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선착순 R석 40매)

**뮤지컬로 탄생한 세계가 사랑하는
화가의 이야기 '빈센트 반 고흐'**

7월 8일(금)-9일(토) 금 오후 7:30, 토 오후 2:00, 6: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회차별 R석 20매)

**창작뮤지컬 최고 화제작의 귀환
뮤지컬 '팬레터'**

7월 30일(토)-31일(일) 토 오후 6:00, 일 오후 3:0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회차별 R석 20매)

국립창극단 <귀도>

8월 12(금)-13일(토) 금 오후 7:30, 토 오후 3:0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회차별 R석 20매)

**한국 실내악의 새로운 역사를 써가는
현악사중주단**

노부스 콰르텟 '오직 베토벤'

8월 19일(금)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회차별 R석 20매)

우리 아이 첫 클래식 콘서트

핑크퐁 클래식 나라 뛰디를 찾아라

8월 20일(토) 오후 5:0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회차별 R석 20매)

**책과 음악, 대화로 가득한 쉐리스트의 책방
홍진호 콘서트 '진호의 책방'**

9월 8일(목)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회차별 R석 20매)

**믿고 보는 배우들이 연기하는
역사 속 보통사람들 '그때도 오늘'**

9월 23일(금)-24일(토) 금 오후 7:30, 토 오후 3: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회차별 R석 20매)

**동화로 함께 보는 가족발레
거인의 정원**

9월 29일(목)-10월 1일(토)
목·금 오전 10:00, 토 오후 3:0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회차별 R석 20매)

* 1인 1매에 한해 예약 가능하며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공연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양해바랍니다.

문의 | 고객개발팀(051-607-6116)

Busan Cultural Center
VIP

부산문화회관

플러스 회원 가입 캠페인

일상을 컬러
문화를 파워



하계
하계



(재)부산문화회관에서는

품격 높은 문화도시부산의 대표적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기 위해 **플러스 회원 가입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온라인 무료 회원인 플러스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문자를 통한 공연 알림뿐만 아니라 이메일을 통해 공연 정보가 담긴 뉴스레터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플러스 회원 가입으로 설렘과 감동의 순간을 함께하고 푸짐한 경품 혜택도 누리세요!**

| 대상

캠페인 기간 중 가입한 회원

| 가입기간

2022년 3월 1일(화) ~ 6월 30일(목)

| 참여방법

(재)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www.bscc.or.kr) 또는 모바일

| 당첨자 발표

2022년 7월중, 당첨자 개별공지

| 경품내용

선물1	20명	부산문화회관 VIP회원권(10만원 상당)
선물2	30명	부산문화회관 스페셜회원권(5만원 상당)
선물3	50명	부산문화회관 예술단회원권(3만원 상당)
선물4	100명	해리스 카페 아메리카노 쿠폰(5천원권)
선물5	100명	부산문화회관 월간지 <예술의초대> 1년 구독권
선물6	100명	부산문화회관 무료주차권 5매

플러스 회원 가입 캠페인

QR코드를
간편가입!



이름

아이디

홈페이지 회원가입을 위해 필요합니다.

전화번호

홈페이지 로그인 시 최초 비밀번호로 설정됩니다.

이메일

주소

이벤트 당첨 시 기재해 주신 주소로 경품 발송됩니다.

SMS/이메일 수신동의

플러스 무료 회원의 혜택인 공연 문자 알림과 뉴스레터 수신을 위하여 SMS/이메일 수신동의는 필수입니다.

정보제공 활용동의

제공해주시는 개인정보는 (재)부산문화회관의 회원 가입 및 공연정보등을 제공하고 경품 추첨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됩니다. 정보제공에 동의하지 않으신 경우 플러스 회원 가입이 불가능하며, 경품 추첨에 제한이 있습니다.

귀하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時代가 人間 에게 던지는 질문



10 人間 100 人間 100 人間



문의 채널

2022년 부산시립극단 장막 희곡 공모

응모자격

제한없음 (단, 미발표 순수 창작품에 한함)

공모부분

창작 희곡 (원고지 250매 이상으로 대극장 공연이 가능한 작품)

접수기간

2022. 7. 11.(월) ~ 7. 29.(금) 17:00까지

제출서류

- [별지1] 공모 신청서 1부
- [별지2] 작품의도 및 줄거리 1부
- [별지3]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별지4] 창작 희곡 원고 1부
(한글파일 혹은 워드파일로 표지 작성 후 함께 제출)

접수방법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에서 양식 다운로드 후 이메일 접수 혹은 우편접수
이메일접수: 0308side@bscc.or.kr
우 편 접 수: 2022. 7. 29.(금) 도착분에 한함 (방문접수 불가)
단, 공모신청서는 이메일 접수로 마감시간 엄수
주소 : 부산광역시 남구 유엔평화로76번길 1(대연동 848-4)
부산시립예술단 시립극단 담당자 박지현 앞

최종발표

2022년 8월 중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www.bscc.or.kr) 공지 및 개별 유선통보

시상내역

당선작 1편 상금 3,000만 원
*시상에 따른 제세공과금은 당선자 부담

유의사항

- 저작권 등의 문제 발생 시 당선 취소 및 표창, 수상금 회수 조치
- 수상여부와 상관없이 응모한 원고 및 자료에 대한 반환 및 비용청구 불가
(입상하지 않은 응모작은 공모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폐기 예정)
- 공연 제작시, 필요에 따라 작품 수정/변경 가능하며, 심사 결과에 따라 적합한 작품이 없을시 수상하지 않음

문의

- 부산시립극단 051)607-3127
- E-mail : 0308side@bscc.or.kr

2022

시민뜨락축제

스트리트 문화, 힐링 콘서트!



일시

2022. 4월 22일(금) ~ 5월 20일(금)
매주 금요일 / 12시 20분

장소

부산시민회관 광장 야외무대

입장료

무료

일정	단체명	장르
4월 22일	블루양상블	클래식
	댄스팀 룩스	대중댄스
4월 29일	얼터너티브 국악그룹 초아	퓨전국악
	알싸계또마부산플라멩코	댄스(플라멩코)
5월 6일	퓨전국악밴드 비원	퓨전국악
	Project A	스트리트 댄스
5월 13일	이플림 양상블	클래식
	여쿠스틱 나무의자	포크음악
5월 20일	부산시립합창단	클래식

587

BUSAN
PHILHARMONIC
ORCHESTRA
1962-2022

Soo-Yeoul Choi
Artistic Director &
Chief Conductor



AURORA BOREALIS

오로라

지휘 최수열
바이올린 양인모(2022 올해의 예술가)

시벨리우스 / 바이올린 협주곡
시벨리우스 / 교향곡 제2번

2022년 5월 13일 금요일 19: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창단60주년
부산시립교향악단

티켓
문의 R20,000원 S15,000원 A10,000원 B5,000원
051-807-8000(ARS 1번)

www.bscc.or.kr



BUSAN
PHILHARMONIC
ORCHESTRA



심포니아_夜

Symphonic Night

연주 부산시립교향악단
지휘 최수열
해설 황장원(음악 칼럼니스트)

시벨리우스 / 교향곡 제2번

2022년 5월 11일 수요일 19: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부산시립교향악단
우리아이 음악회

2022년 5월 26일 | 목 19:3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입장료 | 균일 10,000원



select shop

10CM X 소수빈

2022.06.11(SAT) 6PM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2022 부산시립예술단 꿈꾸는 예술학교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토크오페라 ‘세비야의 이발사’ 주역 오디션 공고



2022년 부산시립예술단 <꿈꾸는 예술학교>에서 선보이는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세비야의 이발사’에 출연할 열정 넘치는
부산 지역 청년예술가들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공연개요

공연명 2022 부산시립예술단 꿈꾸는 예술학교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토크오페라 ‘세비야의 이발사’

공연일시 2022년 7월 7일(목) 오전 10:30, 오후 2:00, 8일(금) 오전 10:30, 9일(토) 오후 3:00

공연장소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출연 지휘 이명근 / 연출 이의주 / 연주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모집부문 및 전형내용

응시자격 ① 공연일 기준, 만 39세 이하 청년 성악가
② 부산 출신(타 지역대학, 해외 대학 졸업자 포함) 또는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공고일 기준 부산 또는 부산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자(활동 증빙 필요)

모집 배역 로지나(Rosina), 피가로(Figaro), 바르톨로(Bartolo), 알마비바(Almaviva)

일시 및 장소 2022년 5월 16일(월) 오전 10:00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연습실

합격자 발표 2022년 5월 18일(수) 오후 5:00 ※ (재)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bscc.or.kr) 게재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기간 2022년 4월 15일(금)~5월 12일(목) 오후 5:00까지

제출서류 응시원서 1부(사진 포함), 경력 또는 재학 증명서, 오페라 관련 경력 공연 증빙자료 (증빙서류는 3년 이내)

접수처 전자우편 bko2934@bscc.or.kr

문의

부산시립예술단 사무국 051-607-3110, 3113
※ 자세한 사항은 (재)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참조



COUPON



30% Discount

갤러리안경(전 지점)

이 쿠폰과 문화회관 정기회원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COUPON



20% Discount

노벨안경콘택트

이 쿠폰과 문화회관 정기회원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COUPON



20% Discount

해리스커피

이 쿠폰과 문화회관 정기회원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산문화회관의
The Monthly Magazine of the Busan Cultural Center

Busan Cultural Center

배시시(BSCC)TV

(재)부산문화회관 공식 유튜브채널

(재)부산문화회관 공식 유튜브 채널 '배시시(BSCC)TV'입니다.
'배시시' 이름처럼 많은 분들의 입가에 배시시 미소를 짓게 할
다양한 이야기들을 담아 전달합니다.
'구독'을 누르시면 부산의 문화 소식을 쉽고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구독 부탁드립니다.

검색

유튜브 검색창에 '배시시tv'를 검색해보세요.



20% Discount

BNK부산은행 조은극장

- 쿠폰 소지자에 한해 1인 2매까지 할인됩니다.
- 예매 후 티켓 수령 시 본 쿠폰과 문화회관 정기회원카드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1만원 씬머니
(\$100 이상 구매 시)

신세계면세점 부산점

쿠폰 소지회원 출국당 1월 1회,
당사 규정에 따라 증정합니다.



5% Discount

(부산송도) 베스트웨스턴 플러스호텔

홈페이지 예약으로만 진행되며
여행사 판매가의 5%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사진 맛집 BSCC



#부산문화회관 #부산시민회관 #BSCC #사진 맛집
#BSCC사진맛집 #부산시민회관야외광장 #포토 존



여러분이 포착한 부산문화회관, 부산시민회관의 아름다운 장면과 공간들을 공유해주세요!
주제에 맞는 곳에서 진행되는 공연이나 풍경 등을 담아도 되고, 여러분의 멋진 포즈를 담아도 좋습니다!
4회에 걸쳐 진행되는 이번 이벤트에서는 매회 주제에 맞는 멋진 사진을 공유해주시는
5분을 선정하여 상품을 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31 이벤트 기간 2022년 3월 29일(금)~5월 15일(일)

🌲 포토존 주제 부산시민회관 야외광장

📷 참여 방법 인스타그램 피드 내 개별 사진 업로드
※ 관련 해시태그 필수 : #BSCC사진맛집 #부산시민회관야외광장

🎁 당첨자 발표 - 총 5명 발표(최우수상 2명, 우수상 3명)
- 예술의초대 6월호 및 SNS채널 내 당첨자 발표

⚠️ 유의 사항 - 제출 사진의 규격 및 해상도 제한 없으나 인스타그램 채널 내에서 허용 가능한
사진으로 제출
- 당첨자에 한해 담당자 이메일로 원본 사진파일 발송 필수
- 해당 이벤트에 당첨된 사진은 (재)부산문화회관 SNS 채널 및 예술의초대에 게재,
사용될 수 있음
- 당첨 상품은 모바일 쿠폰으로 제공되며, 상품은 변경될 수 있음
- 해당 이벤트에 참여 저조 등의 이유로 당첨자가 없을 수도 있음

☎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홍보팀 051-607-6126



(부산송도) 베스트웨스턴 플러스호텔

예약방법 : 호텔 홈페이지 예약하기 -> 프로모션 코드입력 "CORMEM"
(<https://bwplusbusan.com/>)

부산광역시 서구 송도해변로 97
051)977-8888



신세계면세점 부산점

증정 기간 : 2022. 5. 31까지
증정 장소 : B1 고객 서비스 데스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4로 15
1661-8778



BNK부산은행 조은극장

입장권 20% 할인

부산광역시 중구 구덕로34번길 4
1588-2757

Surrounding map of the BUSAN CULTURAL CENTER



Food & Coffee

- ① 612-9566 ⑪ 070-755-2188
- ② 624-9776 ⑫ 611-3973
- ③ 626-7111 ⑬ 908-1111
- ④ 611-4241 ⑭ 625-9402
- ⑤ 626-4448 ⑮ 626-2292
- ⑥ 622-7412 ⑯ 010-3996-6498
- ⑦ 611-3589 ⑰ 623-0772
- ⑧ 628-8009 ⑱ 628-3832
- ⑨ 621-7040 ⑲ 714-3559
- ⑩ 621-5788

Music & Art / etc.

- Ⓐ 868-3311
- Ⓑ 868-3311
- Ⓒ 625-7275
- Ⓓ 628-2592
- Ⓔ 622-1456
- Ⓕ 621-6669
- Ⓖ 626-7900
- Ⓘ 080-337-3370
- Ⓝ 622-9722
- Ⓞ 625-8704

COUPON



해리스커피

음료 20% 할인(정기회원 카드 제시 시)

부산문화회관 내
1577-2307

COUPON



노벨안경콘택트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전 상품
20% 할인(일부품목 제외)

부산광역시 남구 유엔평화로 152-2
051)626-8263

COUPON



갤러리안경(전 지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대상
30% 할인(일부품목 제외)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산대학로 50
051)513-45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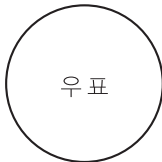
우 편 엽 서

보내는 사람

이름

주소

□ □ □ □ □



받는 사람

이름

주소

□ □ □ □ □



The Monthly Magazine of the Busan Cultural Center

독자의견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세요.

The Monthly Magazine
of the Busan Cultural Center

1. 이번 호에서 유익했던 기사는?

.....
.....

2. 앞으로 다루었으면 하는 내용은?

.....
.....

3. 개선해야 할 점은?

.....
.....



I N V I T A T I O N T O T H E A R T S

2022

5

MAY



Disney IN CONCERT

BEYOND THE MAGIC

2022

디즈니 인 콘서트

2022. 5. 21 SAT 5 PM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